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경학석사 학위논문

사적(史蹟)공원의 다층적 장소성을 고려한 관리 개선 방안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생태조경학 전공

임 수 연

사적(史蹟)공원의 다층적 장소성을 고려한 관리 개선 방안

지도교수 정 욱 주

이 논문을 조경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지역시스템 공학부 생태조경학 전공
임 수 연

임수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위 원 장 배 정 한 (인)

부위원장 정 욱 주 (인)

위 원 조 경 진 (인)

국문초록

약 600년 동안 조선의 수도였던 서울에는 역사적 장소인 사적(史蹟)이 도시공간에 함께 존재한다. 고밀도로 개발된 도시에서는 사적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사적공원은 문화재와 도시공원의 본질적 가치를 향상하며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사적은 도시공원으로 조성되면서 개발로 인한 훼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공원의 공공성을 통해 대중들에게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자연스럽게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할 기회를 얻게 된다. 도시공원은 사적을 통해 일반 공원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형성한다. 또한 고유한 역사 콘텐츠를 소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서비스를 운영하여 도시공원의 활용 가치를 향상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적공원은 사적과 공원이 서로 어우러질 때 공간의 가치가 향상되어 더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적공원은 각 공간의 관성적 관리 방식에 머무르며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적공원의 운영 및 이용관리 현황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는 한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재와 도시공원 관련 제도에 따르면 문화재의 보존뿐 아니라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도시공원에서는 문화재를 동시대에 자연스럽게 공존하며 발생하는 의미 변화를 수용하고 공원의 일부로 포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사적공원 중 사적 유형별로 석촌동고분군, 풍납근린공원, 사직공원, 서대문독립공원, 탑골공원을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문헌조사, 현장 조사,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운영 및 이용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황조사 결과 사적공원의 운영관리는 사적과 공원의 영역이 이원화되어 부서 간 운영관리 차원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유지관리에 국한된 소극적 관리에 그치고 있었다. 이용관리

에서 문화재 해설은 특정 공원만 제공되거나 문화재 해설 코스의 일부에 국한되는 등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이용프로그램은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선정된 공원에서만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역사를 주제로 하는 행사가 개최되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운영관리와 이용관리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운영관리 차원에서는 사적공원은 문화재 관련 부서와 공원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통합운영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련 전문가가 협업하여 사적공원의 적극적 활용을 지향하는 환경이 마련되고 전반적인 사적공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민간단체와 협력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적공원의 이용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단일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사적공원은 시민들이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용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용관리 차원에서 이용대상의 특징에 맞는 맞춤형 문화재 해설 서비스 제공, 문화재 개방을 통한 사적공원의 이용프로그램 구성, 역사 소재와 함께 현세대가 생산하는 문화를 향유하는 행사 개최를 제안하였다.

한편 사적공원은 공원마다 고유한 역사적 장소 맥락을 가지고 있다. 사적공원의 물리적 환경, 공간의 성격은 장소마다 여러 시간의 층이 집적되어 만들어진 결과물로 이를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적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을 진행한 사례 대상지의 장소 맥락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적용한 세부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적공원을 사적과 도시공원의 본질적 가치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역사를 주제로 하는 공원이 일반 공원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운영 및 이용관리 차원에서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사적공원, 문화재, 도시공원, 다층적 장소성, 운영 및 이용관리, 개선방안

학 번 : 2020-21181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 배경과 목적 ····· 1
2. 연구 대상과 범위 ····· 5
3. 연구 내용과 방법 ····· 7
4. 관련 연구 동향 ····· 9

Ⅱ. 사적공원의 가치와 관리의 방향 ····· 12
1. 사적공원의 개념 ····· 12
2. 사적공원의 가치와 지향점 ····· 17
3. 사적공원 관리 방향에 관한 고찰 ····· 23

Ⅲ. 유형별 사적공원의 이해와 운영 및 이용관리 분석 ····· 31
1. 분석의 틀 ····· 31
2. 석촌동고분군 ····· 33
3. 풍납근린공원 ····· 46
4. 사직공원 ····· 57
5. 서대문독립공원 ····· 73
6. 탑골공원 ····· 92
7. 사적공원 운영관리와 이용관리 분석 종합 ····· 106

Ⅳ. 사적공원 관리 개선방안 ····· 110
1. 운영관리 개선방안 ····· 110

2. 이용관리 개선방안 ····· 115
3. 공원별 세부 개선방안 제안 ····· 120

Ⅴ. 결론 ····· 131
1. 연구 요약 ····· 131
2. 연구 시사점과 한계 ····· 134

참고 문헌 ····· 136
Abstract ····· 140

표 목 차

[표 Ⅰ-1] 서울시 사적공원 현황 ····· 6
[표 Ⅰ-2] 현장조사 및 현장 관리자 인터뷰 일정 ····· 8
[표 Ⅰ-3] 담당 공무원 인터뷰 일정 ····· 8
[표 Ⅱ-4] 문화재 종류 ····· 13
[표 Ⅱ-5]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의 지정 기준 ····· 14
[표 Ⅱ-6] 도시공원의 종류 ····· 15
[표 Ⅱ-7] 공원 관리의 구분과 내용 ····· 23
[표 Ⅱ-8] 역사공원의 설치기준 ····· 29
[표 Ⅱ-9] 사적정비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30
[표 Ⅲ-10] 석촌동고분군 관리주체별 운영관리 업무 ····· 40
[표 Ⅲ-11] 송파문화관광해설 ····· 42
[표 Ⅲ-12] 해피송파투어 ····· 42
[표 Ⅲ-13] 송파구 생생문화재 사업 ····· 44
[표 Ⅲ-14] 석촌동고분군 행사 ····· 45
[표 Ⅲ-15] 서울 풍납동 토성 내 행위제한 안내 ····· 54
[표 Ⅲ-16] 풍납근린공원 관리주체별 운영관리 업무 ····· 54
[표 Ⅲ-17] 송파문화관광해설 ····· 55
[표 Ⅲ-18] 풍납근린공원 행사 ····· 56
[표 Ⅲ-19]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활용부서 업무 내용 ····· 67
[표 Ⅲ-20] 사직공원 관리주체별 운영관리 업무 ····· 68
[표 Ⅲ-21] 종로테마여행 골목길 해설 ····· 70
[표 Ⅲ-22]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직단 해설 ····· 70
[표 Ⅲ-23] 사직공원 행사 ····· 72
[표 Ⅲ-24] 서대문독립공원 관리주체별 운영관리 업무 ····· 85
[표 Ⅲ-25] 서대문 역사문화 해설 ····· 87

[표 Ⅲ-26] 서대문구 생생문화재 사업 ····· 88
[표 Ⅲ-27] 서대문구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 ·····89
[표 Ⅲ-28] 서대문독립민주축제 주요 프로그램 ·····90
[표 Ⅲ-29] 탑골공원 이용 안내문 ·····102
[표 Ⅲ-30] 탑골공원 관리주체별 운영관리 업무 ····· 102
[표 Ⅲ-31] 종로테마여행 골목길 해설 ····· 104
[표 Ⅲ-32] 서울도보해설관광 ····· 104
[표 Ⅲ-33] 사적공원 운영관리와 이용관리 분석 종합 ····· 109

그 림 목 차

[그림Ⅰ-1] 사직단 ····· 1
[그림Ⅰ-2] 구 서대문형무소 ····· 1
[그림Ⅰ-3] 사적(史蹟)공원 잠재력에 대한 개념도 ····· 4
[그림Ⅰ-4] 선정 대상지 위치 ····· 5
[그림Ⅰ-5] 연구 흐름도 ····· 8
[그림Ⅱ-6]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절차 ····· 14
[그림Ⅱ-7] 역사공원에 포함되는 개념인 사적공원 ····· 16
[그림Ⅱ-8] 올림픽공원으로 활용되는 몽촌토성 ····· 19
[그림Ⅱ-9]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 ····· 19
[그림Ⅱ-10] 갤러리문(門)과 전시된 유구 ····· 20
[그림Ⅱ-11] 어울림광장 내 전시된 유구 ····· 20
[그림Ⅱ-12] 임진각 ····· 21
[그림Ⅱ-13] 임진각 평화누리 바람의 언덕 ····· 22
[그림Ⅱ-14] 임진각 평화누리 공연장 행사 ····· 22
[그림Ⅱ-15] 서울시 공원 운영관리 체계 유형 ····· 26
[그림Ⅱ-16] 공원 행정 조직도(서울시) ····· 27
[그림 Ⅲ-17] 유형별 사적공원의 이해와 운영 및 이용관리 분석의 틀 ····· 32
[그림 Ⅲ-18] 석촌동고분군의 문화재와 도시공원 지정현황 ····· 33
[그림 Ⅲ-19] 석촌동고분군 전경 ····· 34
[그림 Ⅲ-20] 석촌동고분군 2호분 ····· 34
[그림 Ⅲ-21] 석촌동고분군 조감도 ····· 35
[그림 Ⅲ-22] 공원으로 이용되는 석촌동고분군 ····· 35
[그림 Ⅲ-23] 석촌동 고분군의 역사적 장소 맥락 ····· 36
[그림 Ⅲ-24] 석촌동고분군의 물리적 특징 현황도 ····· 37
[그림 Ⅲ-25] 고분을 포함하여 조성된 녹지 ····· 38

[그림 Ⅲ-26] 외부로부터 시각적 접근성이 높은 석촌동고분군 ····· 38
[그림 Ⅲ-27] 공간 개방감이 높은 석촌동고분군 ····· 38
[그림 Ⅲ-28] 석촌동고분군 운영관리 체계 ····· 39
[그림 Ⅲ-29] 석촌동고분군 관리사무소 ····· 40
[그림 Ⅲ-30] 석촌동고분군 내 제한행위 안내표지 ····· 40
[그림 Ⅲ-31] 해피송파투어 문화 해설 ····· 42
[그림 Ⅲ-32] 해피송파투어 어린이집 교육 ····· 42
[그림 Ⅲ-33] ‘백제의 꿈, 별을 쏘다’ 프로그램 ····· 43
[그림 Ⅲ-34]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43
[그림 Ⅲ-35] 생생문화재 백제돌말극장(2018) ····· 44
[그림 Ⅲ-36] 동명 제례식(2017) ····· 45
[그림 Ⅲ-37] 동명제 백제 건국 뮤지컬공연(2018) ····· 45
[그림 Ⅲ-38] 풍납근린공원의 문화재와 도시공원 지정현황 ····· 46
[그림 Ⅲ-39] 서울 풍납동 토성 전경 ····· 47
[그림 Ⅲ-40] 풍납동 토성 ····· 47
[그림 Ⅲ-41] 주거지로 개발된 풍납동 일대(2009) ····· 48
[그림 Ⅲ-42] 풍납토성 사적 지정(녹색) 현황도 ····· 49
[그림 Ⅲ-43] 풍납근린공원의 역사적 장소 맥락 ····· 50
[그림 Ⅲ-44] 풍납근린공원의 물리적 특징 현황도 ····· 51
[그림 Ⅲ-45] 도시지역 규모로 높은 언덕 형태인 풍납동 토성 ····· 52
[그림 Ⅲ-46] 보호 울타리로 둘러진 풍납동 토성 북벽 ····· 52
[그림 Ⅲ-47] 단절되어 공간 활용도가 낮은 풍납근린공원 ····· 52
[그림 Ⅲ-48] 풍납근린공원 운영관리 체계 ····· 53
[그림 Ⅲ-49] 한성백제 왕도길(1코스) 해설 모습 ····· 55
[그림 Ⅲ-50] 풍납근린공원 해설 ····· 55
[그림 Ⅲ-51] 바람드리골 지역주민 참여 공연 ····· 56
[그림 Ⅲ-52] 바람드리골 먹거리 장터 ····· 56
[그림 Ⅲ-53] 사직공원의 문화재와 도시공원 지정현황 ····· 57

[그림 Ⅲ-54] 사직단 전경 ····· 58
[그림 Ⅲ-55] 사직단 내부 ····· 58
[그림 Ⅲ-56] 사직공원 내 수영장 입구 ····· 60
[그림 Ⅲ-57] 사직공원 내 수영장 내부 ····· 60
[그림 Ⅲ-58] 사직공원의 역사적 장소 맥락 ····· 62
[그림 Ⅲ-59] 사직공원의 물리적 특징 현황도 ····· 63
[그림 Ⅲ-60] 사단과 직단을 둘러싼 담장(유, 내장) ····· 64
[그림 Ⅲ-61] 외곽 담장과 사직단 담장(내장)으로 분리된 공간 형성 ·· 64
[그림 Ⅲ-62] 사직단 권역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담장 ····· 64
[그림 Ⅲ-63] 사직공원 운영관리 체계 ····· 65
[그림 Ⅲ-64]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직체계 ····· 66
[그림 Ⅲ-65] 사직단 관리사무소 ····· 68
[그림 Ⅲ-66] 사직단 문화재 안내소 ····· 68
[그림 Ⅲ-67] 궁궐길라잡이 사직단 해설 ····· 70
[그림 Ⅲ-68] (사)한국의 재발견 사직단 해설 ····· 70
[그림 Ⅲ-69] 사직대제 ····· 72
[그림 Ⅲ-70] 사직대제 어가행렬 ····· 72
[그림 Ⅲ-71] 사직대제 전야제 창작국악공연(2014) ····· 72
[그림 Ⅲ-72] 서대문독립공원의 문화재와 도시공원 지정현황 ····· 73
[그림 Ⅲ-73]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전경 ····· 74
[그림 Ⅲ-74]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내부 ····· 74
[그림 Ⅲ-75] 서울 독립문 ····· 75
[그림 Ⅲ-76] 서울 영은문 주초 ····· 75
[그림 Ⅲ-77] 영은문 전경(1880년대) ····· 76
[그림 Ⅲ-78] 독립문과 독립관 전경(일제강점기) ····· 76
[그림 Ⅲ-79] 서대문형무소전경(1945) ····· 78
[그림 Ⅲ-80]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장(2012) ····· 79
[그림 Ⅲ-8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내부 모형전시 ····· 79

[그림 Ⅲ-82] 서대문독립공원의 역사적 장소 맥락 ····· 80
[그림 Ⅲ-83] 서대문독립공원의 물리적 특징 현황도 ····· 81
[그림 Ⅲ-84] 역사관으로 활용되는 구 서대문형무소 내부 ····· 82
[그림 Ⅲ-85]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구 서대문형무소 담장 ····· 82
[그림 Ⅲ-86] 시민에게 개방된 독립문과 영은문 주초 ····· 82
[그림 Ⅲ-87] 서대문독립공원 운영관리 체계 ····· 83
[그림 Ⅲ-88] 서대문독립공원 방문자센터 ····· 85
[그림 Ⅲ-89]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구 ····· 85
[그림 Ⅲ-90] 서대문독립공원 역사문화탐방 ····· 87
[그림 Ⅲ-9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도슨트 해설 ····· 87
[그림 Ⅲ-92] 서대문독립공원 생생문화재 사업 ····· 88
[그림 Ⅲ-93] 서대문독립민주축제 포스터(2018, 2019) ····· 91
[그림 Ⅲ-94] 서대문독립민주축제(2019) ····· 91
[그림 Ⅲ-95] 탑골공원의 문화재와 도시공원 지정현황 ····· 92
[그림 Ⅲ-96] 탑골공원 내 팔각정 ····· 93
[그림 Ⅲ-97] 탑골공원 전경(2016) ····· 93
[그림 Ⅲ-98] 탑골공원을 담은 사진엽서(1903) ····· 94
[그림 Ⅲ-99] 탑골공원팔각정 앞 국악대(1906) ····· 94
[그림 Ⅲ-100] 탑골공원에 면해 조성된 아케이드(1967) ····· 96
[그림 Ⅲ-101] 탑골공원에 모여 있는 노인(1996) ····· 96
[그림 Ⅲ-102] 탑골공원 무료 급식행렬(1998) ····· 96
[그림 Ⅲ-103] 탑골공원의 역사적 장소 맥락 ····· 98
[그림 Ⅲ-104] 탑골공원의 물리적 특징 현황도 ····· 99
[그림 Ⅲ-105] 시각적, 물리적 접근이 제한되는 전통담장 구간 ····· 100
[그림 Ⅲ-106] 시각적 접근이 가능한 석재 울타리 구간 ····· 100
[그림 Ⅲ-107] 정문(삼일문) 이외에 개방되지 않는 출입구 ····· 100
[그림 Ⅲ-108] 탑골공원 운영관리 체계 ····· 101
[그림 Ⅲ-109] 3.1만세의 날 거리축제 행사(2019) ····· 105

[그림 Ⅲ-110] 탑골공원 대음악축제(2019) ····· 105
[그림 Ⅲ-111] 사적공원 운영관리와 이용관리 분석의 시사점 ····· 108
[그림 Ⅳ-112] 서울시 사적공원 통합운영 협의체 조직도(안) ····· 111
[그림 Ⅳ-113] 통합운영협의체와 민간단체의 협력구조 ····· 113
[그림 Ⅳ-114] 사적공원 서비스관리 단일시스템 제안 ····· 114
[그림 Ⅳ-115] 이용대상 맞춤형 문화재 해설 구성(예시) ····· 116
[그림 Ⅳ-116] 사적공원 행사 기획(예시) ····· 119
[그림 Ⅳ-117] 석촌동고분군의 역사 교육 프로그램 구성(예시) ····· 121
[그림 Ⅳ-118] 물리적으로 분리된 풍납동 토성(현황) ····· 123
[그림 Ⅳ-119] 풍납동 토성 북벽구간 (현황) ····· 123
[그림 Ⅳ-120] 풍납근린공원 개선방안 적용(예시) ····· 123
[그림 Ⅳ-121] 사직공원 문화재 해설 구성(예시) ····· 125
[그림 Ⅳ-122] 물리적으로 분리된 사직단(현황) ····· 126
[그림 Ⅳ-123] 사직단 내부 (현황) ····· 126
[그림 Ⅳ-124] 사직공원 개선방안 적용(예시) ····· 126
[그림 Ⅳ-125] 탑골공원 문화재 해설 구성(예시) ····· 129
[그림 Ⅳ-126] 팔각정에서 바라본 탑골공원(현황) ····· 130
[그림 Ⅳ-127] 탑골공원 팔각정(현황) ····· 130
[그림 Ⅳ-128] 탑골공원 개선방안 적용(예시)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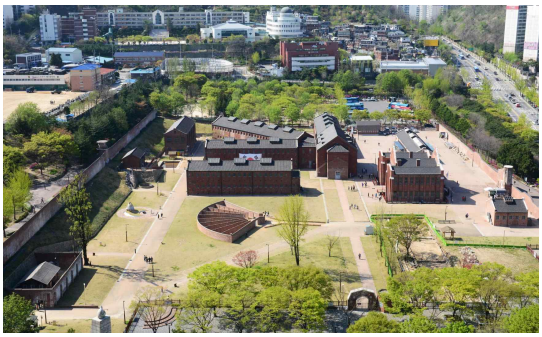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1. 연구 배경

서울은 약 600년 동안 조선의 수도이자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오랜 역사가 있는 도시다. 이 역사의 흔적은 고밀도로 개발된 현대 서울의 도시공간에 함께 존재한다. 특히 사적(史蹟)은 특정 공간이 역사적 장소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된다. 현대 도시공간에서 사적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활용된다. 사직단을 포함하는 사직공원, 구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 영은문 주초를 포함하는 서대문독립공원, 풍납동 토성 일부를 포함하는 풍납 근린공원이 대표적인 사적공원[1]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Ⅰ-1] 사직단
자료: 국립고궁박물관



[그림 Ⅰ-2] 구 서대문형무소
자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내 사적공원의 기원은 1940년 『경성부 시가지 계획공원 결정고시』에서 일제가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의 성역에 해당하는 공간인 사직단, 효창, 장충단, 창경궁과 덕수궁 등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해방 이후 도시계획과 관련된 제도는 일제에 의해 제정된 『조선

1) 사적공원은 도시공원 관련 법률상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사적(史蹟)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 조성된 도시공원이 공간적으로 중첩된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적공원(史蹟公園)을 사용한다.

시가지계획령』에 따라 이루어졌다.[2] 1960년대 들어서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과 함께 급격하게 달라지던 한국의 도시환경을 체계적으로 계획, 관리하기 위해『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해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현대적 제도가 마련되었다. 당시 건설부는 고궁들이 이미 공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조선 4대 궁과 종묘를 도시계획시설 중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였다.[3] 이후 1967년『도시공원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에 존재하는 사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예컨대 1986년 몽촌토성을 포함하여 올림픽공원이 조성되었으며, 1986년 석촌동 고분군은 도시계획 단계에서 근린공원으로 최초 결정되었다. 1989년 구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 영은문 주초를 포함하는 서대문 독립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다. 당시 도시공원의 유형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적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4]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제공원 중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공원이 등장하였다. 이로써 사적공원처럼 역사적 특성이 있는 공원을 일반 공원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문화재는 물리적 원형 유지뿐 아니라 해당 문화재의 중요성과 가치를 현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후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5] 과거의 유산인 문화재는 현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됨으로써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다. 한편 도시 공간 속에 자리잡고 있는 문화재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현대인들의 삶과 단절되어 고립된 섬 같은 형태로 보존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공간적 특징을 가진 문화재일수록 과거의 시간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담아내

---

2) 강신용(1995)『한국근대 도시공원사』, 도서출판 조경, p.121.
3) 황기원(2001) “서울 20세기 공원・녹지의 변천”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411.
4) 이재준 외4명(2004) “도시공원녹지 제도 및 관리체계 개편방안”,『도시정보지』,12월호, p.6.
5) 국립문화재연구소(2009)『사적의 보존 활용을 위한 해외 조사자료집』, p.9.

어 지속적으로 해당 시대와 호흡할 수 있어야 한다.[6] 즉 역사적 장소인 사적(史蹟)은 현대 생활 속에서 공유되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적극적 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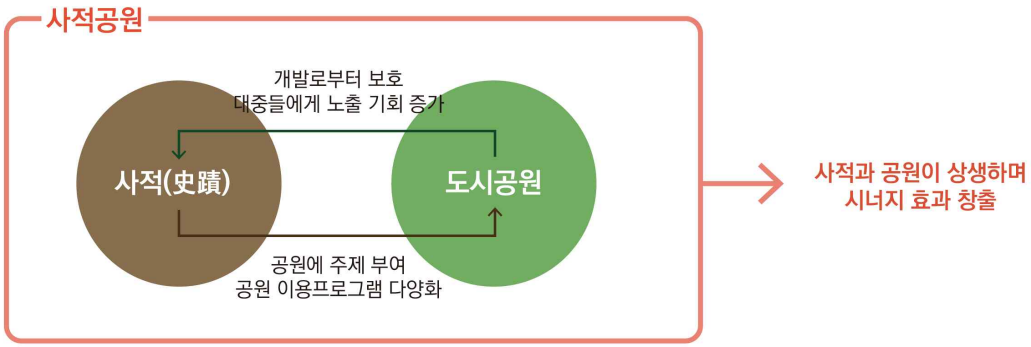
도시공원은 도시의 환경적 질 향상과 주민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수용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오픈스페이스이다. 도시공원은 많은 사람이 즐겨 찾으며 지속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때 공공 인프라로서 유용성이 확보될 수 있다.[7] 따라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은 도시공원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사항이다. 공원은 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연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주고 도시 생활의 질적 가치를 향상하는 장소이다.[8] 도시공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은 시민들을 공원에서 특정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간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킨다. 다시 말해 도시공원에서 시민들의 경험을 다양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은 공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한다.[9]

이 가운데 사적과 도시공원이 중첩된 사적공원은 두 공간의 통합으로 새로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사적은 도시공원으로 조성됨으로써 개발로 인한 훼손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지속적인 보존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성이 있는 공원의 성격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일반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가까워질 수 있다. 도시공원은 사적과 결합하여 일반 공원과 구별되는 주제를 바탕으로 공원 이용프로그램에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다. 도시공원에서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의 향유는 시민들이 좀 더 쉽게 문화를 접하면서 해당 유산에 대해 친근함을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다.[10] 이처럼 사적과 공원의 결합은 각 공간이

---

6) 김주석(2016) “도시 속 문화재방재에 있어 민・관・학 협력의 필요성”, 『문화재방재학회』, 1(1), p.20.
7) 조한솔(2012) “도시공원과 공공복지 인프라의 통합적 연계 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
8) 조경진(2010) “공원, 도시의 희망”(조경비평 봄, 『공원을 읽다』), 나무도시, p.266.
9) 허재희, 김아연(2014) “도시공원의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실태 비교연구”, 『한국조경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p.34
10) 김보애(2006) 『도시공원의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

단독으로 존재할 때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각 공간의 본질적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나 현재 사적공원은 운영관리체계가 이원화되고 단편적으로 제공되는 이용서비스로 사적과 공원이 공존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와 공원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며 각 공간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적공원의 운영 및 이용관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림 Ⅰ-3] 사적(史蹟)공원 잠재력에 대한 개념도

1.2. 연구 목적

사적공원은 사적(史蹟)과 공원이 공존함으로써 새로운 혜택을 창출하고 각 공간의 본질적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적공원의 운영관리와 이용서비스는 문화재와 공원 각각의 관성적 관리 방식에 머무르며 효과적으로 사적공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적공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적공원의 운영 및 이용관리 현황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먼저 먼저 사적공원의 가치와 지향점을 파악하고 공원 관리 개념, 관련 제도를 통해 사적공원의 관리 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내 사적공원 중 사적 유형별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운영관리, 이용관리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적공원의 질적 가치를 향상하는 합리적인 운영 및 이용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과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서울은 약 600여 년 동안 조선의 수도였던 곳으로 도시공간에 문화재로 지정된 유산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다. 또한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밀도로 개발이 이루어져 사적과 공원이 결합된 사례가 빈번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내 사적공원을 대상으로 운영 및 이용관리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서울시 내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사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 조성된 도시공원이 공간적으로 중첩되는 사례는 2021년 현재 총 19개소이다. 사적공원은 사적의 유형에 따라 6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궁궐, 능, 묘 유형을 제외하고 유형별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총 5곳의 사적공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11)]

[그림 Ⅰ-4] 선정 대상지 위치

11) 궁궐, 능, 묘 유형은 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되고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서 정의한 사적공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공간 전체가 문화재로서 성격이 명확하여 실질적으로 사적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와 동일한 환경을 갖는다. 따라서 해당 유형은 문화재와 도시공원의 공간적 성격이 중첩된 사례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표 Ⅰ-1] 서울시 사적공원 현황

	사적의 유형	사적 명칭	공원 명칭	도시계획시설 종류
1	궁궐, 능, 묘	경복궁	-	근린공원
2		창덕궁	-	
3		창경궁	-	
4		덕수궁	-	
5		종묘	-	
6		서울 선릉과 정릉	-	
7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홍릉근린공원	
8		경희궁지	-	역사공원
9	고분군	서울 석촌동고분군	서울 석촌동고분군	역사공원
10		서울 방이동고분군	서울 방이동고분군	
11	성지(城地)	서울 풍납동 토성	풍납근린공원	근린공원
12			풍납백제문화공원	문화공원
13		서울 몽촌토성	올림픽공원	운동장
14	제사터	사직단	사직공원	근린공원
15		서울 선농단	선농단 역사공원	
16	근대 건축물 및 구조물	서울 독립문	서대문독립공원	근린공원
		서울 영은문 주초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17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정동공원	
18	공원 자체	서울 효창공원	효창공원	근린공원
19		서울 탑골공원	탑골공원	

자료: 서울시 공원통계(2020),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 검색리스트(2020)

3. 연구 내용과 방법

사적공원의 운영 및 이용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사적공원의 가치와 관리 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먼저 사적공원을 구성하는 사적(史蹟)과 도시공원의 정의, 유형, 지정 과정 등을 고찰하여 개념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사적의 가치와 활용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사례와 함께 사적공원의 잠재력을 파악하여 사적공원의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사적공원 관리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공원 운영 및 이용관리에 대한 개념, 서울시 공원 운영 관리 체계, 사적공원 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서울시 내 사적공원 중 사적 유형별로 사례 대상지를 선정하여 현장 조사, 관계자 인터뷰, 문헌 연구를 병행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각 공원별 사적에 대한 기초 정보를 조사하고 문화재 지정 고시, 도시공원 계획 조성 결정 고시 자료를 바탕으로 수치 지도에 매핑하여 사적과 공원의 공간적 중첩을 분석한다. 그리고 각 공원별로 누적된 역사적 내용을 파악하여 장소의 맥락에 따른 고유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사적 유형별로 각 공원의 특징을 분석하여 물리적 공간을 이해한다. 운영관리에서는 담당 공무원, 현장관리자 인터뷰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관리 체계와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업무 내용을 파악한다. 이용관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각 사적공원에서 시행되는 문화재 해설, 이용프로그램 및 행사를 분석한다. 각 공원의 분석을 종합하여 운영관리와 이용관리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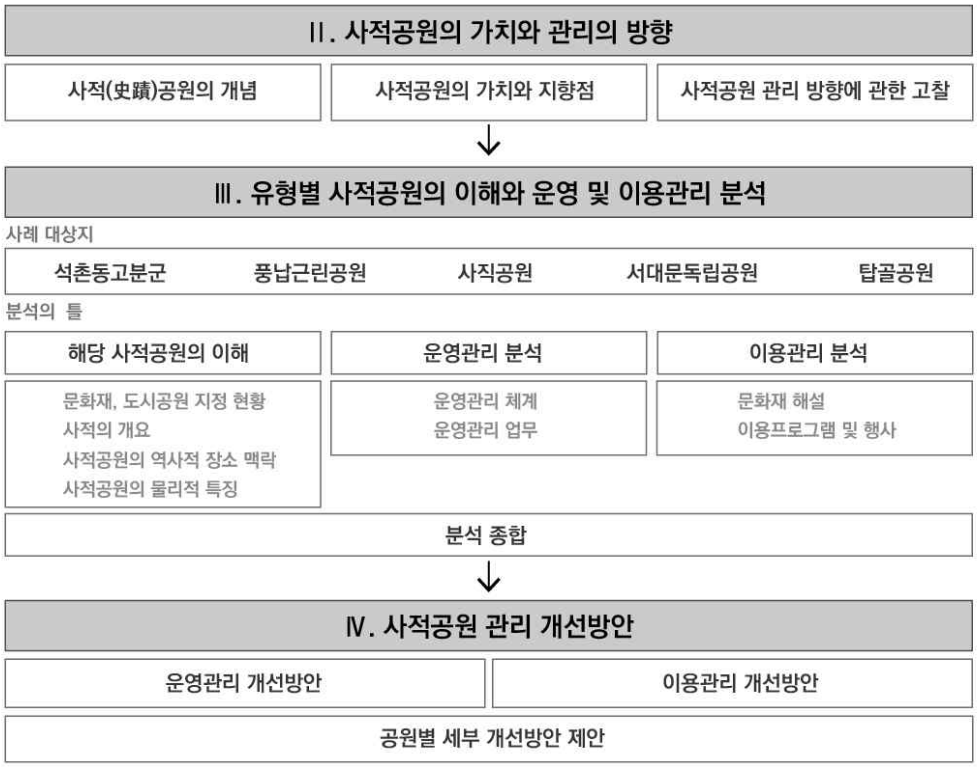
4장에서는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적공원의 운영 및 이용관리 개선방안과 선정한 사례 대상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표 Ⅰ-2] 현장조사 및 현장 관리자 인터뷰 일정

사례대상지 목록	현장 조사	현장 관리자 인터뷰
석촌동고분군	2021.06.07	O
풍납근린공원	2021.10.09. / 2021.06.12	-
사직공원	2020.09.20. / 2021.04.05	-
서대문독립공원	2020.09.20. / 2021.06.29	-
탑골공원	2021.06.29.	O

[표 Ⅰ-3] 담당 공무원 인터뷰 일정

사례대상지 목록	소속	이름	날짜
석촌동고분군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전OO	2021.06.03
풍납근린공원	송파구 공원녹지과	김OO	2021.07.07
사직공원	종로구 공원녹지과	박OO	2021.07.12
서대문독립공원	서대문구 푸른도시과/서대문구 문화체육과	서OO/한OO	2021.06.25
탑골공원	종로구 공원녹지과	김OO	2021.07.13



[그림 Ⅰ-5] 연구 흐름도

4. 관련 연구 동향

사적공원과 관련한 연구 동향을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와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역사공원이 제도화된 이후 조경학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진 역사공원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4.1.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강대일(2006)은 문화재 보존에 대한 개념과 보존 이론을 검토하여 원형 보존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초기 보존 개념에서 20세기에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로 문화재 활용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였음을 설명했다. 또한, 현대에는 문화재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며 이로써 활용과 보존이 상반된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제시했다.

류호철(2014)은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된 문화재 활용에 대해 효율성과 체계성이 필요함에 주목했다. 기존의 문화재 활용 개념을 검토하여 확장된 문화재 활용 개념을 제시하고 국내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이루어진 문화재 활용 사례들을 분석하여 활용 목적, 형태, 방법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체계화했다.

한편, 개별 문화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았다.(조교환 2010; 신희권 2014; 이완건 2014; 이현주 2015; 김기욱 2018) 고고유적, 매장문화재, 건축물 등 문화재 유형별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시도가 주를 이루었다.

류호철(2017)은 문화재 활용에 대한 성과들이 개별 사례 연구에만 집중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문화재 활용 정책과 시행 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문화재 활용 정책 수립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진우(2018)는 문화유산은 과거가 아닌 현재에서 문화적 효용을 발생

시킬 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문화재가 아닌 인간 중심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문화유산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여 활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중심의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체계를 제시했다.

4.2. 역사공원에 관한 연구

안계복(2001)은 국내에서 역사공원이 제도화되기 이전에 유적의 보존과 활용, 개발과 보존 사이에 발생하는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역사공원의 개념 설정과 바람직한 보존 및 정비 방향을 모색하였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고찰하여 국내에 적용될 역사공원의 개념을 제시하고 유적의 보존 유형에 따라 역사공원 정비 방향을 제안하였다.

역사공원이 제도화된 이후 구체적인 역사공원 대상지에 대한 계획, 설계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임창준 2009; 한미옥 2009; 신서경 2010, 강병옥 2011) 그리고 역사공원의 이용 후 평가에 관한 연구로 손재현(2014)은 대구시 역사공원 중 3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행태 및 시민의식을 조사하여 더욱 체계적인 역사공원 관리와 설계기준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김원주(2015)는 서울시 역사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역사공원이 주제공원으로서 특성에 맞게 조성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했다. 서울시 역사공원 8개소를 대상으로 각 공원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분석하고 주변 역사자원과 연계하여 스토리텔링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역사성 있는 공원이 성격과 부합하지 않게 다른 유형의 공원으로 지정된 경우를 역사공원으로 개편을 제안했다.

고영권(2016)은 서울시 역사공원의 조성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의 기준을 역사문화자원, 공간기능, 공원시설, 공원식생, 운영관리, 이용관리로 구분하고 역사문화경관 가치를 통해 설정한 역사성, 심미성, 교육성, 사회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했다.

길지혜, 박희성, 박재민(2016)은 국내 조성된 역사공원을 대상으로 지정

현황, 조성 경향을 분석했다. 역사공원 유형을 역사자원의 성격에 따라 역사유산공원, 역사기념공원, 역사테마공원, 역사적공원 4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조성 및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 역사공원의 활용 특징과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시공원 체계에서 역사공원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본바,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는 문화재 원형 보존에서 활용 중심으로 관점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보존과 활용에 대한 개념과 원칙을 검토하고 체계를 마련하여 바람직한 활용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매장문화재, 건축물 등 구체적인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문화재가 도시공원과 공존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역사공원에 관한 연구는 역사공원이 제도화되기 이전 개념에 관한 연구가 이루졌고 역사공원이 등장한 이후 구체적인 사례 대상지를 중심으로 한 계획 설계 연구가 있었다. 이후 양적으로 증가한 역사공원의 현황 고찰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조성, 운영, 관리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도시공원 종류 중 하나로 사적공원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재와 도시공원이 중첩된 사적공원의 공간적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각 공간의 본질적 가치를 향상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Ⅱ. 사적공원의 가치와 관리 방향

1. 사적공원의 개념

1.1. 사적(史蹟)의 개념

오랜 역사가 쌓여 남겨진 문화유산 중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를 '사적(史蹟)' 또는 '유적(遺蹟)' 이라고 부른다. 사적의 사전적 의미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시설의 자취' 이다. 유적의 사전적 의미는 '남아 있는 역사적인 자취, 건축물이나 싸움터 또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나 패총, 고분 따위를 이른다' 고 정의하고 있다.[12] 즉 사적과 유적은 유사한 의미가 있지만, 사적은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로서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사적을 기념물(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을 지정한 문화재[13]로 정의한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져 움직일 수 있는 유물[14]과 다르게 사적은 움직일 수 없는 잔존물이자 역사적 현장으로서 공간의 가치가 중요하게 평가되어 문화재로 지정된다. 문화재 종류는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나뉘며 사적은 국가지정문화재에 해당한다.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사적의 지정기준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전제로 하며 사적의 본래 기능에 따라 선사시대 유적,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으로 분류한다.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사적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다.

---

1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3)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
14) 국립문화재연구소(2001)『한국고고학사전』(2001), p.966.

[표 Ⅱ-4] 문화재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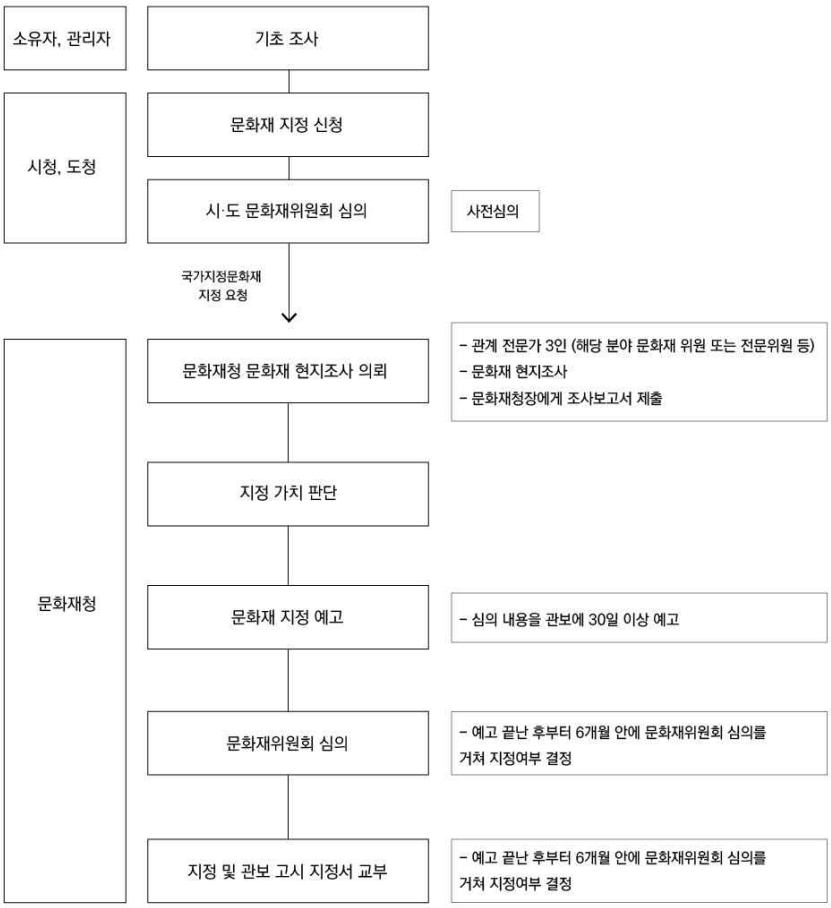
구분			정의
지정 문화재	국가 지정 문화재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보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악보·악기·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사적	기념물 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한다.
		명승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천연 기념물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국가무형 문화재	연극,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
		국가민속 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시 · 도 지정 문화재	유형 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무형 문화재	연극,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기념물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 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
		민속 문화재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문화재자료		시 ·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등록 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시 · 도 등록문화재		시 · 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 ·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자료: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정의), 필자 재구성

[표 Ⅱ-5]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의 지정 기준

사적	내용
지정 기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1.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 2.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 3.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4.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유형별 분류 기준	1.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2.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3. 역사·교량·제방·가마터·원지(園池)·우물·수중유적 등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4.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5. 제단, 고인돌,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6.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자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필자 재구성



[그림 Ⅱ-6]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절차

1.2. 도시공원의 개념

도시공원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것으로 정의한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중 기반시설로 분류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공원으로 규정한다.[15]

도시공원의 유형은 크게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구분된다.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포함하며,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사적공원은 주제공원인 역사공원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도시공원이 위치한 담당 지자체에서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결정하게 된다.[16]

[표 Ⅱ-6] 도시공원의 종류

구분		내용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생활권공원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주제공원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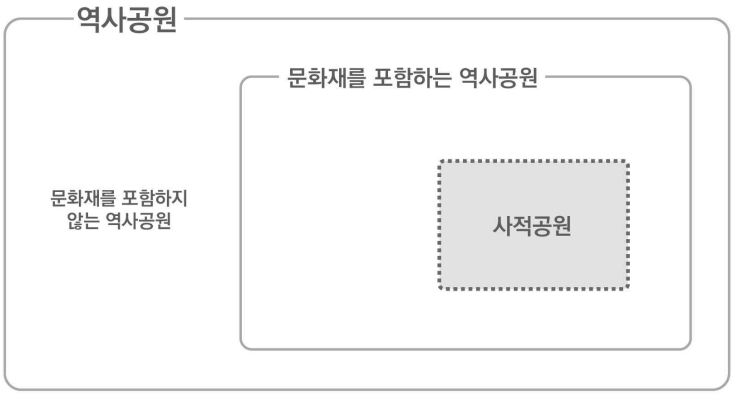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도시농업 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1.3. 사적공원과 역사공원의 관계

역사공원은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주제공원 중 하나로 분류된다. 국내 조성된 역사공원은 역사유산공원, 역사기념공원, 역사테마공원, 역사적공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17] 공원 유형에 따라 공원 내 문화재가 존재하지 않아도 장소의 역사성을 활용하여 기념공원, 테마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즉 국내에서 조성되는 역사공원은 공원 내 문화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역사 콘텐츠를 활용하여 조성된 공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 가운데 사적공원은 역사공원의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공간적 문화재인 사적이 공존하는 특징을 활용하여 역사공원의 교육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림 Ⅱ-7] 역사공원에 포함되는 개념인 사적공원

17) 길지혜, 박희성, 박재민(2016) "국내 역사공원의 지정 및 조성 경향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44(2), pp.138-140.

2. 사적공원의 가치와 지향점

2.1. 사적(史蹟)의 가치와 활용의 중요성

문화유산은 한 시대의 정치·경제·사회적 욕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활동의 결과물로 과거의 삶의 흔적이 담겨있다. 문화유산은 한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18]

문화유산에 축적된 역사적 정보를 현세대에게 전달하여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현재까지 이어온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19]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보존된 문화재의 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며 문화유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0]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한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유산의 보전은 현세대의 적극적 향유에 의해 전달되고 발전되며 더욱 가치를 향상할 수 있다.

한편 사적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보존될 수밖에 없는 유물과 다르게 도시에 함께 존재하며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특정 시대와 현재를 연결해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21] 또한 오랫동안 누적된 시간을 연상하게 되는 장소적 유산이라는 특징이 있다. 사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문화 향유 및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생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도시공간에 존재하는 사적의 가치와 중요성을 시민들이 인식할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다면, 사적은 현대 사회와 단절된 채 전시된 유물에 불과하다. 장소적 유산인 사적은 현세대의 일상과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에 효과적인 활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18) 문화재청(2006),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연구, p.24
19) 국립문화재연구소(2009)『사적의 보존 활용을 위한 해외 조사자료집』, p.9.
20)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21) 김영모(2012) “역사유적의 설계적 가치와 활용방안”,『한국조경학회 발간 정보지』, 16, p.8.

2.2. 사적과 도시공원이 중첩된 사적공원의 잠재력

사적과 도시공원이 중첩된 사적공원은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이 공존하면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먼저 사적은 도시공간에 존재하는 유적이기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유물보다 도시개발 행위로 인해 훼손될 위험이 크다. 실제로 1967년 사직터널공사를 위해 사직단 정문이 이축되었고 같은 해 탑골공원 서쪽에 대규모 아케이드가 설치되었다가 1983년에 이르러서야 철거된 바 있다. 도시공원과 사적이 공존한다면, 도시 오픈 스페이스인 공원이 완충공간으로 기능하여 사적을 개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사적은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노출되어 가까워질 수 있다.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적을 접하게 되면서 친근감을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환경을 마련한다면 공원에서 누릴 수 있는 서비스와 함께 문화적 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김영모(2012)에 따르면 일정 면적을 갖는 유적 형태의 문화유산이 공원으로 조성된다면 공원의 공공성과 유적의 공공성이 어우러져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사적과 공원이 공존하는 것은 역사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하면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도시의 오픈 스페이스로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때 도시공원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는 시민들을 끌어들여 도시공원의 활용 가치를 향상시킨다.[22] 공원 프로그램은 휴식과 산책 등 소극적 이용 행위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도시공원에서의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사적공원에서는 장소에 누적된 역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용 서비스, 프로그램 및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도시공원은 사적과 공존하면서 일반 공원과 구별되는 개성을 갖게 된다. 사적은 역사적 사건의 현장으로서 공간 자체가 고유한 성격을 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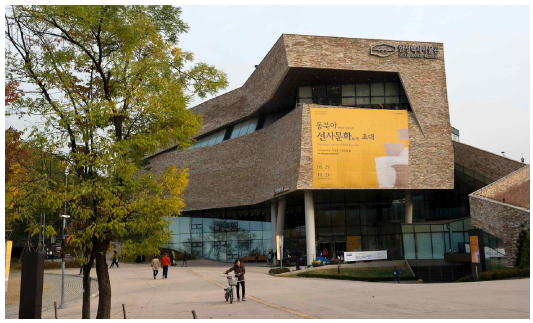
22) 허재희, 김아연(2014) “도시공원의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실태 비교연구”, 『한국조경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p.34

닌다. 오랜 시간이 누적된 사적은 도시공원에서 차별화된 경관을 연출할 뿐 아니라 시간성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사적의 존재로 해당 도시공원은 명확한 주제를 부여받게 되고 이는 도시공원의 다양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도시공간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이 공존하면서 가치가 향상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올림픽공원은 한성백제시대의 중요 유적 중 하나인 몽촌토성을 포함하여 조성된 공원이다. 1980년대 올림픽 체육시설 건립 예정지로 확정되면서 토성을 공원화하기 위해 발굴 조사가 시행되었다.[23] 이후 공원 중심부에 몽촌토성을 복원하고 주변으로 6개의 대규모 경기장이 건설되어 1986년 올림픽공원이 완공되었다. 올림픽공원은 대규모 경기장을 공연,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체육, 문화예술, 역사, 교육, 휴식의 기능을 골고루 갖춘 종합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역사유적의 활용 면에서 몽촌토성은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긍정적 효과를 얻은 사례이다. 몽촌토성은 단독으로 존재했다면 관람 중심의 제한적인 활용에 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공원으로 조성되며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 유산의 가치를 대중들이 인식할 기회를 제공한다. 올림픽공원 또한 몽촌토성의 역사적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구성하며 공원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몽촌토성과 올림픽공원은 함께 어우러지면서 공간의 가치가 더욱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8] 올림픽공원으로 활용되는 몽촌토성
자료: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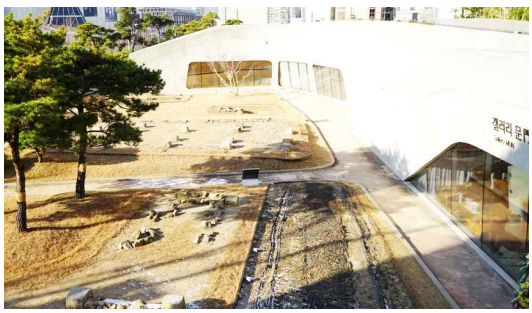
[그림 II-9]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
자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3)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www.culturecontent.com, “몽촌토성”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옛 동대문운동장이 철거되면서 조성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일부로 2009년에 개장하였다. 동대문운동장 철거 작업 중 발굴된 한양도성 성벽과 치성, 이간수문 그리고 조선 시대 군사 시설을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되었다.[24] 동대문디자인 플라자 주변으로 동대문 역사관, 동대문운동장 기념관, 이간수문 전시장, 갤러리 문이 함께 공간을 구성한다.[25]

문화재 조사에서 발굴된 유물을 전시하는 동대문 역사관은 발굴된 유물들의 토층 탐험, 하도감 터와 이간수문을 3D로 복원한 영상관, 유구지별 유물탐색 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전달한다. 동대문운동장 기념관에서는 관련 자료를 전시하면서 동대문 운동장 지역의 역사와 장소성을 사람들이 되짚어 볼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어울림광장에는 동대문운동장 야구장 부지 아래에서 발굴된 조선 전기 건물터와 석축시설, 담장기 초열 유적이 전시되어 있으며[26] 문화 예술 행사가 개최되는 공간이자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과거 유산과 현대의 문화가 함께 향유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도심에서 발굴된 유적은 문화 공간의 공공성을 통해 대중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며 인식의 기회를 확장한다. 또한 장소에 누적된 역사적 맥락은 새로운 문화 공간과 어우러지며 공간의 가치와 의미를 향상시킨다.



[그림 Ⅱ-10] 갤러리문(門)과 전시된 유구
자료: https://www.ddp.or.kr/mai

[그림 Ⅱ-11] 어울림광장 내 전시된 유구
자료: https://www.ddp.or.kr/mai

24) 두산백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https://www.doopedia.co.kr/
25)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홈페이지 https://www.ddp.or.kr/
26) 한양도성박물관 https://museum.seoul.go.kr/

임진각은 1972년에 북한 실향민을 위해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세워진 3층 건물로 ‘임진각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다. 군사분계선에서 7km 남쪽에 위치한 임진각 일대는 6·25전쟁 중에는 참담한 전쟁터였던 장소이며 전쟁 초기에 폭파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임진강 철교, 공산군 포로였던 국군과 유엔군 포로가 건너왔던 자유의 다리가 남아 있다. 또한 실향민들이 고향을 향해 제사를 지내는 추모 제단인 망배단과 전쟁 참전비 및 추모비가 조성되어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그림 Ⅱ-12] 임진각
자료: 답사여행의 길잡이 9 - 경기북부와 북한강

평화누리공원은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던 임진각 일대를 화해와 평화, 통일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약 3만 평 규모의 잔디 언덕을 포함하여 조성되었다. 평화누리공원은 DMZ 세계평화콘서트, 파주 포크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공연·전시·영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 외에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 군사시설로 사용 중인 지하 벙커를 예술체험 공간으로 재구성한 군사시설 지하 벙커 전시관, 임진강을 가로질러 민통선 지역으로 들어가는 임진각 평화 곤돌라, 유원 시설인 평화랜드, 공원 인근에 평화누리 캠핑장이 설치되어 더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

임진각 일대는 조성 당시 ‘관광지’로 지정되었지만, 전쟁과 분단을 상징하는 흔적과 실향민의 아픔이 담긴 장소였다. 이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과 전쟁과 관련된 역사적 유물을 활용한 전시 및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통일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그림 Ⅱ-13] 임진각 평화누리 바람의 언덕
자료: 이데일리

[그림 Ⅱ-14] 임진각 평화누리 공연장 행사
자료: 경기관광포털

이처럼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이 공존하며 어우러졌을 때 공간의 활용성과 가치가 향상된다. 마찬가지로 문화재인 사적과 오픈 스페이스인 도시공원도 한 공간에 존재하면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특히 사적공원에서 각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질 때 각 공간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 보다 더 다양한 혜택과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3. 사적공원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

앞서 살펴본 사적공원의 잠재력을 극대화한다면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적공원은 해당 사적의 역사적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역사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도시공원의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는 것과 동시에 일상에서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 받는다.

또한 본래 기능을 상실한 사적 공간에 역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현세대의 문화 생산, 공유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문화 향유의 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과거에는 특정 시설로 사용되었던 사적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과 공존하며 현재의 생활 방식, 문화가 담기는 장소로 활용되는 것이다.

3. 사적공원 관리 방향에 관한 고찰

3.1. 공원 관리 개념과 이론

관리(management)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공원 관리의 목표는 일상적 이용에서 관리 대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공원 관리는 유지관리, 운영관리, 이용관리로 구분된다. 조경 관리에 있어서 유지 관리뿐 아니라 행정 제도적 측면의 운영관리나 이용관리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전반적인 관리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27] 본 연구에서는 공원의 운영과 이용관리에 차원에서 사적공원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표 Ⅱ-7] 공원 관리의 구분과 내용

구분	정의	대상
유지관리	조경수목과 시설물을 항상 이용이 가능하도록 점검, 보수하여 설치 목적에 따른 기능을 공공에 원활히 제공하는 관리	수목관리, 잔디, 초화류, 잡초, 도시숲, 인공지반, 기반시설, 놀이 등
운영관리	시설관리에 의해 얻어지는 구성요소를 안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한 관리	예산, 재무제도, 조직, 재산 등의 관리
이용관리	이용자의 행태, 선호를 분석하여 적절한 이용프로그램을 개발, 홍보하고 이용 기회를 증대시켜 직접적인 이용 편의를 증대시키는 관리	이용안내, 이용지도, 행사 프로그램, 자원 및 이용조사, 안전관리, 민관파트너쉽

자료: 한국조경학회(2015),『新조경관리학』, 문운당, p.3

1) 공원 운영관리에 관한 이론

운영관리는 관리 대상의 기능을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며 사용 가치를 창출하여 바람직하게 보존, 이용,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운영관리의 목표는 관리 대상의 기능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발휘하는 것이며 설계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파악하여 공간 특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원 운영관리의 영역은 운영관리 계획, 운영관리 체계, 운영관리 방식, 관리업무 수행으로 구분된다.[28]

27) 한국조경학회(2004), 『조경관리학』, 문운당. p.11

운영관리 체계는 운영관리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립한 통일된 체계를 의미하며 일정 원리에 따라 조직된 운영관리시스템이다. 운영관리 체계에서 각각의 조직이 기능과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고 상호 조화하여 효과적인 운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주도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국내 공원 시스템은 전문인력 확보와 관리자료 축적의 미흡함, 기술적, 재정적 자원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29]

관리의 대상, 목적, 시설의 종류, 내용, 이용 형태에 따라 운영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직영 관리와 위탁관리방법이 있다. 또한 위탁 관리 방법은 일괄 위탁과 일부 위탁으로 구분된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원은 보편적으로 관 직영체계로 관리되었으나 최근에는 전문업체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공원 운영관리에 효율과 합리성을 달성하고 있다.[30] 다양해지는 조경 공간에 대해 공간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 공원 이용관리에 관한 이론

이용관리는 공원에서 이용자의 행태와 선호를 조사, 분석하여 그 시대와 사회에 맞는 적절한 이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이용에 대한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용안내(정보제공, 홍보), 이용지도, 행사 및 이용프로그램, 자원 및 이용조사, 안전관리, 주민참여 등이 이용관리 영역에 해당한다.

이용관리는 공원 이용자의 만족도, 사회적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정비나 프로그램 재계획에 활용함으로서 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도시공원 이용자는 연령, 성별, 직업 등 개인적 성향이 다르고 이용목적, 방법,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유연성 있게 대응하는 이용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31]

---

28) 한국조경학회(2015), 『新조경관리학』, 문운당. p.13.
29) 위 자료, pp.21-22.
30) 위 자료, p.32.
31) 한국조경학회(2015), 『新조경관리학』, 문운당. p.50.

공원 이용지도는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과 공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특히 일정한 공간에서 체험과 교육을 위한 이용해설이나 지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사회는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원 이용 패턴이 다양화되어 교육 및 체험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이에 부합하여 공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지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공원에서 단순히 정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체험이라는 새로운 공원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32] 즉 이용지도는 다양해지는 공원 문화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성된 이용 관리 방식이다.

이용지도 방법은 지도원이 상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기지도와 레크레이션 활동에 대한 상담, 교육프로그램 개최가 있다. 지도원은 관련 부서의 행정담당자 이외에 주민단체, 전문가 위탁, 위촉 또는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이용지도에 대한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고 금지행위, 위험 행위의 규제에 국한된 지도가 주를 이루었다. 앞으로 효과적인 공원 이용을 위한 레크레이션 조언, 교육 형태로 적극적인 이용지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33] 사적공원은 문화재로 지정된 사적이 포함된 공간으로 문화재를 활용한 적극적 이용지도를 통해 공원 이용객의 교육과 체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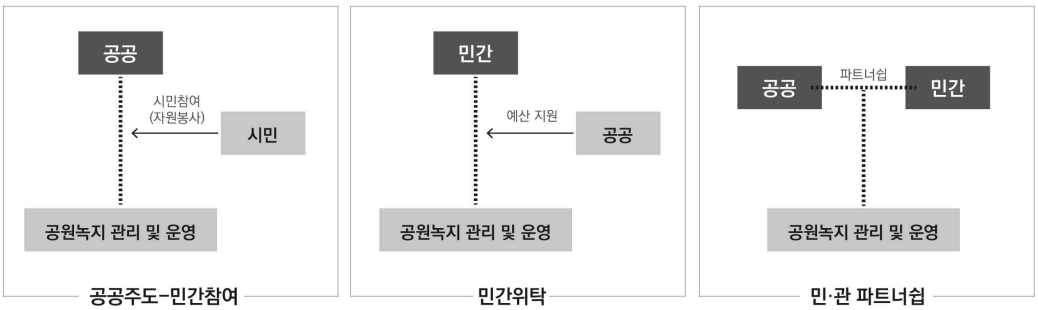
공원에서 행사 및 이용프로그램을 통해 공원의 특징을 활용하여 교육 및 체험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상적 공원 이용과는 다른 비일상적 경험을 제공하여 다양한 공원 이용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34] 이용객들은 공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스포츠 문화, 지역 커뮤니티, 공원문화 등 이용자 측면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공원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관람 및 체험 행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

32) 위 자료, p.55.
33) 위 자료, p.56.
34) 위 자료, pp.61-62.

3.2. 서울시 공원 운영관리 체계

사적공원 관리를 이해하기 위해 서울시 공원 운영관리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서울시 공원·녹지 관리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주도-민간참여 방식은 공공이 직접 공원의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인원과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시민은 자원 봉사 형태로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민간 위탁 방식은 공원의 관리 및 운영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관은 위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관 파트너쉽 방식은 공공과 시민이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업무를 분할하여 공원을 관리, 운영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원 관리가 가능하다.[35] 서울시 도시공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리 유형은 공공주도-민간참여 방식이다.



[그림 Ⅱ-15] 서울시 공원 운영관리 체계 유형

자료: 김원주(2007)『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방안』, 서울연구원

공원 운영관리의 본 조직에 해당하는 서울시 공원 행정 조직은 푸른도시국 내에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조경과, 자연생태과, 산지방재과로 구성된다. 또한 산하기관인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동부, 서부, 중부 사업소를 두어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서울식물원은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되어 기획행정, 시설운영, 식물연구, 전시교육, 푸른수목원운영과로 구성되어 관리·운영이 이루어진다.[36]

35) 김원주(2007)『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방안』, 서울연구원, pp.118-119.
36) 서울시 홈페이지 조직도, https://org.seoul.go.kr/org/orgChartView.do

[그림 Ⅱ-16] 공원 행정 조직도(서울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적공원은 역사공원의 범주에 해당한다. 도시공원 체계 내에서 역사공원은 주제공원의 하나로서 서울시 공원조성과 주제공원팀에서 공원 조성 및 계획 단계에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공원 조성 시 공공조경가 사전 자문, 도시개발 관련 공원 분야 협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조성 이후 역사공원의 운영 및 이용관리는 국가지정문화재 포함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물리적으로 공원 내 문화재를 포함하고 있다면 공원 구역은 관할 구청의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재 구역은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37] 즉 서울시 역사공원은 조성계획 단계에서는 별도의 부서에서 전담하지만,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일반 공원과 동일한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진다.

3.3. 사적공원 관리 관련 제도 고찰

사적공원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문화재보호법』,『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사적공원 관리 방식의 제도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37) 고영권(2016) 『서울시 역사공원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21-1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에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문화재는 도시공원 시설 중 기념비, 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로 규정되어 교양시설로 분류되며[38] 문화재와 도시공원이 물리적으로 중첩되어 결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과 협의하고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39] 하지만 해당 내용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도시공원이 결정되는 행정 절차상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불과하며 제도상 문화재와 도시공원이 공존할 때 효과적인 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 절차는 부재하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도시공원과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공원·녹지의 세분, 설치·관리 등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지침의 역사공원 세부기준에서 도시공원 내 역사 소재를 다루는 방법을 보존, 보전, 복원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치기준을 제시한다.[40] 보존은 현재 상태의 유지에 초점을 맞추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 보전의 경우 급격한 훼손이 아닌 시간이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를 허용하며 변해가는 모습 자체를 역사성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적지나 명승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원을 '유적지 중심 역사공원'으로 명시하며 이 경우 유적지, 명승지의 보존·활용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

3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3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문화재 등에 대한 특례)
① 시·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 보호구역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0)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제4장(도시공원의 유형별 세부기준)

해 도시공원에서 문화재를 대할 때, 문화재를 원형 보존뿐 아니라 동시대에 자연스럽게 공존하며 발생하는 의미 변화를 수용하고 공원의 일부로 포함하고자 하는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표 Ⅱ-8] 역사공원의 설치기준

역사소재를 다루는 방법	내용
보존	문화유산의 현재 상태의 유지·보호에 중점을 두어 조성하되, 유적이나 유물 등 문화유산의 자체가 변하지 않더라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할 수 있음을 고려
보전	문화유산의 급격한 변화와 훼손을 방지하되 자연스러운 변화는 허용하며, 시간과 함께 변해가는 모습 자체를 역사성으로 인정
복원	원형이 훼손된 부분을 다시 만들어 넣는 것으로서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

자료: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제4장(도시공원의 유형별 세부기준)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 보호에 있어서 기본법 위치에 있는『문화재보호법』은 기타 법규와의 관계에서 특별법으로 작용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41]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할 것을 명시한다.[42] 즉 문화재의 가치는 원형 보존을 통한 진정성이 유지될 때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는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관리자에 의해 적합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지자체 또는 적당한 법인,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43] 이로 인해 도시공원 내에 문화재는 별도의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다. 한편 문화재 보존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있다.[44] 현상변경 허가 절차인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재의 현상보

41) 이학춘(2017) “법체계적 관점에서의 문화재 관련 법규의 재검토”,『법학연구』, 20(2), p.133.
42) 『문화재보호법』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43) 『문화재보호법』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44) 『문화재보호법』제35조(허가사항)

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사적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역시 현상변경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이처럼『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규제와 관리,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문화재를 포함한 사적공원에 적용되어 관리에 영향을 준다.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은 문화재보호법 예규로 사적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원칙으로 문화재의 원형 보존을 중점으로 문화재의 진정성과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수・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명시한다.[45] 즉 사적의 진정성과 가치 전달에 필수적인 원형 보존을 바탕으로 활용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비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으로 사적의 유형, 시대, 지역별 특징 및 성격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진정성과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명시한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문화재의 가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활용프로그램 개발을 권장한다. 이를 통해 사적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고 활용 프로그램도 함께 계획함으로써 문화재가 고립되지 않고 조화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표 Ⅱ-9] 사적정비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내용
1. 사적의 유형별 · 시대별 · 지역별 특징 및 성격 등에 맞게 문화재별로 그 가치를 살려서 특성화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역사적 사실과 연구고증을 바탕으로 보수 · 정비를 추진한다.
3. 문화재의 진정성과 활용 가능성 그리고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타당성 · 적절성과 함께 실효성을 확보한다.
4.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현황조사, 사유지 매입, 발굴조사 및 고증, 정비사업 및 활용 등의 추진과정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5.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검토 ·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합리성을 강구한다.
6. 사적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외에도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활용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문화재의 가치 및 효용성을 높인다.(중략)

자료:『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제9조(정비계획의 수립 시 유의사항)

45)『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제3조(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Ⅲ. 유형별 사적공원의 이해와 운영 및 이용관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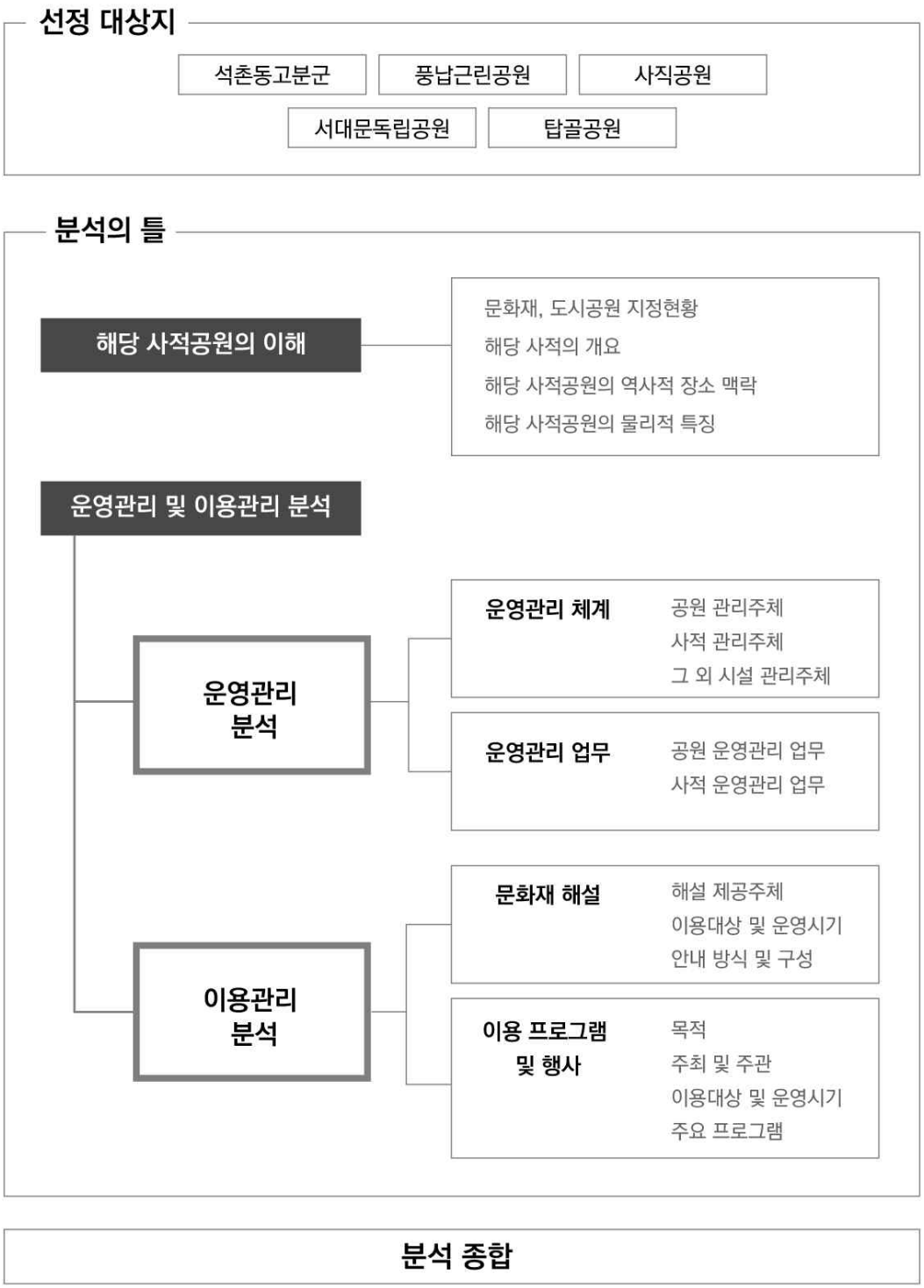
1. 분석의 틀

1.1. 분석 내용

먼저 사례 대상지의 문화재 지정, 도시공원 결정 현황을 조사하여 사적과 공원의 공간적 중첩을 파악한다. 그리고 해당 사적공원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장소의 고유한 맥락과 특징을 파악하고 사적 유형에 따른 물리적 특징을 분석하여 공간 구성을 이해한다.

운영관리 분석에서는 사적공원의 공원, 사적, 그 외 시설 관리주체를 파악하여 전체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관리 주체별로 구체적인 업무를 파악하여 운영관리 업무의 분담 현황을 파악하여 사적공원의 운영관리 현황을 분석한다.

이용관리 분석에서는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문화재 해설, 이용프로그램 및 행사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용관리 분석의 대상은 공원 내 이용자의 자발적 의지로 발생하는 활동은 제외하고 특정 주체에 의해 제공되는 것에 한정한다. 문화재 해설에서는 사적에 대한 문화재 해설의 제공 주체, 이용대상 및 운영시기, 안내 방식 및 구성에 대해 분석한다. 이용프로그램 및 행사에서는 목적, 주최 및 주관, 이용대상, 운영시기,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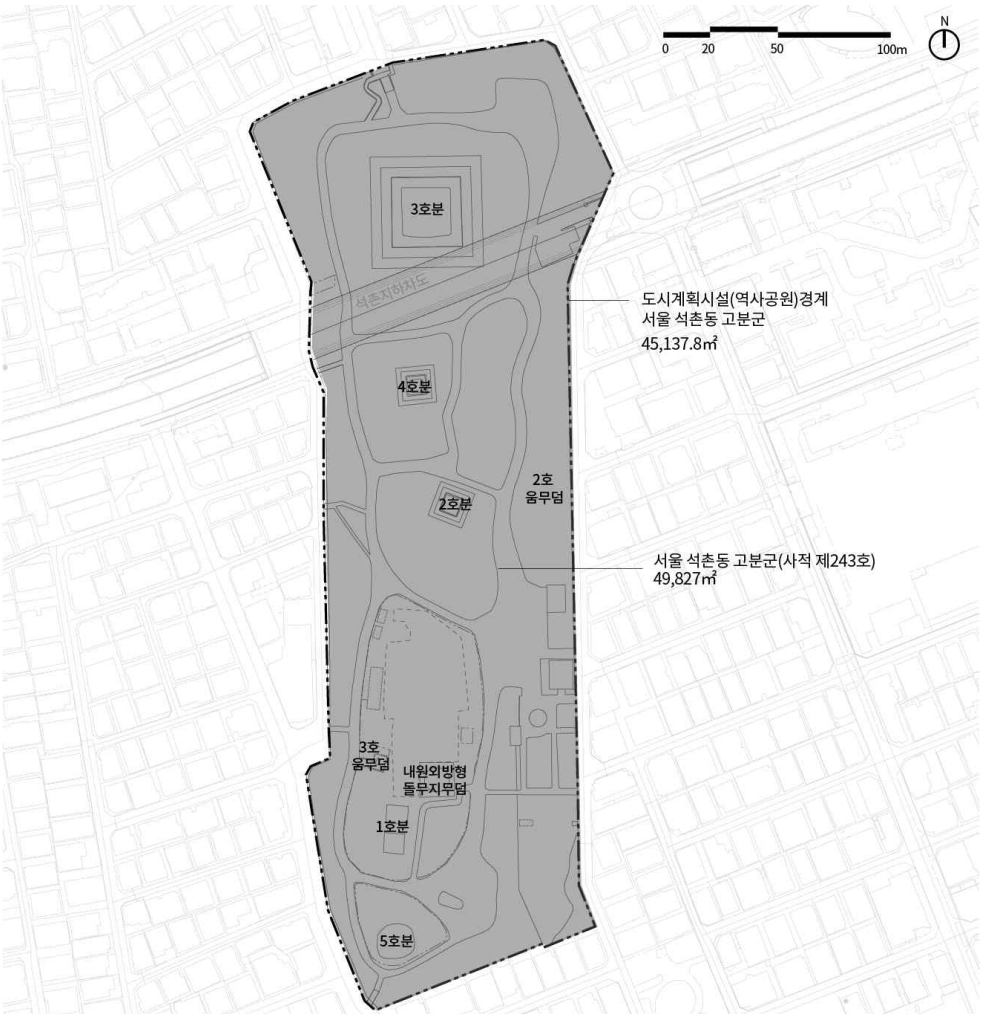


[그림 Ⅲ-17] 유형별 사적공원의 이해와 운영 및 이용관리 분석의 틀

2. 석촌동고분군

2.1. 석촌동고분군의 문화재와 도시공원 지정현황

문화재 개요		도시공원 개요		
문화재명	서울 석촌동고분군(사적 제243호)	공원명	서울 석촌동고분군	
지정일	1975.05.27	도시계획시설 결정(최초)	건설부 고시 제1986-115호 (1986.03.17)	근린 공원
지정면적	49,82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서울시 고시 제2009-321호 (2009.08.27)	역사 공원
		면적	45,137.8㎡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248			



[그림 Ⅲ-18] 석촌동고분군의 문화재와 도시공원 지정현황

2.2. 석촌동고분군 사적(史蹟)의 개요

석촌동고분군은 1975년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사적 전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석촌동고분군은 고대 무덤으로 사적의 유형 중 제사・장례와 관련된 유적에 해당한다.[46]

석촌동 고분군은 3세기 중・후반에서 5세기 말에 이르기까지에 걸쳐 만들어졌다. 특히 백제가 고대 국가로서 기틀을 잡은 3세기 중엽 이후 돌무지무덤 위주의 고분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무덤인 돌무지무덤이 백제 권역이었던 석촌동에서 발굴된 것은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석촌동 고분군의 1,2호 무덤은 주민들이 농사짓는 땅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내부 구조와 유물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석촌동에서 가장 큰 3호분은 한 변이 43~45m에 이르고 높이 4.5m 규모로 사각형 기단형식의 돌무덤이다. 1983년 시굴 조사 당시 4세기 때의 도자기가 출토된 바 있으며 규모와 시기를 보아 백제 근초고왕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 4호분은 3단으로 구성된 백제식 돌무지무덤으로 한 변이 17m에 이르고 전체 높이는 2.1m이며 기존의 분구묘를 다듬어 돌무지무덤으로 만든 특수한 무덤으로 밝혀졌다. 석촌동고분군은 초기 백제의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는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47]

[그림 Ⅲ-19] 석촌동고분군 전경
자료: 경향신문

[그림 Ⅲ-20] 석촌동고분군 2호분
자료: 필자 촬영

46)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서울 석촌동고분군’
4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석촌동고분군’

2.3. 석촌동고분군의 역사적 장소 맥락

1) 백제 초기의 흔적과 함께 역사공원으로 조성된 석촌동고분군

1911년 일제 강점기 때 처음 석촌리 일대 지표조사가 시행되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석촌동 일대에 89기의 백제 무덤이 확인되었으며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대형 돌무지무덤, 널무덤, 독무덤 등이 발견되었다.[48]

1960~70년대 서울의 급격한 도시화로 위해 한강 이남지역을 대상으로 시가지 개발이 이루어졌다. 석촌동 고분군 지역도 『잠실지구 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1974년부터 1976년까지 3차에 걸쳐 발굴을 시행했다.[49]

1983년에 백제고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석촌동 3호분 일대에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1986년부터 1987년까지 석촌동 고분군 공원화 계획에 따라 1,2호분을 비롯한 여러 유구를 발굴했고 1986년에 근린공원 고시와 함께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다.[50] 1987년 인근 민가들이 철거되면서 공원이 조성되었고 2009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 역사공원으로 변경 고시되었다.[51]

석촌동 고분군은 초기 백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유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인근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오픈스페이스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Ⅲ-21] 석촌동고분군 조감도
자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그림 Ⅲ-22] 공원으로 이용되는 석촌동고분군
자료: 필자 촬영

4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석촌동고분군’
49) 서울역사편찬원(2017) 『서울의 발굴현장』, pp.74-75
50) 국립문화재연구소(2001)『한국고고학사전』(2001)
51) 서울도시계획포털, 고시 검색

일제 강점기	1911년	**석촌리 일대 지표조사** 백제시대로 추정되는 대형 돌무지무덤 7기, 널무덤, 독무덤 30여 기 확인
	1916년	**『조선고적도보』간행, '석촌부근백제고분군분포도'** 갑총(흙무덤) 23기, 을총(돌무지무덤) 66기 수록 석촌동 일대에 최소 89기의 고분들이 존재하였음
해방 이후		
1960년대 ~ 1970년대	1974년	**석촌동 3호분, 4호분 발굴**
	1975년	**『잠실지구 종합개발계획』** 서울 석촌동고분군 사적(史蹟) 지정
1980년대 ~ 현재	1983년	**백제고분로 공사, 석촌동 3호분 일대 조사**
	1986년	**석촌동 고분군 근린공원 고시, 조성계획 수립** 『서울도시계획 잠실,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987년	**인근 민가 철거, 공원 조성**
	200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근린공원 → 역사공원** 서울시 고시 제2009-321호 (2009.08.27)

[그림 Ⅲ-23] 석촌동 고분군의 역사적 장소 맥락

2.4. 석촌동고분군의 물리적 특징

석촌동고분군은 복원된 고분이 일정 공간에 모여서 분포하여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된다. 복원 당시 고분 주위로 녹지를 확보하고 산책로를 함께 조성하여 고분군 내를 산책하며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엄격히 출입이 관리되는 조선시대 능, 묘와 비교하면 고대 무덤은 적극적으로 공간 활용이 이루어져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개방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석촌동고분군은 공원 내에 분포한 각 고분을 둘러싼 녹지를 따라 보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각각의 고분은 물리적 접근은 제한된다. 사적으로 지정된 면적의 가장자리를 따라 외곽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높이가 낮아 시각적 접근성이 확보되어 개방감이 높다.

[그림 Ⅲ-24] 석촌동고분군의 물리적 특징 현황도

[그림 Ⅲ-25] 고분을 포함하여 조성된 녹지

[그림 Ⅲ-26] 외부로부터 시각적 접근성이 높은 석촌동고분군

[그림 Ⅲ-27] 공간 개방감이 높은 석촌동고분군

2.5. 석촌동고분군의 운영관리 분석

1) 운영관리 체계

석촌동고분군의 운영관리는 해당 지자체인 송파구 역사문화재과에서 전담하고 있다. 1986년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을 당시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했지만 점차 문화재를 중요하게 인지하게 되면서 관리주체가 문화체육과로 변경되었다. 현재는 2016년에 신설된 송파구 역사문화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공원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석촌동고분군은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의 지원을 받으며 문화재 관련 법, 절차에 따라 보수 및 정비사업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석촌동고분군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공원 중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공원녹지과는 관리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담당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석촌동고분군의 관리 체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Ⅲ-28] 석촌동고분군 운영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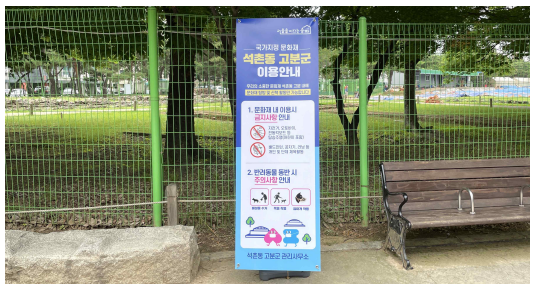
> 석촌동고분군이 공원화 된 것이 70~80년대인데 당시에는 공원과에서 관리했다. 그러다가 문화재가 중요해지면서 문화재 관리하는 부서가 1989년에 별도로 만들어졌고 석촌동 고분은 땅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화재 부서에서 전담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중략) 석촌동고분군은 기본적으로 땅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송파구 내에 역사공원은 모두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정비가 이루어진다.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모든 관리와 정비는 문화재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
> -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담당 공무원 전○○ -

2) 운영관리 업무

석촌동고분군의 관리주체인 송파구 역사문화재과는 문화재정책팀, 문화재보존팀, 풍납토성보상팀으로 구성된다. 문화재보존팀에서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에 관한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에 관한 업무로 보수, 정비, 운영관리가 있으며 활용 업무로 문화재청에서 주최하는 지역문화재활용사업 운영, 문화재 홍보책자 발간, 문화유산교육 및 인식향상 사업 등이 있다.[52]

석촌동고분군 현장 운영관리 인원은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소속 행정직원 2인을 포함하여 현장 공공 근로자 12명이 관리한다. 현장에 설치된 관리사무소에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석촌동고분군 내 수목 및 시설 유지관리, 석촌동 고분 보호, 관리가 있다. 또한 석촌동고분군 내에서는 문화재 탐방 및 산책 활동만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출입, 자전거, 전동 킥보드 탑승주행, 배드민턴, 공차기 등 개인 및 단체의 체육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현장 관리자가 관람 질서유지 및 계도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Ⅲ-29] 석촌동고분군 관리사무소
자료: 필자 촬영



[그림 Ⅲ-30] 석촌동고분군 내 제한행위 안내표지
자료: 필자 촬영

[표 Ⅲ-10] 석촌동고분군 관리주체별 운영관리 업무

관리대상	관리주체	업무내용
석촌동고분군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석촌동고분군 보호, 관리 • 석촌동고분군 내 시설물, 수목의 유지관리 • 석촌동고분군 관련 서무 및 행정 • 석촌동고분군 내 관람객 질서유지 및 계도

52)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www.songpa.go.kr

2.6. 석촌동고분군의 이용관리 분석

1) 문화재 해설

석촌동고분군은 관리주체인 송파구 역사문화재과에서 직접 제공하는 문화재 해설 서비스는 부재하지만, 다른 주체에 의해 송파구에 분포한 한성백제기 유적과 연계된 답사 및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먼저 송파구 국제관광과에서 송파구의 역사, 문화, 자연, 관광 요소를 엮은 도보관광 코스를 제안하고 이와 함께 해설 안내를 제공하는 '송파문화관광해설'을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11월 동안 예약을 통해 정기해설이 제공되며 단체의 경우 수시 해설도 운영한다. 국제관광과에서 제안한 해설 코스에는 송파구 내 다양한 역사공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석촌동고분군은 석촌호수 데이트길의 출발점에 해당한다.[53]

또한 지자체 비영리법인인 송파문화원[54]에서 2009년부터 송파구 내 어린이, 청소년,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송파구 내 역사유적지를 탐방하고 교육하는 '해피송파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송파구 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센터, 도서관과 연계하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한성백제 박물관, 풍납토성, 석촌동고분군을 답사하며 문화해설을 제공한다.[55]

---

53) 송파구 문화관광, https://www.songpa.go.kr/culture/contents.do?key=3885&

54) 송파문화원은 1994년 개원한 지자체 비영리법인으로 송파구 향토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강좌, 행사, 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55) 송파문화원, https://www.spcc.or.kr/spcclist.asp?cc=0303

[표 Ⅲ-11] 송파문화관광해설

주관		송파구 국제관광과
개요		송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자연 등 도보관광코스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 해설프로그램
해설 코스	석촌호수 데이트길	**석촌동고분군**~석촌호수 서호/카페거리~서울삼전도비~롯데월드몰
대상		초등학교 4학년 이상(단 보호자와 동반 참여 시 3학년 이하 참여 가능)
운영 시기		3~11월(7,8월 제외) 목, 토요일(오전 10시) / 수, 금요일(오후 3시),
해설 인원		정기해설 신청은 1명부터 신청 가능, 수시해설은 5인 이상 단체만 가능 참여인원 10명 당 해설사 1명 배정

[표 Ⅲ-12] 해피송파투어

주관	송파문화원
개요	송파구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송파구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이해 및 향토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애향심을 고취시켜주는 프로그램
대상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급, 송파구 내 도서관
운영 시기	5~10월
주요 내용 (2019기준)	〈송파와 병자호란 : 삼전도비와 삼학사〉, 〈조선 후기 상업의 중심지 : 송파나루, 송파장, 송파산대놀이〉, 〈송파와 1988년 서울 올림픽 / 송파구 각 동의 역사와 문화〉, 〈송파의 조선시대 유적지와 박물관 답사〉
해설사	송파문화원 송파문화봉사단 문화해설사

[그림 Ⅲ-31] 해피송파투어 문화 해설
자료: 송파문화원

[그림 Ⅲ-32] 해피송파투어 어린이집 교육
자료: 송파신문

2) 이용프로그램 및 행사

석촌동고분군은 2013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의 대상지로 활용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자체, 민간단체가 협업하여 각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체험, 교육, 공연, 답사 등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석촌동고분군, 풍납동 토성, 몽촌토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송파구 역사문화재과와 사단법인 문화살림[56]에서 주관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가족단위, 유치원 및 학교 학급단위, 일반 지역민으로 참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장소별로 정해진 기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석촌동고분군에서 운영되는 이용프로그램은 가족과 유치원 및 학교 학급 단위를 대상으로 한다. 주로 공원 내에 다양한 공방과 한성백제 시대의 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운영되며 구체적으로 백제무예 칠지도 검무체험, 활쏘기 체험, 백제의상체험, 백제 금동관 만들기 등이 있다. 또한 야간에 진행되는 '백제의 꿈, 별을 쏘다' 프로그램은 빛과 소리를 이용한 놀이와 공연으로 구성된다. '백제 돌말극장'은 야외무대에서 지역 예술인 단체와 전문 공연자가 함께 한성백제를 소재로 백제시대 악기, 노래, 무용을 재현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백제 돌말극장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57]

[그림 Ⅲ-33] '백제의 꿈, 별을 쏘다' 프로그램
자료: (사)문화살림

[그림 Ⅲ-34]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자료: (사)문화살림

56) (사)문화살림은 문화재청에서 설립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문화유산 보존과 연구, 조사 및 발전 계승 활동, 문화유산 교육 등 문화재 활용을 통한 시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7) 문화재청(2020)『2020년 지역문화재활용사업 문화유산 유유자적』, p.14

[표 Ⅲ-13] 송파구 생생문화재 사업(2019 기준)_백제 부활의 꿈

개요	한성백제기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 지역 주민생활권 보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문화유산을 융복합하여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주최/주관	문화재청,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사)문화살림		
대상 문화재	풍납동 토성, 석촌동고분군, 몽촌토성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백제의 꿈, 별을 쏘다	5일간의 백제왕도 여행	백제돌말극장
일정	7월 14~18일	9월 23~27일/ 10월 12~16일	10월 17~18일
장소	석촌동 고분군	석촌동 고분군/ 풍납백제문화공원	석촌동 고분군
참가대상	가족단위(50명)	가족단위, 유치원 및 학교 학급단위	지역민, 일반인
내용	• 야간에 진행되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으로 백제 사람들의 영원의 안식처에서 빛, 소리를 이용하여 백제의 꿈을 표현하는 과거와 현재의 공존과 소통을 모티브로 관람객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축제	• 한성백제시기(초기백제 500년간)에 펼쳐진 백제문화를 중심으로 백제왕도 풍납동토성 및 석촌동고분 안에서 다양한 공방과 생활공간들을 연출해 체험해보도록 하는 체험학습장 운영	• 지역민과 함께하는 백제돌말극장-공연으로 보는 한성백제 등 다양한 소재로 공연문화를 만들어가고 이를 통한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제시

자료: 문화재청(2020)『2020년 지역문화재활용사업 문화유산 유유자적』

[그림 Ⅲ-35] 생생문화재 백제돌말극장(2018)
자료: (사)문화재단

석촌동고분군의 행사로는 한성백제문화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동명제'가 있다. 동명제는 1994년에 시작되어 매년 송파구에서 개최하는 역사문화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의 서막을 알리는 공식 행사로 개최된다. 송파구는 백제시대 역사 중 가장 오랜 시간 송파에 도읍을 두었던 한성 도읍기에 최대 전성기를 누렸다는 점에 착안하여 백제의 문화와 역사를 콘텐츠로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송파구, 송파문화재단에서 주최하고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석촌동고분군, 올림픽공원 일대, 한성백제박물관, 경당역사공원을 주요 무대로 행사가 개최된다. 그 중 석촌동고분군에서 펼쳐지는 동명제는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이 백제왕실의 종족시조인 동명왕께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드린 제례의식에서 유래되었다. 한성백제의 역사적 행사를 석촌동고분군에서 재현함으로써 송파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기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명제는 동명제례와 온조왕 백제 건국 이야기를 재현극 형태로 구성한 공연으로 이루어진다. 공연에는 송파구 소속 예술 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공원을 구성한다.[58]

[표 Ⅲ-14] 석촌동고분군 행사_동명제

행사	동명제(백제고분제)
주최/주관	송파구, 송파문화재단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일시	매년 9-10월 경, 3-4일(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 하루)
개요	백제 왕실의 시조인 동명왕께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의식

[그림 Ⅲ-36] 동명 제례식(2017)
자료: 한성백제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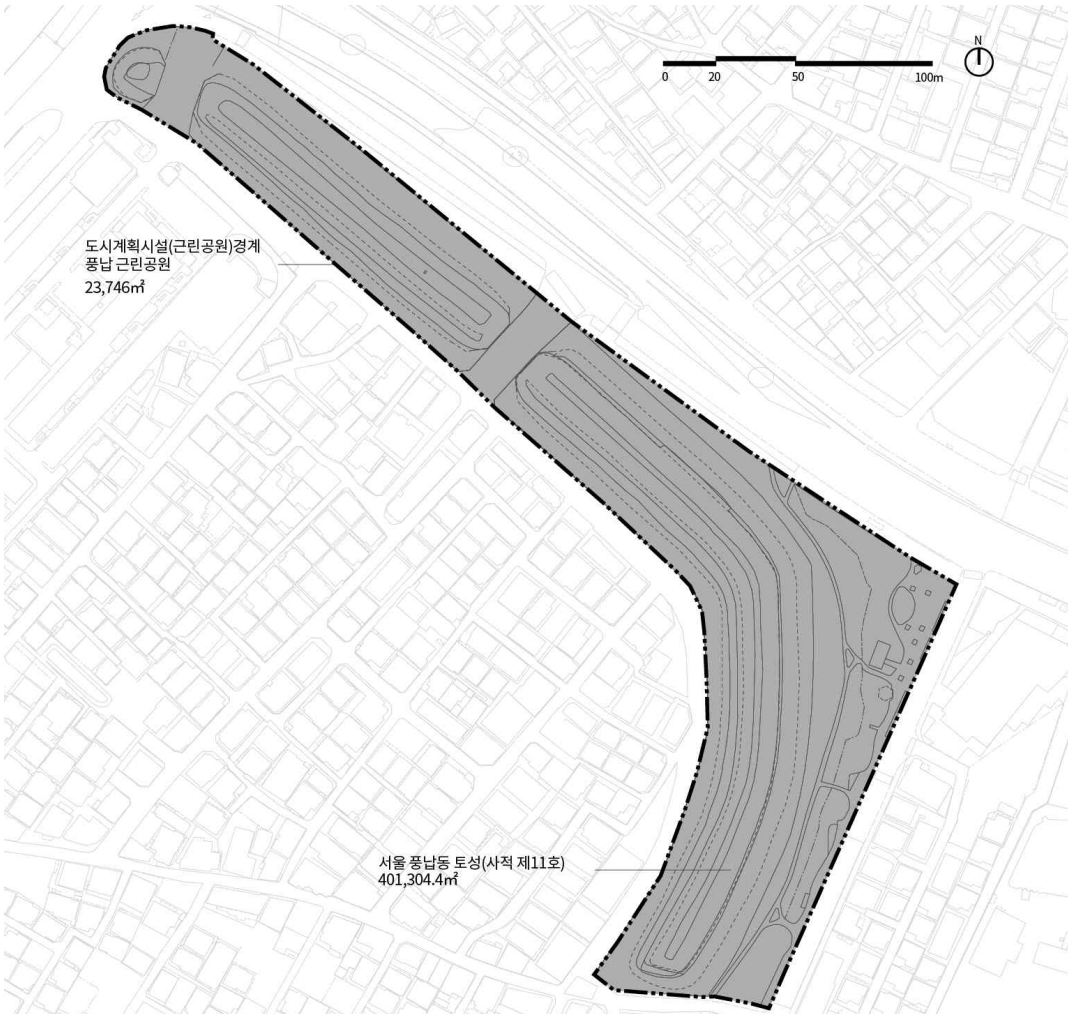
[그림 Ⅲ-37] 동명제 백제 건국 뮤지컬공연(2018)
자료: 송파타임즈

58) 한성백제문화제, https://www.songpa.go.kr/hanseong/

3. 풍납근린공원

3.1. 풍납근린공원의 문화재와 도시공원 지정현황

문화재 개요		도시공원 개요		
문화재명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제11호)	공원명	풍납근린공원	
지정일	1963.01.21	도시계획시설 결정(최초)	건설부 고시 제138호(1977.07.14)	근린 공원
지정면적	401,304.4㎡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서울시 고시 제2001-281호(2001.08.25.)	
		면적	23,746㎡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75-1			



[그림 Ⅲ-38] 풍납근린공원의 문화재와 도시공원 지정현황

3.2. 풍납근린공원 사적(史蹟)의 개요

풍납근린공원은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된 풍납동 토성 북벽 구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풍납 토성은 사적의 유형 중 정치 국방에 관한 성지(成地) 유적에 해당한다.

풍납동 토성은 서쪽으로 한강을 끼고 충적평야 위에 구축된 토성으로 남북 장타원형을 띠고 있다. 현재 한강변에 접한 서벽을 제외하고 북벽, 동벽, 남벽이 남아있으며 총 2.1km에 달한다. 유실된 서벽까지 포함한다면 총 3.5km에 가까운 거대한 토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 시행 실측조사에 따르면 성벽의 너비는 일반적으로 30~40m이고 넓은 구간은 70m에 이르며 북벽의 높이는 11.1m, 남쪽과 북쪽은 6.2~6.5m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다.[59]

풍납동 토성은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 건국 초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토관, 유구, 대형 주거지, 건물지 등 유구들과 수만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2000년 경당지구 발굴 조사를 통해 한성백제시대 첫 도읍인 하남위례성일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지속적인 발굴 조사결과 이 가정은 학계의 정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처럼 풍납동 토성은 백제 초기의 왕성 유적으로 당시의 역사, 문화를 추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가치를 지닌다.[60]

[그림 Ⅲ-39] 서울 풍납동 토성 전경
자료: 송파구 문화관광

[그림 Ⅲ-40] 풍납동 토성
자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5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서울 풍납동 토성’
60)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서울 풍납동 토성’

3.3. 풍납근린공원의 역사적 장소 맥락

1) 발굴 조사를 통해 드러난 풍납동 토성의 역사적 가치

풍납동 토성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서벽이 허물어져 청동 초두 등 중요 유물이 발견되면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주목을 받았고 1936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해 고적 제27호로 지정되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1963년 풍납동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풍납동 토성을 사적 제11호로 지정하였다.[61] 당시 잔존 성벽만 사적으로 지정되어 토성 내부는 충분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다세대, 연립,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로 개발되었다.

[그림 Ⅲ-41] 주거지로 개발된 풍납동 일대 (2009)
자료: 문화재청

1964년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과에서 처음으로 풍납토성 내부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백제시대 주거면, 토기를 비롯해 기원전후~5세기대의 유물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풍납동 토성이 하남 위례성과 동시대에 축조된 읍성의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 이후 88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인근의 몽촌토성이 발굴되면서 풍납동 일대가 초기 백제의 왕성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백제

61) 송파구 역사문화재과(2018)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 p.43.

시대 토기 등 유물이 발견되면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긴급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62] 본격적으로 시행된 풍납동 토성 발굴조사에서 다량의 토기와 큰 규모의 집자리, 토기 가마, 수혈 유구 등 당시 생활상을 밝혀주는 중요한 유구, 유물들이 대거 출토되었다. 이를 계기로 풍납동 토성 내부에 대해 발굴조사가 의무화되어 아파트 재건축에 의한 시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63] 풍납동 토성 내부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구,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2000년에 풍납동 토성 내부 문화재 보존이 결정되었고 2002년 문화재청에서『풍납토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64] 이에 따라 풍납동 일대는 발굴조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거지를 매입하고 복원하는 과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풍납근린공원은 1977년 건설부 고시를 통해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2001년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된 이후 2002년 준공되어 현재 모습에 이른다.[65]

[그림 Ⅲ-42] 풍납토성 사적 지정(녹색) 현황도
자료: 서울 풍납동토성 종합정비계획안 (2018)

62) 이난경, 양승우(2016) “역사문화환경으로서 서울 풍납동 토성 일대의 도시형태 특성 연구“, 『서울학연구』 (62), p.110.
63)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서울 풍납동 토성’
64) 송파구 역사문화재과(2018)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 p.47.
65) 서울도시계획포털, 고시 검색

일제 강점기

- **1925년** — **을축년 대홍수 때 중요 유물 발견**
  풍납동 토성 서벽이 무너져 청동 초두 등 중요 유물 발견
- **1936년** — **풍납동 토성 고적(古跡)으로 지정**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고적 제27호로 지정

해방 이후

1960년대 ~ 1970년대

- **1963년** — **풍납동 토성 사적(史蹟) 지정**
  잔존 성벽만 사적으로 지정
  토성 내부는 주거지로 개발이 이루어짐
- **1964년** — **풍납토성 내부 시굴조사**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과에서 조사 시행
  기원 전후~5세기 유물 확인(하남 위례성과 동시대에 축조된 읍성으로 규정)
- **1977년** — **풍납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

1980년대 ~ 현재

- **1984년** — **올림픽공원 착공과 함께 몽촌토성 발굴**
  풍납동 일대가 초기 백제 왕성으로 주목
- **1997년** — **풍납동 토성 내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서 유물 발굴**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긴급 발굴조사 시행
  토기, 집자리, 수혈 유구 등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구, 유물 대량 출토
- **1999~2000년** — **풍납토성 내 문화재 보존 결정**
  풍납토성 내 발굴조사 의무화, 아파트재건축에 의한 시굴, 발굴 조사 시행
- **2002년** —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문화재청)**
  『풍납토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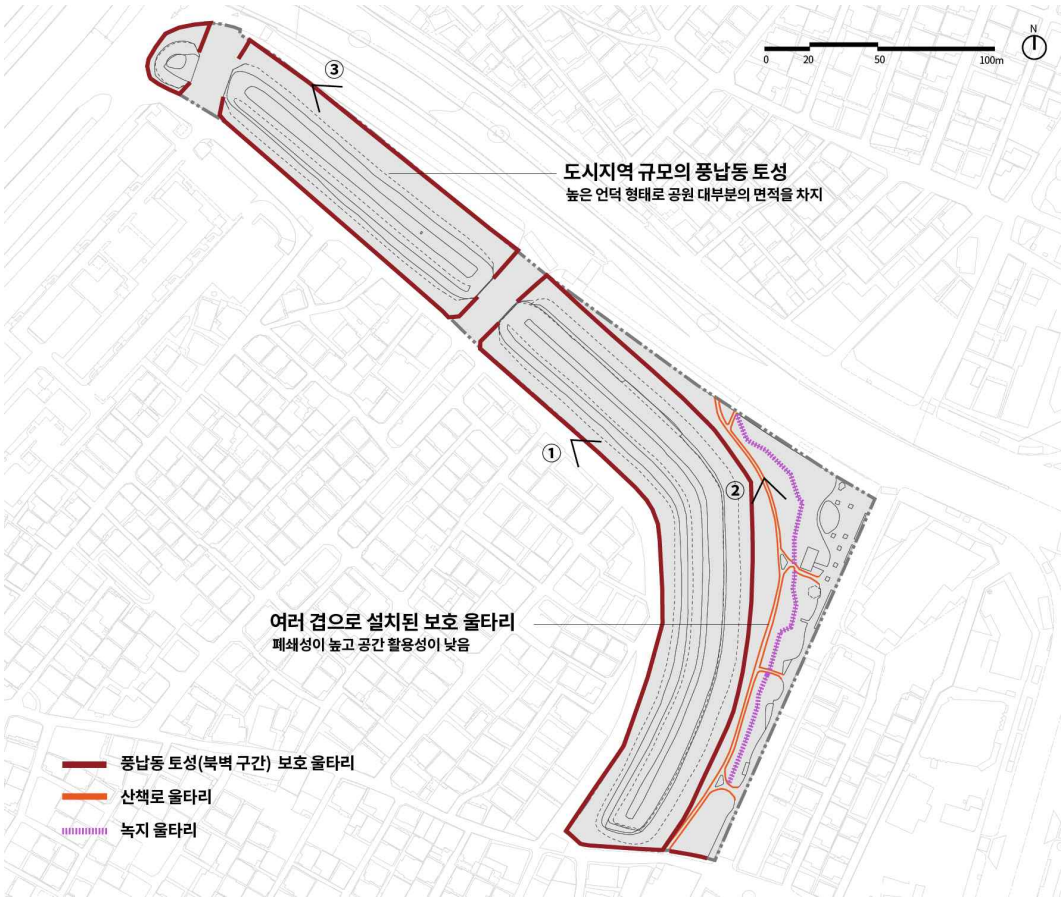
  풍납근린공원, 준공

[그림 Ⅲ-43] 풍납근린공원의 역사적 장소 맥락

3.3. 풍납근린공원의 물리적 특징

풍납동 토성은 고대 국가의 정치·국방 기능을 하는 성지(城地)로 풍납동 일대에 걸쳐 도시지역 규모로 분포한다. 풍납동 토성 북벽 구간은 풍납근린공원 면적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높은 언덕 형태인 토성의 물리적 특성상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되는 특징이 있다.

풍납근린공원 내 위치한 풍납동 토성 북벽 가장자리를 따라 보호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공원 내 산책로를 따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풍납동 토성으로 물리적 접근은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풍납근린공원은 공원 이용객을 위한 시설이 밀집한 남서측 공간과 풍납동 토성 공간은 분리된다. 이처럼 풍납근린공원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시설로 사적과 단절된 공간이 형성되어 공간 활용성이 낮은 특징이 있다.



[그림 Ⅲ-44] 풍납근린공원의 물리적 특징 현황도

[그림 Ⅲ-45] 도시지역 규모로 높은 언덕 형태인 풍납동 토성

[그림 Ⅲ-46] 보호 울타리로 둘러진 풍납동 토성 북벽

[그림 Ⅲ-47] 단절되어 공간 활용도가 낮은 풍납근린공원

3.5. 풍납근린공원의 운영관리 분석

1) 운영관리 체계

풍납근린공원의 운영관리는 송파구 공원녹지과와 역사문화재과에서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원 내 풍납동 토성 북벽 구간을 따라 설치된 보호 울타리를 경계로 문화재 영역은 역사문화재과에서 그 외 공원 영역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송파구 내에 문화재청 주도로 조성되어 역사문화재과에서 전담하여 운영관리하는 풍납백제문화공원, 경당역사공원과 다르게 풍납근린공원은 공원녹지과와 역사문화재과가 함께 관리주체 역할을 맡고 있다. 풍납근린공원 담당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운영관리 체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Ⅲ-48] 풍납근린공원 운영관리 체계

풍납근린공원은 문화재로 지정된 풍납동 토성 내에 공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구역만 관리하고 있고 공원 화장실 뒤쪽으로 마사토로 된 산책길이 있는데 토성 쪽에 설치된 휀스를 경계로 풍납동 토성 영역은 역사문화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는 공원 내 시설물, 수목을 관리하고 있고 문화재 보호에 관련된 업무는 모두 역사문화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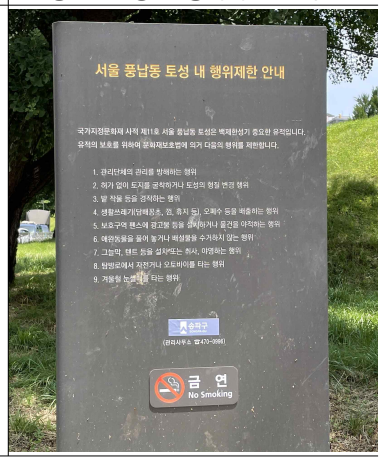
- 송파구 공원녹지과 담당 공무원 김○○ -

2) 운영관리 업무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보존팀에서 풍납동 토성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풍납근린공원 내에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해 상주하는 인원은 배치되어 있지 않다. 현장에는 사적의 보호를 위한 행위 제한 내용을 담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적을 훼손시킬 수 있는 행위와 함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 애완동물을 풀어놓는 행위 등을 제한한다.

공원녹지과 소속 관리자가 인근 근린공원과 함께 풍납근린공원의 수목,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시기에 공공근로 및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관리한다. 풍납근린공원에 대해 공원녹지과의 운영관리 업무는 공원 내 위치한 사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반 공원과 동일하다.

[표 Ⅲ-15] 서울 풍납동 토성 내 행위제한 안내

내용	풍납근린공원 행위제한 안내판
1. 관리단체의 관리를 방해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토지를 굴착하거나 토성의 형질 변경 행위 3. 밭 작물 등을 경작하는 행위 4. 생활쓰레기(담배꽁초. 껌, 휴지 등),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행위 5. 보호구역 펜스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6. 애완동물을 풀어 놓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7. 그늘막, 텐트 등을 설치 또는 취사, 야영하는 행위 8. 탐방로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 9. 겨울철 눈썰매를 타는 행위	

[표 Ⅲ-16] 풍납근린공원 관리주체별 운영관리 업무

관리대상	관리주체	업무내용
풍납동 토성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풍납동 토성 보호, 관리 • 풍납동 토성 관련 서무 및 행정업무
풍납근린공원	송파구 공원녹지과	• 공원 내 수목, 시설물 유지관리 • 풍납근린공원 관련 행정 업무

3.6. 풍납근린공원의 이용관리 분석

1) 문화재 해설

풍납근린공원은 관리주체인 송파구 역사문화재과에서 직접 제공하는 문화재 해설 서비스는 부재하지만, 석촌동고분군과 마찬가지로 다른 주체에 의해 송파구 내 유적과 연계되어 해설 안내가 제공되고 있다.

석촌동고분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파구 국제관광과에서 문화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풍납근린공원은 해설 코스 중 한성백제왕도길 1코스의 출발점에 해당하며 주변의 풍납시장, 경당역사공원, 풍납백제문화공원 등 풍납동 토성 일대의 유적 공간들을 연계하여 해설을 제공한다. 풍납근린공원은 풍납동 일대에 걸쳐 분포하는 풍납동 토성의 특성에 따라 해설 프로그램의 일부에 해당한다.[66]

[그림 Ⅲ-49] 한성백제 왕도길(1코스) 해설 모습
자료: 서울시

[그림 Ⅲ-50] 풍납근린공원 해설
자료 : blog.naver.com/crystal_kim

[표 Ⅲ-17] 송파문화관광해설

주관		송파구 국제관광과
개요		송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자연 등 도보관광코스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 해설프로그램
해설 코스	한성백제 왕도길	(1코스) 풍납근린공원~풍납시장~경당역사공원~풍납백제문화공원~풍납동 토성~백제우물
		(2코스) 평화의문~한성백제의 빛~곰말다리~망월봉~몽촌역사관~백제집자리전시관
		(3코스) 한성백제박물관~방이동고분군
대상		초등학교 4학년 이상(단 보호자와 동반 참여 시 3학년 이하 참여 가능)
운영 시기		3~11월(7,8월 제외) 목, 토요일(오전 10시) / 수, 금요일(오후 3시),
해설 인원		정기해설 신청은 1명부터 신청 가능, 수시해설은 5인 이상 단체만 가능 참여인원 10명 당 해설사 1명 배정

66) 송파구 문화관광, https://www.songpa.go.kr/culture/contents.do?key=3885&

2) 이용프로그램 및 행사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은 풍납동 토성, 석촌동고분군, 몽촌토성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풍납동 일대 걸쳐 분포하는 풍납동 토성에서는 풍납백제문화공원에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풍납근린공원은 풍납동 토성이 포함되어 역사적 장소로서 특징이 명확하지만, 공원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적이 공원과 분리된 채 단절되면서 별도의 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풍납근린공원의 행사로는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된 '바람드리골 한마음 축제'가 있다. 바람드리골 한마음 축제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문화를 위한 행사이다. 한성백제의 역사를 상징하는 풍납동 토성이 있는 풍납근린공원에서 풍납1동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행사는 송파구에서 주최하고 바람드리골 한마음축제 추진위원회와 풍납전통시장 상인회가 주관하여 진행된다. 축제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공연으로 구성된다. 또한 부대행사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먹거리장터와 나눔장터, 체험부스, 서예작품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표 Ⅲ-18] 풍납근린공원 행사

행사	바람드리골 한마음축제
주최/주관	송파구 / 바람드리골 한마음축제 추진위원회, 풍납전통시장 상인회
일시	매년 9월 또는 10월 중
개요	한성백제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풍납동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주민 참여 기반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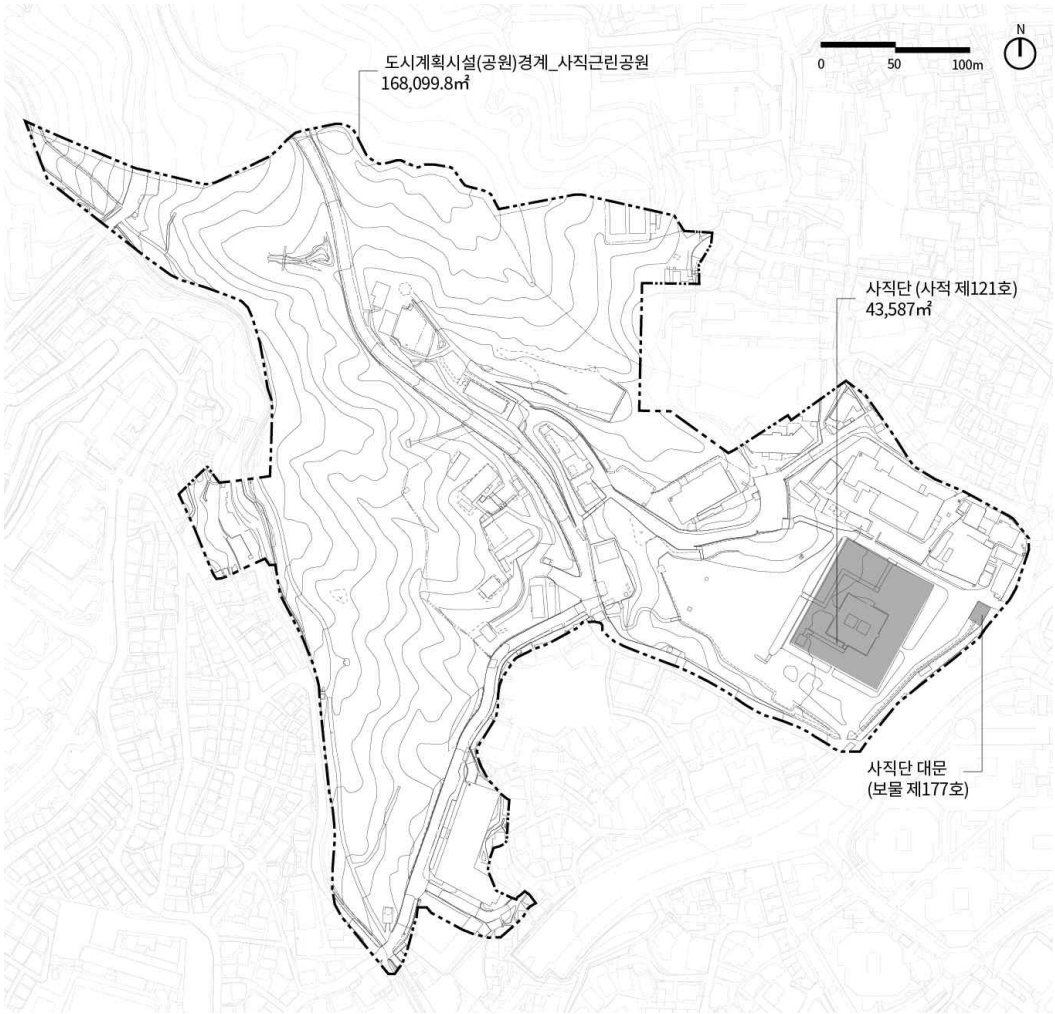
[그림 Ⅲ-51] 바람드리골 지역주민 참여 공연
자료: https://blog.daum.net/kdt2260

[그림 Ⅲ-52] 바람드리골 먹거리 장터
자료: 송파TV

4. 사직공원

4.1. 사직공원의 문화재와 도시공원 지정현황

문화재 개요		도시공원 개요		
문화재명	사직단 (사적 제121호)	공원명	사직공원	
지정일	1963.01.21	도시계획시설 결정(최초)	총독부 고시 제208호(1940.03.12.)	근린 공원
지정면적	43,587㎡			
문화재명	사직단 대문 (보물 제177호)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서울시 고시 제1979-310호(1979.07.07)	
지정일	1963.01.21			
지정면적	-	면적	168,099.8㎡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28			



[그림 Ⅲ-53] 사직공원의 문화재와 도시공원 지정현황

4.2. 사직공원 사적(史蹟)의 개요

사직공원은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된 사직단과 보물로 지정된 사직단 대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직단은 사적의 유형 중 제사 터로서 종교, 신앙과 관련된 유적에 해당한다.

사직단은 종묘와 함께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를 올리던 제단으로 태조가 조선을 세우고 궁궐을 지을 때 법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사직단 왼쪽에 종묘를 지었다. 나라에 큰일이 있거나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 풍년을 비는 기곡제를 사직단에서 지냈다. 종묘가 왕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면 사직단은 국가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장소였다. 대한제국 시기까지 사직단은 엄격히 관리되며 국가의 안위를 기원하는 사직대제를 올렸다.[67]

사직단은 제사를 위한 사단(社壇)과 직단(稷壇),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인 유(壝)와 동서남북으로 설치된 유문, 유 외각 사면을 둘러싼 담장인 내장, 유문과 축선을 맞춰 설치된 4개의 홍살문으로 구성되며 내장의 동쪽과 서쪽에 제사를 위한 부속건물들로 이루어졌다. 현재 제사를 위한 여러 부속건물들은 훼손되어 사라진 상태이며 사직단 권역 경계부에 사직동주민센터, 사직파출소,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서울시립종로도서관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외부공간과 경계를 이루는 외곽담장과 사직단 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68]

[그림 Ⅲ-54] 사직단 전경
자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그림 Ⅲ-55] 사직단 내부
자료: 필자 촬영

67)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사직단’
6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직단’

4.3. 사직공원의 역사적 장소 맥락

1) 일제에 의해 제례시설 기능을 상실하고 공원으로 조성된 사직단

1911년 조선총독부는 '사직단 폐지에 관한 훈령' 을 공포하여 공식적으로 사직대제를 폐지하였다. 사직대제가 폐지되자 사직단은 본래 기능을 상실하면서 유휴지로 방치되었다. 일제는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근대문명화 전략' 을 추진하였으며 그중 하나가 근대공원 조성이었다. 경성부는 도시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되어 발생하는 보건과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락공간으로 기능할 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69] 하지만 일제가 공원으로 계획 혹은 개원한 공원은 상당수가 대한제국 소유의 토지이면서 조선의 성역(聖域)에 해당하는 공간들이었다. 사직단도 이에 해당하여 1922년 아동공원과 운동공원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공원으로 개장되었다.[70]

사직단 권역은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운동장이 들어서고 휴양시설, 조경시설, 편익시설이 설치되었다.[71] 사직단공원에서는 시내 각 학교의 운동회, 체육대회, 영화 상영이 이루어졌고 1941년에는 방공호로 조성한 방공저수지를 아동 수영장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사직단은 공원으로서 각종 행사가 개최되면서 주민들의 위락과 휴식공간으로 장소의 기능이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72]

사직단은 일제에 의해 본래 기능이 상실되고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공원 내 관람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국가를 상징하는 제례 의식이 거행되는 신성한 장소로 위계를 갖추던 공간의 성격은 사라지고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변화가 이루어졌다.

---

69) 조세호,김영민(2019) "경성부 도시계획서 상의 공원녹지 개념과 현황의 변화 양상",『한국조경학회지』, 47(2), p.126.
70) 김서린, 김해경, 박미현(2014) "근대 사직공원의 형성과 변천",『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4), p.125.
71) 김수자(2020), "사직공원 조성과 사직단을 둘러싼 '개발'과 '문화재보호' 담론의 대립_일제시기부터 1960년대를 중심으로",『한국문화연구』, 38, p.146.
72) 위 논문, p.147.

2) 정체성 확립의 부재로 혼재된 공간으로 변화된 사직단 권역

해방 이후 일제강점기 때 변화된 사직단의 공간 기능이 지속되었다. 공원 내 운동장을 활용하여 웅변대회와 집회가 개최되고 시민위안연주회가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일제 시기에 전쟁에 대비해 설치된 방공훈련소를 활용하여 전재민, 고아, 부랑자들을 임시로 수용하였다. 사직단의 정체성이 일제에 의해 변형되고 왜곡이 이루어진 공간이라는 인식은 부재한 채 각종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다.[73]

1960~70년대에는 사직단 경계부에 각종 건축물이 난립하게 된다. 공원 내에 시립아동병원 건립이 추진되었고 향후 이 건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으로 개관하게 된다. 단군성전은 1960년 최초로 조성된 후 그 영역이 확장되었고 북쪽으로 노인정(1960년)이 조성된다. 또한 종로도서관(1968년), 파출소(1969년), 서울특별시 학생수련원(1975년) 등이 들어서게 되었다.[74] 또한 일제강점기 때 아동 수영장으로 사용되었던 장소는 1947년 어린이 풀장으로 활용되고 1968년 4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직 파라다이스 수영장이 개장되었다.

[그림 Ⅲ-56] 사직공원 내 수영장 입구
자료: 서울사진아카이브

[그림 Ⅲ-57] 사직공원 내 수영장 내부
자료: 서울사진아카이브

한편 1967년 추진된 사직터널공사로 연결된 도로 개설을 위해 사직단 정문을 이축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당시에 문화재위원회의 반대가 있었지만, 공사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1973년 사직단 대문 전면에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이축 공사가 진행되었다.

---

73) 김수자(2020), 위 논문, p.150.
74) 김서린, 김해경, 박미현(2014), 위 논문, p.127.

이처럼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일반 건축물 난립과 도시계획에 밀려 사직단 권역은 축소되었으며 사직공원과 사직단을 어떤 정체성을 가진 공간으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75]

3) 사직단 공간 정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주민과의 갈등

1985년 『서울 사직단 고증 조사 및 복원기본계획』이 작성되어 사직단의 중요성과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재인식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어 공원 내외부를 정비하고 일부 건물을 복원하여 훼손된 사직단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직단과 관련이 없는 시설물 이설, 풀장,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주민센터 등을 철거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이후 문화재청에서는 2014년 『사직단 복원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사직단 본래의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역사적 공간의 진정성을 살리고 역사문화경관을 회복하기 위한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정비사업 수립 과정에서 진행된 주민 공청회에서 사직단 복원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들을 철거하고 문화재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사직단은 일제에 의해 공간의 당위성이 상실되고 정체성이 왜곡된 채 오랫동안 도시공원으로 활용되었다. 사직단 복원 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과의 갈등은 사직단의 다양한 역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가치'와 '현재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76]

---

75) 김수자(2020), "사직공원 조성과 사직단을 둘러싼 '개발'과 '문화재보호' 담론의 대립_일제시기부터 1960년대를 중심으로",『한국문화연구』, 38, p.155.
76) 위 논문, p.165.

조선

국가 제례공간, 사직단

조선 개국 초기 태조가 경복궁을 중심으로 좌묘우사 원칙에 따라 사직단 조성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를 올려 국가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장소
국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장소
사직단은 엄격히 관리되며 국가의 안위를 기원하는 사직대제 시행

대한 제국

일제 강점기

- **1911년** — **조선총독부에 의해 사직대제 폐지**
  제례공간으로서 당위성 상실, 사직단은 유휴지로 방치, 제례 기능 건물 철거
- **1921년** — **사직단 공원 조성 사업 추진**
- **1922년** — **아동공원, 운동공원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공원으로 개장**
  사직단 권역 공원으로 조성
  편의시설, 운동장, 산책로, 테니스코트 및 정자, 전등, 공중화장실 등 설치
  → '사직단공원' 각종 행사 개최, 서울 주민들이 찾아와 즐기는 위락공간
- **1923년** — **사직단 공원 내 운동장에서 운동회 개최**
  전매국경성지국, 출장소 직공의 위안 운동회
- **1926년-1929년** — **음악회 개최, 영화 상영**
  경성부는 사직공원을 비롯한 서울의 공원 등에서 음악회 개최
- **1941년** — **아동 수영장 조성**
  1941~1943년에 만들어진 방공호가 방공저수조 기능 함께 아동수영장으로 사용

해방 이후

- **1940년대** — **일제 강점기 때 공간 활용 방식 그대로 유지**
  운동장을 이용한 웅변대회 및 집회 개최
  전재민, 고아, 부랑아 임시 수용공간
  시민위안연주회 개최
  어린이 풀장 개장(1947)

1960년대 ~ 1970년대

- **1960-70년대** — **사직단 경계부 시설 도입**
  어린이도서관 (1977), 노인정(1960), 파출소(1969)
  사직 파라다이스 수영장(1968), 서울특별시 학생수련원(1975)

  사직터널공사로 사직단 대문 이축
  사직터널공사로 연결된 도로 개설로 사직단 정문 이축(1967)
  사직단 정문 전면에 보행로 조성을 위해 이축(1973)

1980년대 ~ 현재

- **1985년** — **사직단 복원을 위한 논의**
  『서울사직단 고증조사 및 복원보고서』(1985)
  사직단의 중요성, 문화 유산적 가치 재인식, 정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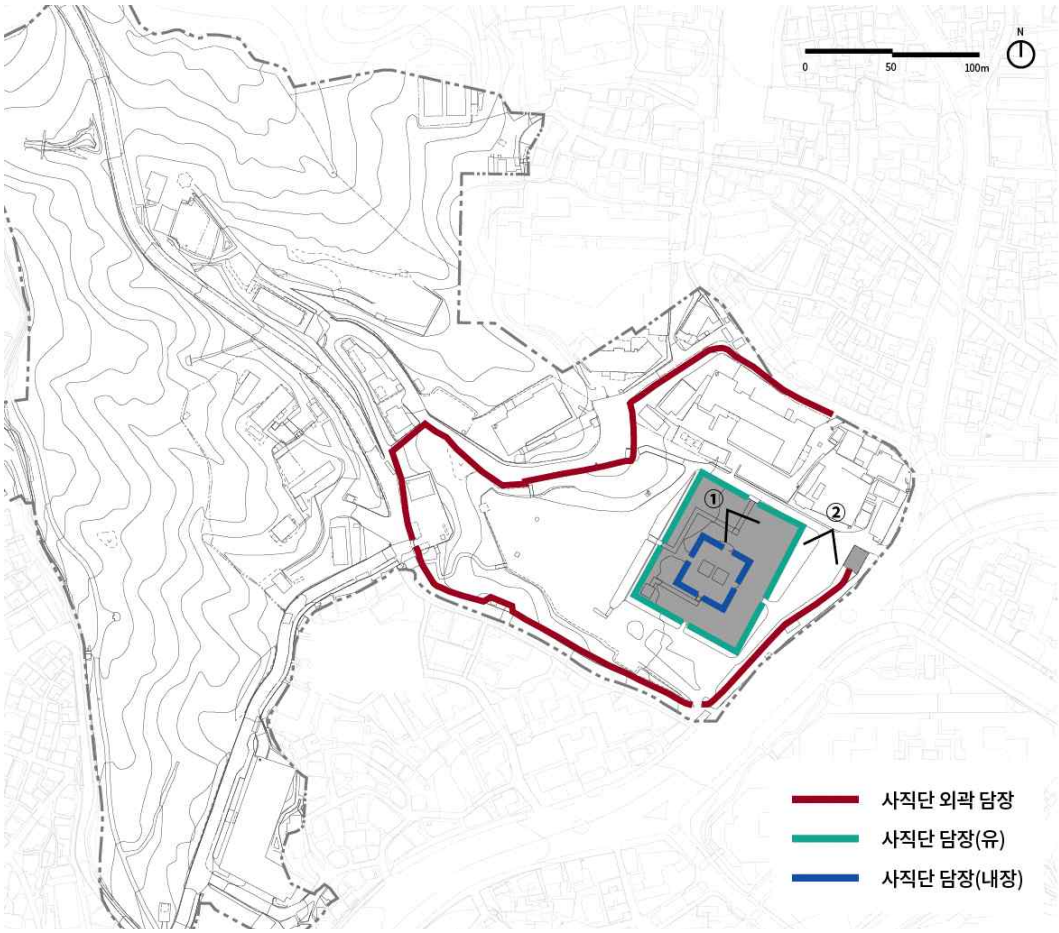
  사직단 주변 지역 주민의 '사직단 복원 반대'로 갈등 유발
  지역주민의 생활에 대한 편의 ↔ 문화재 원형 복원
- **2014년** — **『사직단 복원 정비 기본 계획』 수립**
  문화재청 사직단 복원정비사업 시행 (2015)

[그림 Ⅲ-58] 사직공원의 역사적 장소 맥락

4.4. 사직공원의 물리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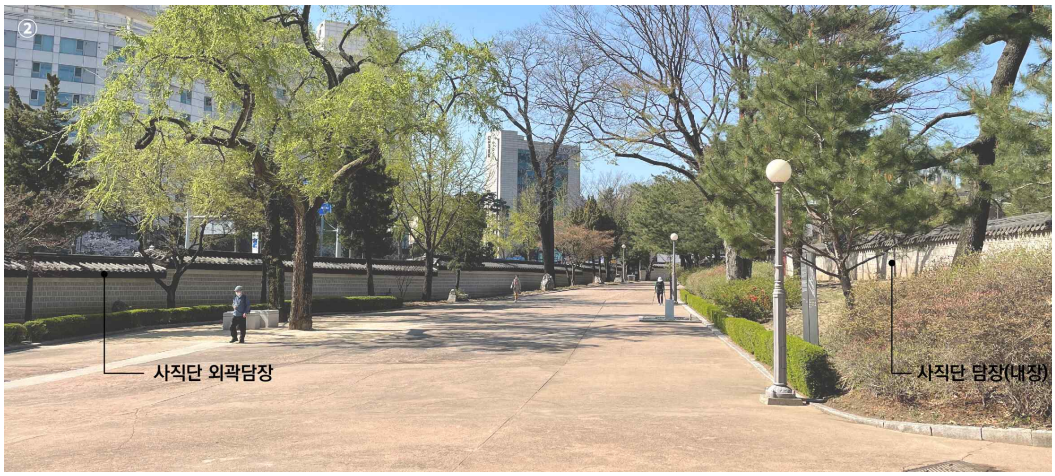
사직단의 사단과 직단의 외곽을 둘러싼 담장인 유(壝)와 유문 그리고 유 외곽을 둘러싸고 설치된 담장인 내장과 홍살문(동,서,남), 북신문은 외부와 사직단 영역을 구분한다. 사직단은 국가를 상징하는 제사가 행해진 공간으로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 제례 시설의 성격에 따라 공원 내에서 분리된 공간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사직공원은 사직단 주변을 지나는 도로를 따라 외곽 담장이 설치되어 사직단 영역의 경계를 표시한다. 외곽담장은 외부로부터 물리적, 시각적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와 높이로 설치되어 사직단 영역을 외부와 분리한다. 이처럼 사직공원은 사직단 자체의 담장(유, 내장)과 추가로 설치된 외곽 담장으로 공간 분리가 뚜렷한 특징이 있다.



[그림 Ⅲ-59] 사직공원의 물리적 특징 현황도

[그림 Ⅲ-60] 사단과 직단을 둘러싼 담장(유, 내장)



[그림 Ⅲ-61] 외곽 담장과 사직단 담장(내장)으로 분리된 공간 형성

[그림 Ⅲ-62] 사직단 권역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담장

4.5. 사직공원의 운영관리 분석

1) 운영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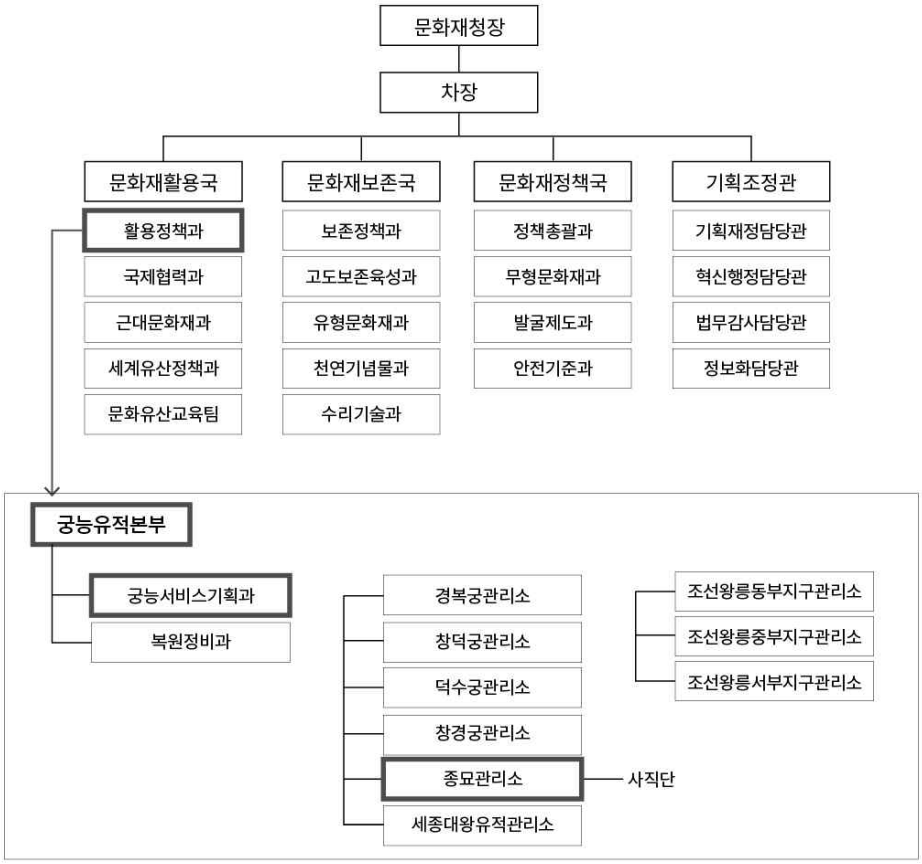
사직공원의 운영관리는 종로구 공원녹지과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서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직공원 전체는 공원녹지과에서 총괄하여 관리하지만 사직단 영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궁능유적본부는 2019년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와 조선왕릉관리소가 통합되어 출범한 조직으로 조선시대 궁궐, 종묘, 사직, 왕릉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전담하여 관리한다. 상위 조직인 문화재청 활용정책과에서 궁능유적본부의 담당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과거에는 종로구 공원녹지과에서 사직단을 함께 관리했지만 2012년에 문화재청으로 관리 이관되었다. 사직공원 내부에 포함된 종로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종로구 공원녹지과 담당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사직공원 운영관리 체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Ⅲ-63] 사직공원 운영관리 체계

> 사직공원에는 도로와 면하여 둘러져 있는 담장이 있는데 담장으로 둘러진 사직단 부분만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외 구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사직단은 공원조성계획상 교양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을 위해 전문기관인 문화재청(궁능유적본부)에 2012년 1월을 기점으로 관리 이관 되었다. 이에 따라 사직단 내부 편의·휴게시설 관리 및 청소 등은 문화재청 소관이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사직단 관리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
>
> - 종로구 공원녹지과 담당 공무원 박○○ -

2) 운영관리 업무

사직단 관리주체인 궁능유적본부는 궁능서비스기획과와 복원정비과 그리고 9개의 관리소로 구성된다. 궁능서비스기획과에서 본부 총괄, 운영, 활용 업무를 수행하며 복원정비과에서는 보수정비팀과 직영보수단을 두어 조경정비, 보수, 복원 업무를 수행한다. 궁능서비스기획과에서 궁능에 대한 활용 기획, 프로그램 개발, 학술조사 연구 수행 등 활용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다.[77] 하지만 활용에 대한 업무는 공간 전체가 유적지로 관리되는 궁, 묘에 집중되어있다.



[그림 Ⅲ-64]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직체계
자료: 문화재청

77)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직안내, http://royal.cha.go.kr/

[표 Ⅲ-19]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활용부서 업무 내용

구분	부서	담당 업무
궁능서비스 기획과	활용계	• 궁·능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 궁·능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궁·능 관람객의 만족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궁·능 관리체계·관람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궁·능의 홍보·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궁능 상설, 기획 전시 및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상세 업무 내용
		• 궁능 기획 전시 및 전시관 등 운영 • 궁능 학술조사·연구, 교육 프로그램, 교류 • 궁능 문화행사 및 관광자원화 사업 (학술사항) • 궁능 활용 중장기, 관람제도 및 관람정책 • 궁궐 프로그램(별빛야행, 시식공간, 여름·가을나기) • 사회적 배려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조선왕릉문화제 운영, 서무(국회관련 등) • 살아 숨쉬는 궁능유적 만들기 사업 • 궁중문화축전 운영, 궁중의례 재현 프로그램 • 궁궐 프로그램(달빛기행, 야연 등) • 비대면 프로그램 및 궁능 멀티미디어 콘텐츠 운영 • 궁능 해설 관련 업무, 민간단체 등 협력 • 궁궐 프로그램(고궁음악회, 궁중일상 전시 등) • 왕릉 프로그램(조선왕릉 길) • 국고보조(조선왕릉 제향, 안내해설 단체) • 종묘·조선왕릉 학술조사·연구, 조선왕릉 제향 운영 • 조선왕릉전시관·역사관 전시 콘텐츠 개발 • 궁능 브로슈어 및 안내책자 발간 • 누리집 콘텐츠 및 소장자료(사진, 영상) 관리 • 궁궐 학술조사·연구 • 조선왕릉전시관·역사관 전시 연출·디자인 개발 • 궁능 프로그램, 안내책자 등 활용 업무 지원

자료: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http://royal.cha.go.kr/

사직단 현장 운영관리 인원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소속 행정 직원 3명과 현장 공공근로자 16명으로 구성된다. 현장에 설치된 사직단 관리사무소에서 사직단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사

직단 내의 문화재 및 시설물, 수목의 보호, 관리, 문화재 공개 및 관람 안내, 문화재 순찰 및 야간 경비업무, 사직단 관련 서무 및 행정업무가 있다.[78] 또한 사직단 내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자전거 출입, 운동기구 사용,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있으며 문화재 안내소에 상주하는 현장 관리자가 관람 질서유지 및 계도 업무를 수행한다.[79]

종로구 공원녹지과에서 사직공원을 운영하는 별도의 관리사무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수목과 시설물은 필요한 시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직공원 내 단군성전에 상주 관리 인원 2명을 배치하고 있다. 사직공원에 대해 공원녹지과의 운영관리 업무는 일반 공원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그림 Ⅲ-65] 사직단 관리사무소
자료: 필자 촬영

[그림 Ⅲ-66] 사직단 문화재 안내소
자료: 필자 촬영

[표 Ⅲ-20] 사직공원 관리주체별 운영관리 업무

관리대상	관리주체	업무내용
사직단 영역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 사직단 보호, 관리 • 사직단 권역 내 시설물, 수목의 보호, 관리 • 문화재 공개 및 관람 안내 • 문화재 순찰 및 야간 경비업무 • 사직단 관련 서무 및 행정업무 • 사직단 관람객 질서유지 및 계도
사직공원 전체 (사직단 제외)	종로구 공원녹지과	• 수목, 시설물 유지관리 • 특정 시설의 경비 업무 (단군성전) • 사직공원 관련 행정업무

78) 『문화재 연감』(2020), 문화재청
79)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http://jm.cha.go.kr/

4.6. 사직공원의 이용관리 분석

1) 문화재 해설

사직단 관리주체인 궁능유적본부에서는 궁궐, 능, 묘를 대상으로 문화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직단은 해설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사직공원을 관리하는 종로구 공원녹지과에서도 별도의 문화재 해설 안내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다른 주체에 의해 지속적인 문화재 해설 안내와 주변 자원과 연계한 탐방 코스가 운영되고 있다.

먼저 종로구 관광과에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골목길 탐방코스를 제안하고 이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관광객들을 안내하며 종로구 역사문화 자원을 설명하는 '골목길 해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을 대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루 2회(오전 10시, 오후 2시)에 걸쳐 운영되며 예약을 통해 참여 인원 3인당 해설사 1명이 배정된다. 관광과에서 제안한 25개의 코스에서 사직단은 사직동 코스, 인왕산자락 이야기길 코스에 포함된다.[80]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인 우리문화숨결-궁궐길라잡이에서 2018년부터 사직단 해설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3~6월, 9~11월에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사직단 해설 안내를 제공한다.[81] (사)한국의 재발견에서는 2012년부터 사직단 해설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궁궐지킴이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초등생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3~6월, 9~11월에 매주 토요일 2회(오전 10시, 오후 2시)에 걸쳐 안내를 제공한다.[82]

---

80) 종로구 종로테마여행, https://tour.jongno.go.kr/tour/main/contents.do?menuNo=110487

81) 우리문화숨결-궁궐길라잡이는 1999년 결성되어 우리 문화유산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며 보존하는 활동을 펼치는 시민 단체로 현재 조선 5대 궁궐과 종묘, 사직단에 전문 해설사를 파견해 매주 일요일 궁묘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 해설을 제공한다.

82) (사)한국의 재발견은 1998년 결성된 시민공동체(NGO) 조직으로 궁궐, 종묘, 사직단, 환구단, 왕릉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사, 연구, 모니터링, 교육,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표 Ⅲ-21] 종로테마여행 골목길 해설

주관		종로구 관광과
개요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주민들이 직접 골목길 구석구석을 안내하며 역사, 문화, 관광 자원들에 대해 해설을 해주는 종로만의 특화된 해설 프로그램
해설 코스	사직동	**사직단** → 단군성전 → 황학정(국궁전시관)→ 종로도서관 → 매동초등학교 → 배화여자고등학교 → 이항복 집 터(필운대) → 홍건익 가옥 →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 세종마을 음식문화 거리
	인왕산자락 이야기길	**사직단** → 황학정 국궁전시관 → 황학정 → 인왕산 숲길(택견수련터 → 수성동계곡 → 해맞이동산 → 가온다리 → 이빨바위 → 청운공원 → 시인의 언덕 → 윤동주문학관
소요 시간		약 2시간~3시간 (코스별 차이 있음)
운영 시간		오전 10시, 오후 2시 (연중)
해설 인원		참여 인원 3명당 해설사 1명씩 배정

[표 Ⅲ-22]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직단 해설

주관	우리문화숨결-궁궐길라잡이	(사)한국의 재발견
운영 시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3~6월, 9~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6월, 9~11월)
해설사	궁궐길라잡이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궁궐지킴이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해설 언어	한국어	한국어
신청 대상	제한 없음	초등생 이상 시민

[그림 Ⅲ-67] 궁궐길라잡이 사직단 해설
자료: 파이낸셜뉴스

[그림 Ⅲ-68] (사)한국의 재발견 사직단 해설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지킴이

2) 이용프로그램 및 행사

사직공원의 행사로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사직대제 행사를 재현하는 사직대제가 있다. 사직대제는 조선시대 왕과 문무백관이 사직단(社稷壇)에서 토지를 관장하는 사신(社神)과 곡식을 주관하는 직신(稷神)에게 제사를 올리며, 나라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던 국가 제례 의식으로 종묘제례와 더불어 국가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졌던 행사이다. 1908년 일제의 강압으로 폐지되었다가 1988년 다시 원형대로 복원하여 재현해왔고 2000년 10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사직대제보존회)과 재단법인 예올이 주관하여 매년 9월 넷째 주 토요일에 행사가 진행된다. 왕과 문무백관이 제례를 올리기 위해 사직단을 향해 출궁하는 모습을 재현한 어가행렬이 덕수궁에서 출발해 광화문을 거쳐 사직단까지 이어지고 사직단에서 사직대제를 재현한다.

사직대제 행사와 함께 2014년 처음으로 문화공연이 함께 개최되었다.[83] 창작국악공연으로 구성되어 사직대제에 대한 스토리식 접근으로 사직단과 사직대제의 의미,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사직단에서 특설무대에 펼쳐진 공연은 사직단을 사적지뿐 아니라 현대의 삶이 있는 일상의 문화공간으로 인식하고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사직단과 사직대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유산 보존에 대해 대중들과 공감대를 확산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4년 9월 사직대제 전야제 김진이 총 예술감독은 “사직단과 사직대제의 기원을 공연을 통해 현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직단을 기억하고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언급하였다.[84] 하지만 문화공연은 매년 개최되는 사직대제와 다르게 일회성 행사에 그쳤다.

이외에 사직공원에서 사직단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이용프로그램은 부재한 실정이다.

---

83) “땅으로부터 命(명) : 기원(起源)하고 기원(祈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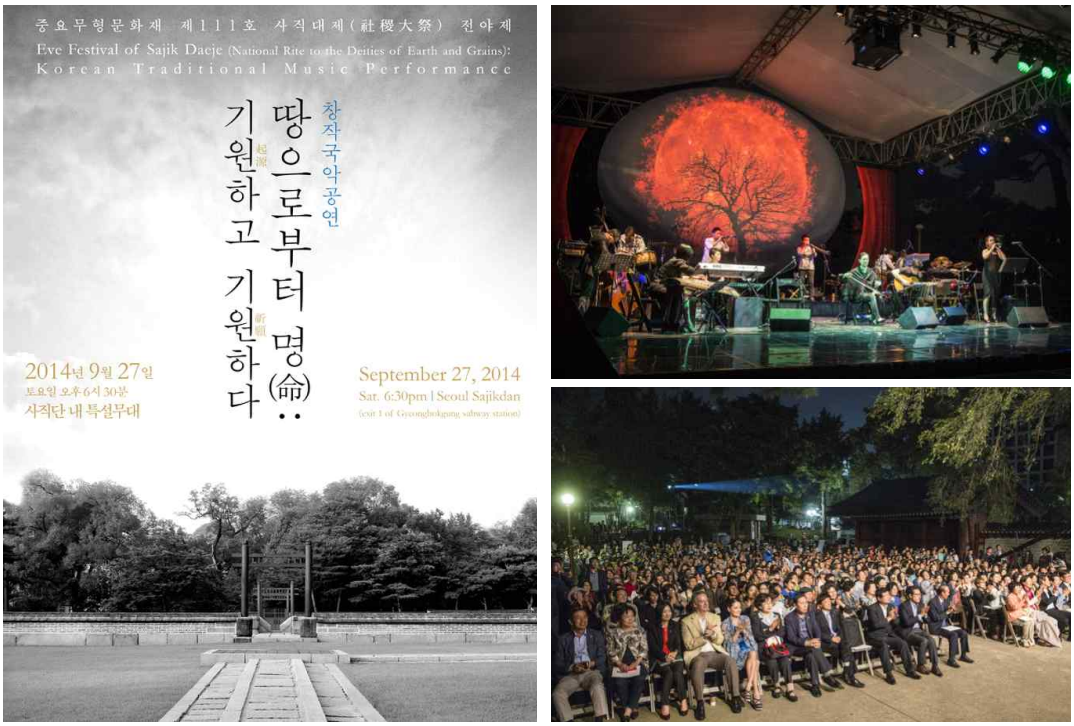
84) 문화경제, 2014, “‘땅으로부터 명(命): 기원하고 기원하다’, 첫 번째 사직대제 전야제 공연”(검색 2021년 9월3일) URL : http://m.weekly.cnbnews.com/m/m_article.html?no=114183

[표 Ⅲ-23] 사직공원 행사

행사	사직대제(社稷大祭)
문화재 지정	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 (2000년 10월 지정)
주최/주관	문화재청 / (사) 전주이씨대동종약원(사직대제보존회), 재단법인 예올
일시	매년 9월 넷째 주 토요일
개요	토지를 관장하는 사신(社神)과 오곡을 주관하는 직신(稷神)에게 직접 제향을 올리며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던 전통 제례의식

[그림 Ⅲ-69] 사직대제
자료: 사직대제보존회

[그림 Ⅲ-70] 사직대제 어가행렬
자료: VISITSEOU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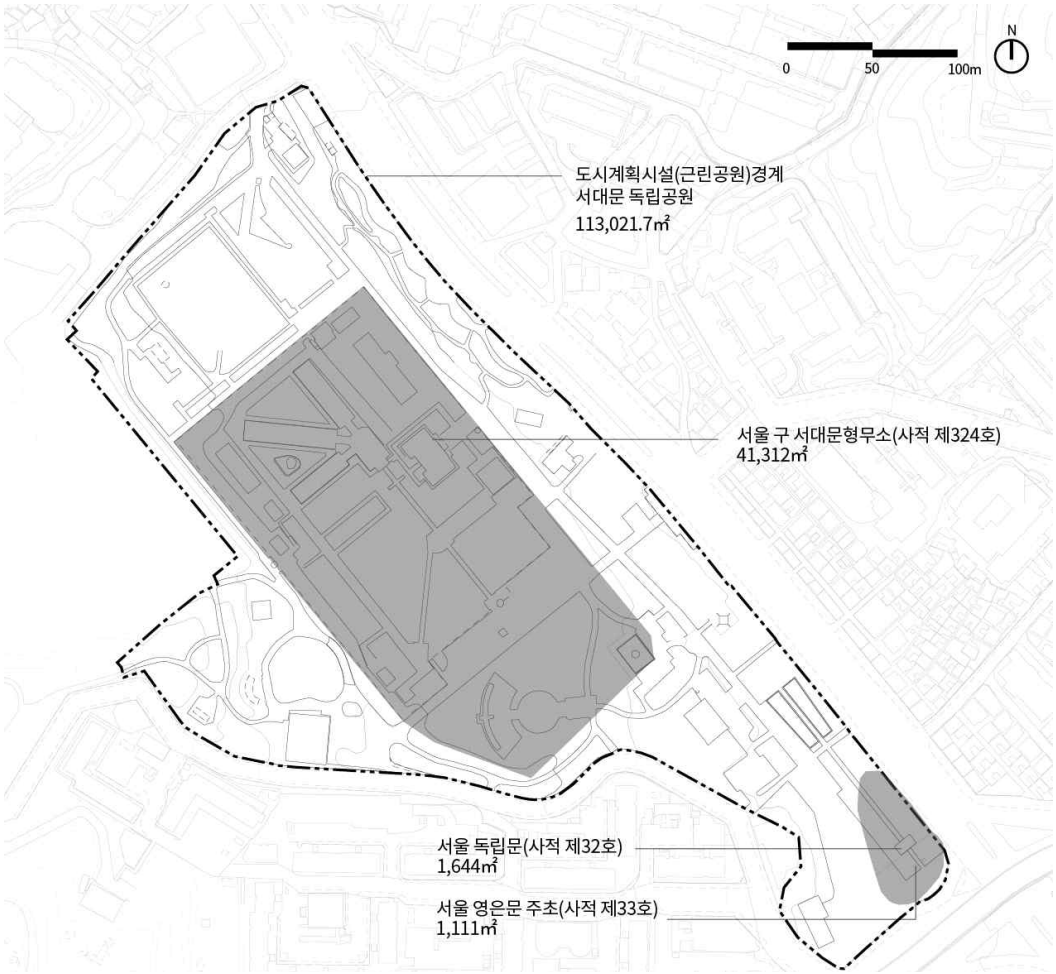


[그림 Ⅲ-71] 사직대제 전야제 창작국악공연(2014)
자료: 중앙뉴스

5. 서대문독립공원

5.1. 서대문독립공원의 문화재와 도시공원 지정현황

<table>
<tr><th colspan="2">문화재 개요</th><th colspan="3">도시공원 개요</th></tr>
<tr><td>문화재명</td><td>서울 구 서대문형무소(사적 제324호)</td><td>공원명</td><td colspan="2">서대문독립공원</td></tr>
<tr><td>지정일</td><td>1988.02.27</td><td rowspan="2">도시계획시설
결정(최초)</td><td rowspan="2">건설부 고시
제232호(1989.05.10)</td><td rowspan="4">근린
공원</td></tr>
<tr><td>지정면적</td><td>41,312㎡</td></tr>
<tr><td>문화재명</td><td>서울 독립문 (사적 제32호) /
서울 영은문 주초 (사적 제33호)</td><td rowspan="2">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td><td rowspan="2">건설부 고시
제436호(1990.07.23)</td></tr>
<tr><td>지정일</td><td>1963.01.21</td></tr>
<tr><td>지정면적</td><td>1,644㎡ / 1,111㎡</td><td>면적</td><td colspan="2">113,021.7㎡</td></tr>
<tr><td>위치</td><td colspan="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td></tr>
</table>



[그림 Ⅲ-72] 서대문독립공원의 문화재와 도시공원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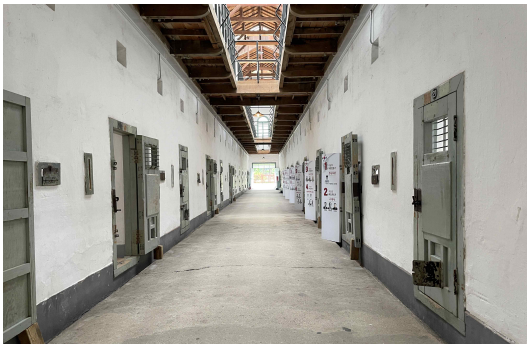
5.2. 서대문독립공원 사적(史蹟)의 개요

서대문독립공원에는 구 서대문형무소, 독립문, 영은문 주초가 포함되어 있다. 구 서대문형무소는 사적의 유형 중 근대 정치, 국방에 대한 유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며 독립문과 영은문 주초는 역사 사건과 관련된 유적에 해당한다.

1) 구 서대문형무소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는 1907년 일제가 의병 등 반일세력을 탄압, 수감할 목적으로 만든 감옥이다. 광복을 맞이하기 전까지 김구선생, 강우규, 유관순 열사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수용되어 고문과 박해를 당했던 장소이다. 해방 이후 1946년 경성형무소, 1950년 서울형무소로 바뀌어 반민족행위자와 친일 세력을 수용하였고 1960년대에는 서울구치소로 바뀌어 독재정권과 군사 정권에 저항했던 민주화 운동가를 수용하였다. 서대문독립공원은 서울구치소 이전이 확정된 이후 유적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사적공원화 계획이 발표되었다.[85] 일제강점기 건물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철거한 후 1992년에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서대문형무소는 서대문구에서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고 교훈으로 삼고자 1998년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개관했다.[86]

[그림 Ⅲ-73]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전경
자료: 필자 촬영



[그림 Ⅲ-74]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내부
자료: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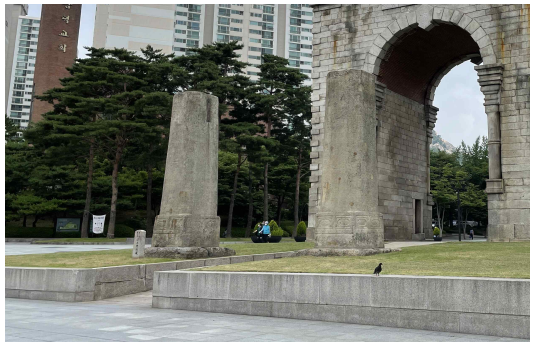
85) 동아일보, 1987, “서대문 형무소를 사적공원으로”, 1987.10.23. 기사일부
86)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2) 독립문과 영은문 주초

영은문 주초는 영은문(迎恩門)을 헐고 독립문을 건설하면서 그 기둥을 받치던 주초가 남은 것이다. 태종 7년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모화루를 처음 만들었고 세종 12년에 모화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상징적 의미로 홍살문을 세웠다. 중종 32년 홍살문보다 격식을 갖춘 형식의 문을 세워 영조문으로 불렀다가 중국 사신의 건의로 영은문으로 고쳤다.[87]

독립문은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자주독립을 다짐하기 위해 세운 석조물로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은문을 헐고 세운 기념물이다. 독립협회를 설립한 서재필은 사대외교의 상징인 영은문을 철거하고 독립문을 지을 것을 주장하였다. 애국지사들과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대한제국 국왕의 동의를 얻었으며 1895년 영은문을 철거하고 영은문을 없앤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다.[88] 독립문은 원래 동남쪽으로 7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으나 1979년 성산대로 공사로 인해 독립문과 영은문 주초를 현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림 Ⅲ-75] 서울 독립문
자료: 필자 촬영



[그림 Ⅲ-76] 서울 영은문 주초
자료: 필자 촬영

87)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영은문’
88)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서울 독립문’

5.3. 서대문독립공원의 역사적 장소 맥락

1) 근대적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이 표출된 독립문 일대

영은문(迎恩門)은 조선 건국 이래 역대 중국의 사신을 맞아온 장소로 무악재를 넘어 중국의 사신이 들어오면 조선의 임금은 백관을 거느리고 영은문까지 나가 사신을 맞이하고 배웅했다. 영은문 앞에는 사신을 영접하던 모화관(慕華館)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조선의 왕세자와 백관은 중국 사신 앞에 나아가 재배의 예를 행하였다.[89] 영은문과 모화관은 사대 외교의 설움과 치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공간이었다.

1894년 갑오개혁이 진행되면서 근대로의 개혁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당시 일본을 포함한 열강들의 간섭이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선각자들과 민중들이 자주독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895년 청국이 청일전쟁에서 패하면서 사대외교의 상징이었던 영은문 문루를 철거하여 자주독립 의지를 표출하였다.

[그림 Ⅲ-77] 영은문 전경(1880년대)
자료: 동아일보사

[그림 Ⅲ-78] 독립문과 독립관 전경(일제강점기)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대한제국 수립 후 서재필은 조선이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임을 표출하는 상징물로서 영은문 주초석 인근에 독립문 건립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당시 민중, 국왕, 정부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896년 독립협회가 창설되었다. 1897년 독립문을 완공하고 폐쇄된 모화관을 개수하여 독립관(獨立館)으로서 독립협회의 사무소로 사용하였고 자주, 민권, 자강이라는 주제를 놓고 매주 토론

89)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모화관(慕華館)”

회가 이루어졌다.[90] 이처럼 당시 독립문 일대는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저항하고 근대적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민족 의지가 표출된 장소였다.[91] 서재필의 연설을 통해 자주독립의 사상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지금 우리나라의 독립은 껍데기뿐인 헛문서의 독립이요, 정말 독립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독립이란 그 나라 국민 전체가 원하고 힘써 세워 놓지 않으면 진정한 독립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옛날의 수치스런 흔적을 없애 버리고 정말 실질적 독립을 소원한다는 표적으로서 이 독립문을 세우는 것이니, 우리 국민 각자는 이 점을 잘 생각하고 우리나라 자주 독립을 위하여 더욱 분투하여야 할 것입니다.[92]"

2) 일제와 독재정권에 대한 항쟁의 역사를 담은 서대문형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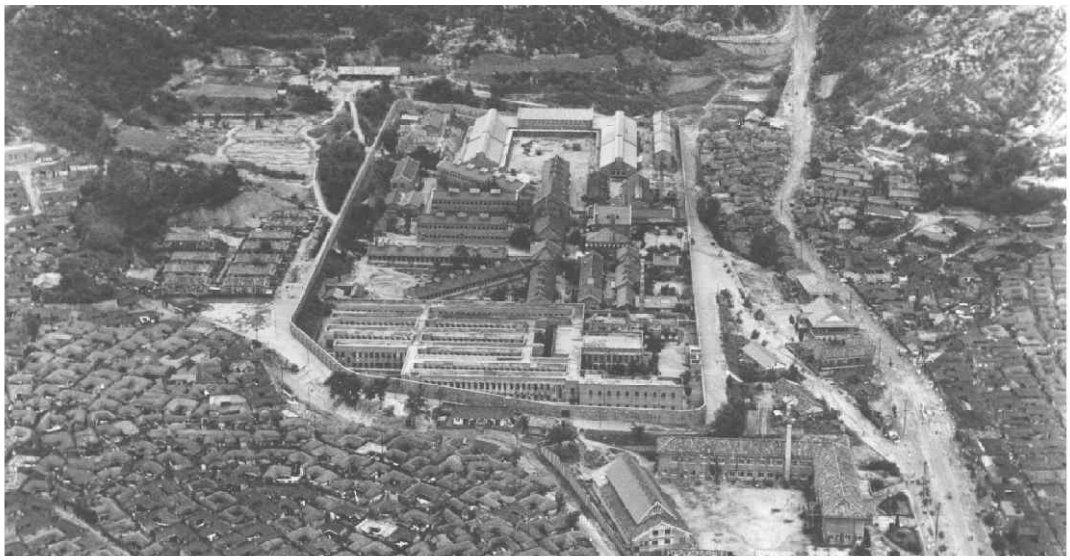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 자주독립의 상징이었던 독립문 일대에 변화가 발생한다. 일제는 1908년 독립문을 마주한 위치에 경성감옥을 신축했고 의병을 수감하여 항일 의지를 꺾고자 했다.[93] 1912년 경성감옥이 이전함에 따라 '서대문 감옥'으로 개명되었다. 이때부터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국 각 지역의 분감을 폐지하면서 수용 인원이 증가하였고 공간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1923년 감옥 관제의 개편과 시설을 확장하면서 '서대문형무소'로 개명되었다. 서대문형무소의 정문, 벽돌담, 10m 높이의 망루는 일제의 권위를 드러내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담장의 폐쇄성은 통제와 폭력을 상징하는 감옥의 공간 점유를 통해 공포를 유발하는 장치로 활용되었다.[94]

일제강점기 동안 서대문형무소에는 김구선생, 강우규, 유관순 열사, 안창호, 여운형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수용되어 고문과 박해를 당했

---

90) 황기원(2001) "서울 20세기 공원·녹지의 변천"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388.
91) 정헌주, 태지호(2016) "근대의 기억 표상으로서 <서대문독립공원>", 『정신문화연구』, 39(2), p.216.
92) 김은남(1994) "성역인가 공원인가 : 독립문, 서대문 독립공원", 『한국논단』, 54(1), p.162.
93) 정헌주, 태지호(2016) 위 논문, pp.217-218.
94) 김성태, 박소현, 권영상 (2018) "서대문 독립공원 변천과정을 통해 본 도시 문화자산의 가치 인식 변화",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9(4), pp.29-30.

다. 해방 이후 서대문형무소는 1961년 서울교도소, 서울구치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독재정권, 군사정권에 저항하였던 민주화 운동가를 수용하였다.



[그림 Ⅲ-79] 서대문형무소전경(1945)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감옥은 근대적 권력이자 폭력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개인에 대한 통제와 복종을 가하기 위한 장치이다.[95]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를 수용하고 군부독재 시기에는 민주화 운동가들을 수용하면서 해당 시기의 권력에 저항하는 세력을 통제하고 복종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서대문형무소는 권력의 권위와 폭력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강요되었던 공간이며 일제로부터의 독립과 독재정권으로부터 민주화를 위한 항쟁의 기억을 담고 있는 장소이다.

3) 한국 근현대사의 독립과 민주 담론이 집적된 장소로서 서대문독립공원

1987년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면서 남겨진 공간을 유적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사적공원화 계획이 발표되었다.[96] 100여 동의 건물 중 일제강점기 건물 일부만 보존하고 독립문 일

95) 미셸 푸코 저, 오생근 역(2003),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pp.56-58.
96) 동아일보, 1987, “서대문 형무소를 사적공원으로”, 1987.10.23. 기사일부

대를 포함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공원 계획 수립 이후 미관상 좋지 않고 지역 발전의 장애물로 제기된 형무소 담장은 철거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건물과 담장 일부가 철거된 상태로 1988년 사적(史蹟)으로 지정되었다.[97] 1992년 개원한 서대문독립공원 내부에는 독립관을 원래 장소에서 이전하여 복원하고 파고다 공원에 있던 3.1운동 기념탑을 독립문과 같은 축 선상에 배치하여 이전하였다. 이처럼 구 서대문형무소를 중심으로 인근에 위치한 독립문 일대를 통합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을 가진 요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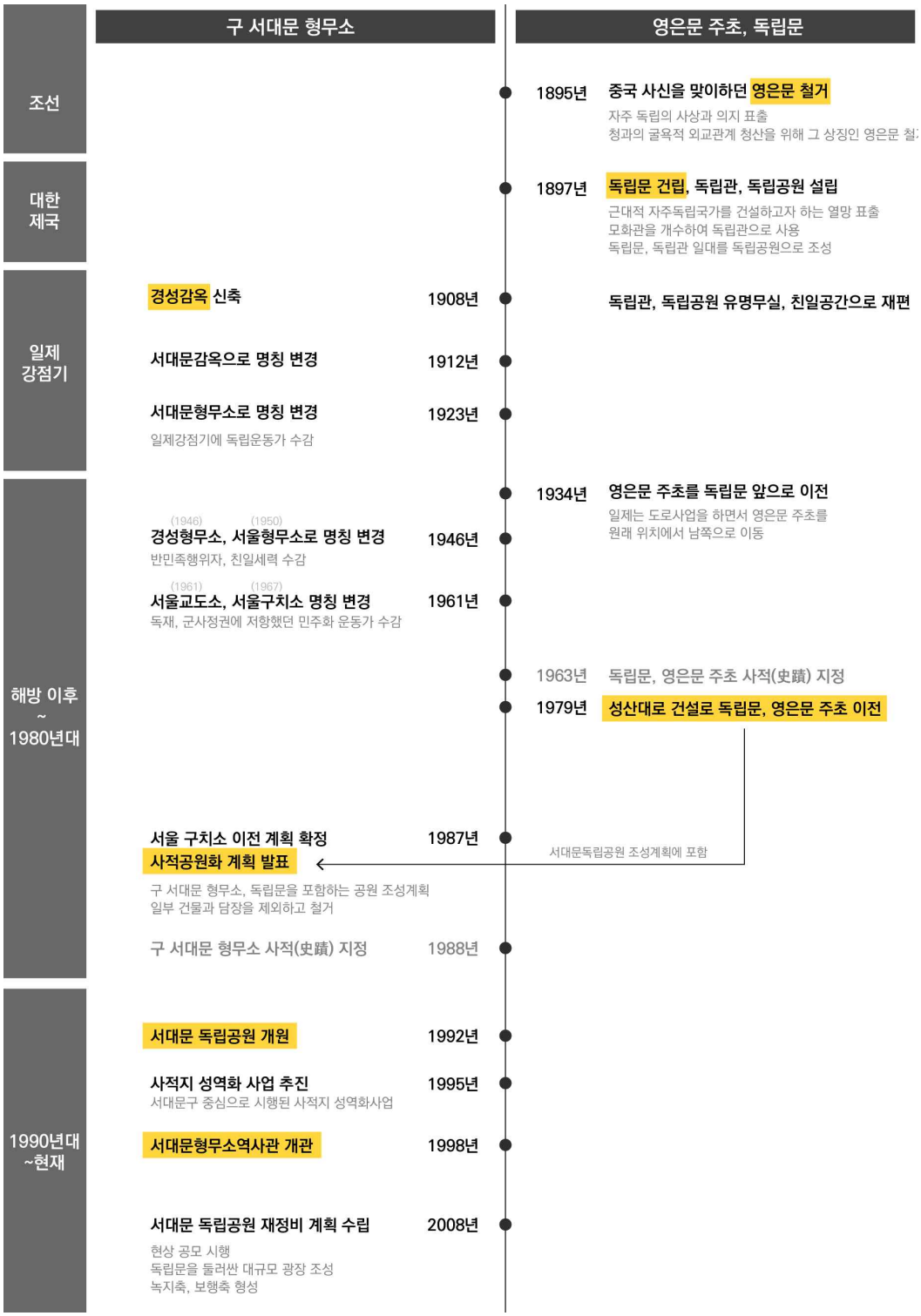
1995년 서대문구 중심으로 시행된 사적지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 서대문형무소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개관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기존에 옥사 형태를 유지하여 일제에 저항하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억, 해방 이후 독재 정권에 항거한 민주화운동가에 대한 문서, 영상자료, 유물전시, 모형으로 구성된다.

한편 서대문독립공원은 다양한 맥락의 요소들이 모여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한국 근현대 항쟁의 역사에 두 축을 이루는 '독립'과 '민주' 담론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장소이다. 구청장, 대통령 후보, 시장, 국회의원, 학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독립, 민주 담론이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서대문독립공원의 상징성을 활용한다.[98]

[그림 Ⅲ-80]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장(2012)
자료: 한겨레

[그림 Ⅲ-8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내부 모형전시
자료: 서대문구청 블로그

97) 김성태, 박소현, 권영상(2018), 위 논문, p.31.
98) 정헌주, 태지호(2016) 위 논문, p.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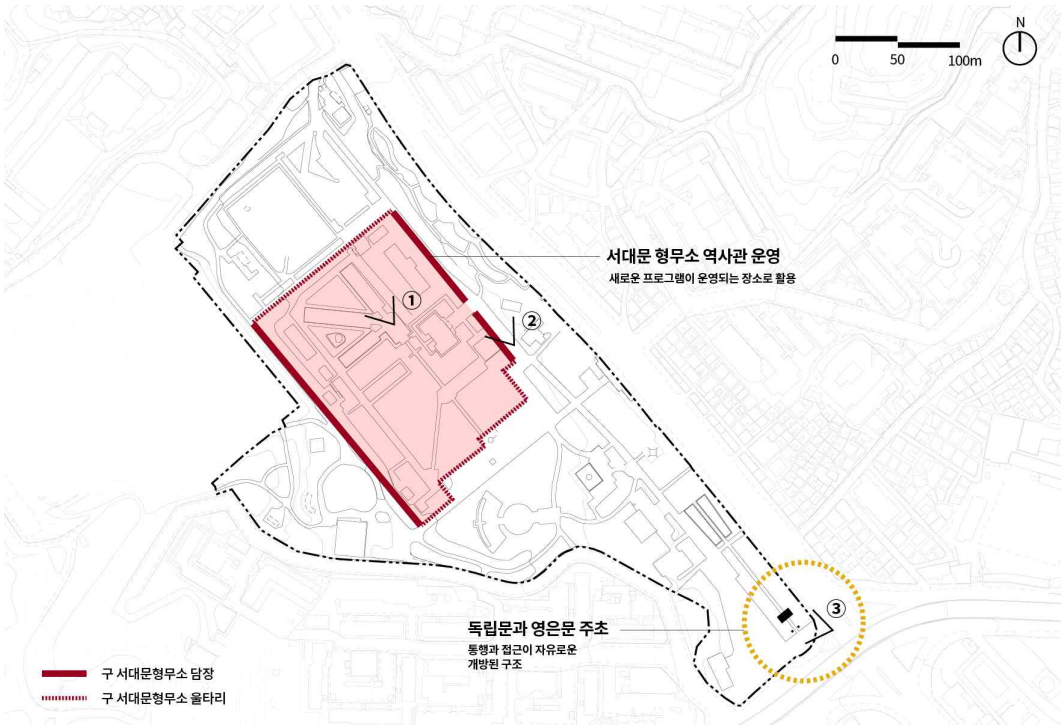


[그림 Ⅲ-82] 서대문독립공원의 역사적 장소 맥락

5.4. 서대문독립공원의 물리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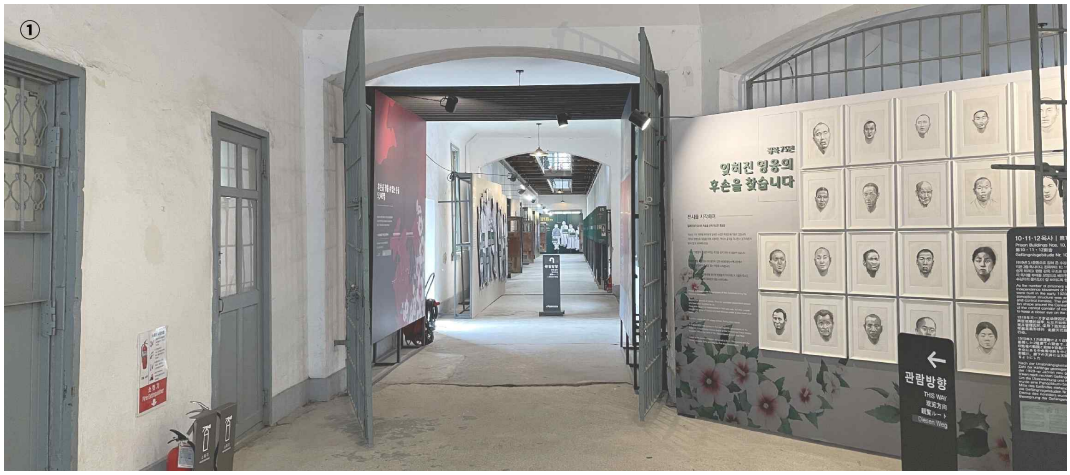
구 서대문형무소, 독립문, 영은문 주초는 근대 건축물 및 구조물로 비교적 현대와 가까운 시기에 만들어져 훼손이 적고 원형이 잘 남아있다. 본래 감옥 시설이었던 구 서대문형무소는 경계를 따라 담장이 남아있어 공원 내에서 별도의 공간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근대 건축물은 본래 기능이 상실한 이후에도 교육 및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구 서대문형무소 역시 역사관으로 개관하여 서대문독립공원의 역사·문화 거점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독립문과 영은문 주초는 서대문독립공원이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독립문과 영은문 주초 주위로 녹지와 울타리가 설치되어 접근할 수 없는 형태였지만, 2008년 '서대문독립공원 재조성 사업'이 진행되면서 울타리를 철거하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개방이 이루어졌다.[99]



[그림 Ⅲ-83] 서대문독립공원의 물리적 특징 현황도

99) 동아일보, 2009, "갇혀있던 '독립문' 111년만에 시민에 개방"(검색 2021년 9월 6일) URL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091028/23726792/2



[그림 Ⅲ-84] 역사관으로 활용되는 구 서대문형무소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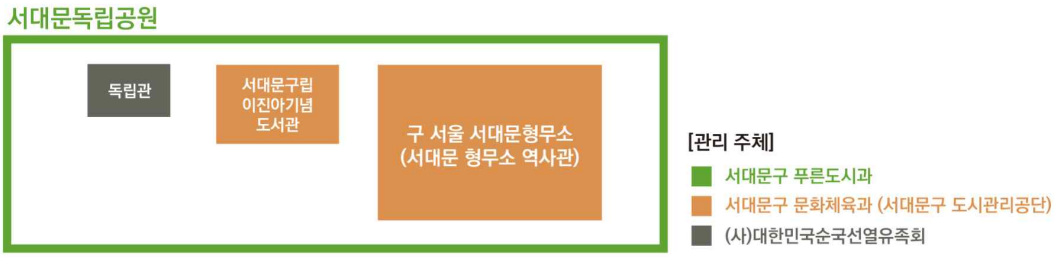
[그림 Ⅲ-85]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구 서대문형무소 담장

[그림 Ⅲ-86] 시민에게 개방된 독립문과 영은문 주초

5.5. 서대문독립공원의 운영관리 분석

1) 운영관리 체계

서대문독립공원의 운영관리는 서대문구 푸른도시과와 문화체육과가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전체 공원은 푸른도시과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 내 사적으로 지정된 구 서대문형무소, 독립문, 영은문 주초와 이진아 기념도서관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한다. 역사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 서대문형무소와 이진아 기념도서관은 문화체육과 산하 기관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100]에서 실질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또한 순국선열의 위패가 봉안되어 추모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독립관은 사단법인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서대문독립공원에서 푸른도시과와 문화체육과의 업무는 문화재청 고시로 지정된 문화재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서대문구 푸른도시과와 문화체육과 담당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운영관리 체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Ⅲ-87] 서대문독립공원 운영관리 체계

> 서대문독립공원 전체는 서대문구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다만 공원 내 문화재로 지정된 구 서대문형무소, 독립문, 영은문 주초는 서대문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공원 내 3·1운동 기념탑, 순국선열 추념탑과 같은 현충시설은 모두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한다.
>
>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담당 공무원 서○○-

100)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2003년에 설립된 서대문구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서대문구의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 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청 고시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서대문독립공원 내에 사적으로 지정된 구 서대문형무소, 독립문, 영은문 주초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한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문화재로 지정된 대상에 대해 안전점검, 보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이진아기념도서관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담당 공무원 한○○-

2) 운영관리 업무

서대문독립공원의 방문자센터에 푸른도시과의 현장관리사무소가 있으며 운영관리 인원은 행정 직원 1명과 현장 공공근로자 11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는 공원 수목과 일반 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사적 이외에 3·1운동 기념탑, 순국선열 추념탑과 같은 현충시설의 보호 및 유지관리가 있다. 서대문독립공원에 대한 푸른도시과의 운영관리 업무는 유지관리 업무에 국한되며 공원 내 사적의 포함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서대문구 문화체육과는 문화기획팀, 문화관광팀, 생활체육팀, 문화체육시설팀으로 구성된다. 문화체육시설팀에서 문화재 보호, 정비,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문화재 활용에 관해서는 문화관광팀에서 서대문 역사문화해설사를 운영하고 문화기획팀에서 서대문구의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을 기획하고 관련 행사를 운영한다. 서대문독립공원 내 사적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소속 행정 공무원 1명이 서대문독립공원 내 사적을 대상으로 문화재 유지보수 및 관리, 서대문 형무소 복원 및 정비 사업 업무를 수행한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산하기관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관리하며 기획·운영, 학예·연구, 문화재보존·복원팀으로 구성된다. 총 6명의 관리 인원으로 구성되며 역사관 내부에 사업계획, 예산 관리와 학술연구, 유물관리, 전시 계획,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역사관 내 시설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101]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별도의 관리조직의 직영 관리에 의해 적극적인 문화재 활용

10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https://sphh.sscmc.or.kr/

이 이루어지며 관련 전시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그림 Ⅲ-88] 서대문독립공원 방문자센터
자료: 필자 촬영

[그림 Ⅲ-89]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구
자료: 필자 촬영

[표 Ⅲ-24] 서대문독립공원 관리주체별 운영관리 업무

관리대상	관리주체	업무내용
서대문독립공원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 수목 및 시설 유지관리 • 현충시설 보호, 유지관리 • 서대문독립공원 관련 서무 및 행정
구 서대문형무소, 독립문, 영은문 주초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 공원 내 문화재 보호, 정비, 관리 • 관련 서무 및 행정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구 서대무형무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기획/운영 • 사업계획·예산 및 인사관리, 민원관리, 주차장 관리 학예/연구 • 학술 연구 • 전시 계획 운영 • 유물관리·성인강좌·도슨트 운영 • 전시 및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재 보존/복원 • 문화재 보존·복원 업무 총괄 • 시설물 관리 및 대관(촬영) • 재난안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5.6. 서대문독립공원의 이용관리 분석

1) 문화재 해설

서대문독립공원은 관리주체인 서대문구 푸른도시과에서 공원 내 문화재에 대해 해설을 제공하는 '서대문독립공원 역사문화탐방'을 운영한다. 해설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4~11월에 매달 첫째 주 일요일, 하루 2회 운영된다. 해설은 서대문독립공원 내 사적의 역사적 배경과 사실을 답사를 통해 전문 해설사가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여러 사적이 밀집되어 있는 독립공원의 특성상 공원 관리주체가 직접 문화재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102]

서대문구 문화체육과에서는 서대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자연 등 요소를 연계하여 도보관광코스를 제안하고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서대문 역사문화 해설'을 제공한다. 해설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3~11월에 매주 토요일 1회 운영된다. 역사문화 해설 코스는 총 3개로 구성되며 그 중 '민주와 독립의 열망을 품은 길 의주로'를 주제로 하는 1코스에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독립문이 포함된다.[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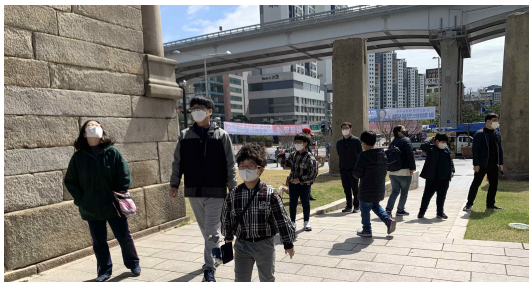
서대문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역사관 내부에 도슨트 해설이 제공된다. 20명 이하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포함하여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안내를 제공한다.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4회 안내를 운영하고 매주 일요일 오후는 총 4회에 걸쳐 정기해설을 제공한다. 또한 별도로 역사관 해설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여 관람객에게 해설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

102)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yeyak.seoul.go.kr
103) 서대문구 문화관광, http://www.sdm.go.kr/culture/travel/sub1020.do

[표 Ⅲ-25] 서대문 역사문화 해설

주관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개요		서대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
해설 코스	민주와 독립의 열망을 품은 길 의주로(1코스)	충정각 → 프랑스대사관 → 미동초 → 초리우물터 → 서대문역터 → 경기감영 → 영천시장 →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독립문**
	나만의 힐링로드(2코스)	무악재 → 하늘다리 → 안산봉수대 → 봉원사
	신촌과 청년 (3코스)	홍익문고 → 플레이버스 → 김현식 조형물 → 우드스탁 LP바 → 연세대학교(윤동주 기념관)
소요 시간		약 2시간
운영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3시 (3~11월)
해설 인원		회당 2~10명 모집



[그림 Ⅲ-90] 서대문독립공원 역사문화탐방
자료: 서울시 공공서비스

[그림 Ⅲ-9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도슨트 해설
자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2) 이용프로그램 및 행사

서대문독립공원은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독립의 별, 서대문에서 세계로’ 라는 주제로 전 세계 80여 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의 다크투어리즘과 올바른 역사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재청에서 주관하고 서대문구 문화체육과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단체에서 함께 주관한다. 5~11월에 걸쳐 진행되고 주요 프로그램은 지역 전통시장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역사교류 프로그램, 자국언어로 서대문형무소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104]

104) 문화재청(2020)『2020년 지역문화재활용사업 문화유산 유유자적』, p.16

[표 Ⅲ-26] 서대문구 생생문화재 사업_독립의 별, 서대문에서 세계로

개요	전 세계 80여 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의 다크투어리즘과 올바른 역사문화체험 기회를 제공		
주최/주관	문화재청, 서울시,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 펀데이코리아네트웍스		
대상 문화재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서울 독립문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독립의 별을 따라 걷다	청년희 망단_글로벌 독립군 프로젝트	서대문형무소 글로벌 공감 콘텐츠
일정	5월~11월(연 6회)	5월~11월(연 2회)	5월~9월(연 2회)
장소	영천시장 → 독립문 → 서대문형무소	서대문형무소, 독립문	서대문형무소
참가대상	60개국 외국인(240명)	15개국 외국인(30명), 내국인 대학생(30명)	30개국 외국인(150명)
내용	• 일제강점기 시대의 아픈 역사를 배우들의 재현극과 참가자 참여로 독립투사들의 삶을 간접체험 하는 프로그램 • 지역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채험하는 관광 활용 프로그램	•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들을 매칭 하여 “자유와 평화, 독립과 희망”에 대한 주제로 과거를 넘어 희망찬 미래를 되새기는 희망 만들기 역사교류 프로그램	• 외국인들이 자국의 언어로 서대문형무소를 홍보하는 다양한 에세이 및 UCC형태의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그림 Ⅲ-92] 서대문독립공원 생생문화재 사업_독립의 별, 서대문에서 세계로(2019)

자료: 문화재청(2020)『2020년 지역문화재활용사업 문화유산 유유자적』

또한 서대문독립공원은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중 ‘문화재 야행’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1년 9월 ‘별 헤는 밤의 청년들’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밤이 되면 새로운 아름다움이 있는 지역 문화유산과 문화시설을 연계하여 다양한 역사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재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서대문구의 문화재와 시대별 청년들의 이야기를 이야기 형태로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대문독립공원 내에 있는 독립문과 서대문형무소 그리고 구 신촌역사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독립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이진아기념도서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야간 개장과 조명 설치, 서대문형무소 내에서 문화예술 공연,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 해설 야행 등으로 구성된다.[105]

[표 Ⅲ-27] 서대문구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_별 헤는 밤의 청년들

개요	서대문구의 문화재와 시대별 청년의 이야기를 온오프라인의 형태로 경험하는 서대문구 문화재 야행		
주최/주관	문화재청, 서울시,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 FILL THE FEEL		
대상 문화재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서울 독립문, 서울 구 신촌역사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야경(夜景)_별 하나에 문화재	야설(夜設)_별 하나에 음악	야화(夜畵)_별 하나에 순간
일정	9월10일~9월12일	9월 10일	8월27일~9월26일
장소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독립문 및 독립공원, 서대문형무소, 이진아기념도서관	서대문형무소 내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외벽, 독립공원 일대
내용	박물관, 전시관 야간관람	서대문구 역사를 노래하는 예술단체 공연 (코로나 19로 랜선 상영회)	LED 큐브와 포스터를 활용한 타이포 그래피, 캘리그래피 전시
프로그램명	야사(夜史)·야로(夜路)_별 하나에 해설 야행	야시(夜市)_별 하나에 야간 공방	
일정	9월10일~9월12일	9월10일~9월12일	
장소	독립공원 일대 / 신촌 일대	연희동 일대	
내용	해설 야행 (코로나 19로 인해 랜선 투어로 진행)	서대문구 청년 예술가 및 지역 공방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자료: 2021 서대문 문화재야행, http://www.sdmnightroad.com/

105) 문화재청(2021)『문화재 야행 42선』, pp.32-33

서대문독립공원의 행사는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서대문독립민주축제'가 있다. 서대문독립민주축제는 매년 광복절에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독립과 민주,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역사문화축제이다. 서대문구 문화체육과에서 주최하며 서대문독립민주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주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주 무대로 행사가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역사콘서트, 독립민주체험마당, 시민참여프로그램,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특별전시회, 독립민주지사 풋 프린팅, 시민참여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다.

[표 Ⅲ-28]서대문독립민주축제 주요 프로그램 (2019년 기준)

프로그램	장소	내용
개막식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메인무대	개막식〈당신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독립, 민주지사 풋프린팅
역사콘서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메인무대	역사콘서트 1919 그때 우리는!
특별전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0옥사	〈만주벌이 별이 되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전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사진자료 전시
설치전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2옥사, 격벽장	〈위치감각 Ⅰ,Ⅱ:역사속에서〉 무대미술, 매체음악,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시
퍼포먼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2옥사/광장	〈자유의 춤, 프로젝트 날다〉 전문배우들의 공중 퍼포먼스 및 관객참여 플래시몹
시민참여 프로그램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2옥사	〈미루, 그들의 눈물을 지켜보다〉 수감자의 일상 체험 수감, 노역, 옥사체험 인원 : 40명,초등 4학년 이상 가족
	서대문형무소역사관 9옥사 앞	〈독립 사진관〉 독립지사와 한컷, 코스프레 무료 촬영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격벽장 앞	〈독립군 구출 대작전〉 독립군 구출을 위한 6단계 미션 게임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독립의 그날까지〉 사형장 가상현실(VR) 체험 프로그램
독립민주 체험부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태극활과 태극연 만들기 안중근 의사 유묵 체험 대한독립만세!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독립운동가 팬던트 만들기

자료: 서대문독립민주축제, https://sidfest.modoo.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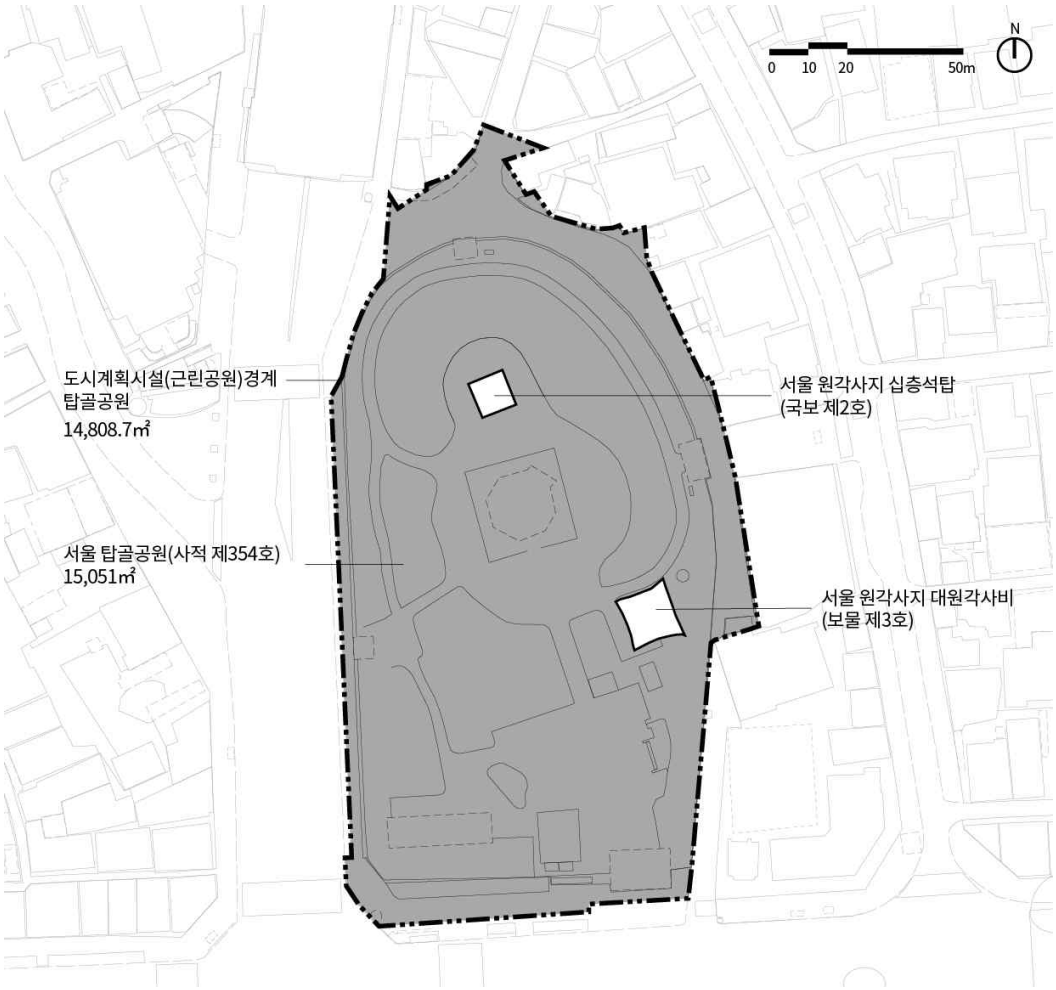
[그림 Ⅲ-93] 서대문독립민주축제 포스터(2018, 2019)
자료: 서대문독립민주축제 (https://sidfest.modoo.at/)

[그림 Ⅲ-94] 서대문독립민주축제(2019)_시민참여 프로그램
자료: 서대문독립민주축제 (https://sidfest.modoo.at/)

6. 탑골공원

6.1. 탑골공원의 문화재와 도시공원 지정현황

<table>
<tr><th colspan="2">문화재 개요</th><th colspan="3">도시공원 개요</th></tr>
<tr><td>문화재명</td><td>서울 탑골공원 (사적 제354호)</td><td>공원명</td><td colspan="2">탑골공원</td></tr>
<tr><td>지정일</td><td>1991.01.25</td><td rowspan="2">도시계획시설
결정(최초)</td><td rowspan="2">총독부 고시
제208호(1940.03.12)</td><td rowspan="4">근린
공원</td></tr>
<tr><td>지정면적</td><td>15,051㎡</td></tr>
<tr><td rowspan="2">문화재명</td><td rowspan="2">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국보 제2호)/
서울 원각사지 대원각사비 (보물 제3호)</td><td rowspan="2">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td><td rowspan="2">서울시 고시
제2015-292호(2015.09.24)</td></tr>
<tr><td>지정일</td><td>1962.12.20. / 1963.01.21.</td></tr>
<tr><td>지정면적</td><td>1기</td><td>면적</td><td colspan="2">14,808.7㎡</td></tr>
<tr><td>위치</td><td colspan="4">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38-1</td></tr>
</table>



[그림 Ⅲ-95] 탑골공원의 문화재와 도시공원 지정현황

6.2. 탑골공원 사적(史蹟)의 개요

탑골공원은 1991년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보로 지정된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물로 지정된 원각사지 대원각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탑골공원은 최초의 근대 공원이자 3·1운동의 발상지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장소이며 사적의 유형 중 역사 사건과 관련된 유적에 해당한다.[106]

1897년 도지부 고문 영국인 브라운에 의해 공원 조성이 논의되어 폐허가 되어있던 원각사 절터에 1902년에 탑골공원을 개원하였다. 1910년 탑골공원 관리 권한이 총독부로 넘어가면서 일반인에게 개방되었고 대중들이 모여드는 공공공간으로 사용되었다. 1919년 3월 1일 시민들과 학생들이 탑골공원에 모여 독립선언서을 낭독하고 만세 운동 시위를 벌였다.

1983년 사적지 경관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1967년 공원 서측에 설치되었던 아케이드를 철거하였고 탑골공원의 담장과 서문, 북문 등 사주문을 복원하였다.[107] 1980~90년대에 탑골공원은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장소로 활용되었고 IMF로 인해 하루 평균 3000명 이상의 노인이 방문하는 장소로 활용되었다.[108] 2001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에 따라 탑골공원의 역사적 상징성 부각을 목적으로 물리적 공간 개편이 이루어져 현재 모습에 이른다.[109]

[그림 Ⅲ-96] 탑골공원 내 팔각정
자료: 필자 촬영

[그림 Ⅲ-97] 탑골공원 전경(2016)
자료: 서울역사편찬원

106)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서울 탑골공원'
107) 국가기록원, https://theme.archives.go.kr, '탑골공원'
108) 박승진(2003) "탑골공원의 문화해석", 『한국조경학회지』, 30(6), pp.9-11.
109) 한성미(2016) "탑골공원의 장소 정체성에 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4(3), p.26.

6.3. 탑골공원의 역사적 장소 맥락

1) 근대 도시공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된 탑골공원

고려시대 흥복사(興福寺)가 있던 자리에 1465년 원각사(圓覺寺)라는 절이 세워졌으나 연산군 때 숭유억불 정책이 강화되면서 절을 폐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원각사비와 10층 석탑만 남은 채 폐허로 방치되었고 이 지역은 석탑이 있다고 하여 '탑골'로 불렸다. 1897년 총세무사인 브라운이 공원 조성을 건의하여 점유하고 있던 민가를 철거하였고 인근 민가와 경계를 확보하기 위해 담장, 북문과 남문을 먼저 설치하였다. 1902년 탑골공원이 개원할 당시 팔각정이 설치되고 10층 석탑과 대원각사비 주변 정비 정도에 그쳤으며, 대한제국 왕실 소유의 공원으로 평일에 일반 시민의 출입은 제한되어 있었다.[110]

한편 1900년 칙령『군악대 설치 건』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군악대가 설치되었다. 이들은 궁중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아악대와 구별하여 양악대로 불렸다. 독일인 음악가 에케르트(Franz Eckert)를 초빙하여 군악대를 육성하였고 1903년부터 탑골공원 남서쪽에 설치된 건물에 머무르며 훈련 및 교육을 시행했다.[111] 이들은 국가 의례 행사 연주뿐 아니라 일요일에 탑골공원을 일반에 개방하여 팔각정에서 일반 시민들을 위한 연주도 개최하였다.

[그림 Ⅲ-98 탑골공원을 담은 사진엽서(1903)
자료: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Ⅲ-99] 탑골공원 팔각정 앞 국악대(1906)
자료: 더프리뷰

110) 김해경, 김영수, 윤혜진(2013) "설계도서를 중심으로 본 1910년대 탑골공원의 성립과정", 『한국전통조경학회』, 31(2), pp.106-107.
111) 위 논문, p.108.

1910년 탑골공원의 관리 권한이 총독부로 이관되면서 일본식 정자, 연못, 벤치, 화단, 도로, 전등, 수도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벚나무와 상록수가 식재되면서 '공원'으로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탑골공원은 1913년부터 일반에 공개되고 야간 개방까지 이루어지며 대중들을 위한 음악 연주회도 개최되었다. 또한 탑골공원 내 찻집과 식당이 도입되었고 연못이 있어 젊은 계층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었다.[112] 이를 통해 탑골공원은 연령층과 사회적 신분이 다양한 이용객들로 북적이며 전형적인 '도시공원'의 모습을 띠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중들이 모여드는 중심지가 된 탑골공원은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낭독과 대한독립만세 시위의 출발점이 되었다.[113] 이처럼 탑골공원은 한국 정부에 의해 조성되고 3.1운동의 발상지로 민족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상징적 공간이었다.

2) 노인들이 점유하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탑골공원

1967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도심부 불량주택지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탑골공원 인근 불량주거지가 철거되었다. 그리고 낙원상가와 공원 서측으로 아케이드를 건설하면서 탑골공원은 유료화되었다. 1983년 사적지 경관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아케이드를 철거하였고 담장과 서문, 북문 등 사주문을 복원하여 1988년부터 무료 개방되었다. 한편 3.1운동의 발상지로 저항의 상징성을 가지는 공간이었던 탑골공원은 1980년대 민주화, 인권, 노동 등 정치 및 사회 문제에 의견을 표출하는 집회와 시위의 장소로 활용되었다.[114]

1990년대에 IMF경제 위기로 급증한 노숙인에게 제공하는 무료급식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탑골공원에 노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루 평균 3,000명 이상의 노인들이 모여들면서 탑골공원은 노인들만의 문화가 형성되는 장소가 되었다. 대부분 바둑·장기두기, 개인 경험 이야기하기, 정치 주제로 토론하기, 붓글씨 쓰기 등 취미활동을 하며 노인 문화를 형

112) 박승진(2003) "탑골공원의 문화해석", 『한국조경학회지』, 30(6), pp.4-5.
113) 한성미(2016) "탑골공원의 장소 정체성에 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4(3), p.30.
114) 박승진(2003) 위 논문, p.9.

성했다. 하지만 노인들의 음주·가무와 노숙인으로 인한 공원 분위기 훼손, 공원 이용에 불편 제공, 노인들을 상대로 한 매춘, 위생적 환경 유지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115]

[그림 Ⅲ-100] 탑골공원에 면해 조성된 아케이드(1967)
자료: 중앙일보

[그림 Ⅲ-101] 탑골공원에 모여 있는 노인(1996)
자료: 연합뉴스

[그림 Ⅲ-102] 탑골공원 무료 급식행렬(1998)
자료: 중앙일보

115) 한성미(2016) 위 논문, pp.30-31.

3) 성역화 사업으로 더욱 비어버린 탑골공원

2001년 서울시는 탑골공원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노인들이 점유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역화 사업'을 시행하였다. 공원재정비계획안의 응모지침에는 편의의 목적을 제공하는 시설물은 제거하고 상징 및 기념공간으로서 공원을 외부와 차단함으로서 성역으로서 공간 분위기를 강조할 것을 언급한다.[116] 즉 탑골공원의 기능 중 '도시공원'으로서 기능을 축소하고 역사적 장소로서 상징성에 초점을 맞춘 계획을 추진한 것이다.

한성미(2016)에 따르면 성역화 사업 결과, 탑골공원을 방문하는 노인은 하루 평균 50여 명 정도이며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 이용자 수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성역으로서 재조성된 탑골공원은 급감한 노인 이용자 수를 일반 시민들이 대체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우 적은 수의 관람객들이 스쳐 지나가는 공간에 그치고 있다.

탑골공원은 3.1운동의 발상지로 역사적 장소이자 오랫동안 노인들이 점유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성역화 사업은 탑골공원에 쌓인 여러 시간의 켜 중에 역사성에 초점을 맞춰 공간이 재구성되었다. 그러나 탑골공원은 일상적으로 모든 계층이 어울리며 다양한 활동이 가능했던 근대 '도시공원'이었다. 현대에 탑골공원은 도시공원으로서 기능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도시에서 고립된 공간으로 변화하며 공간의 가치가 저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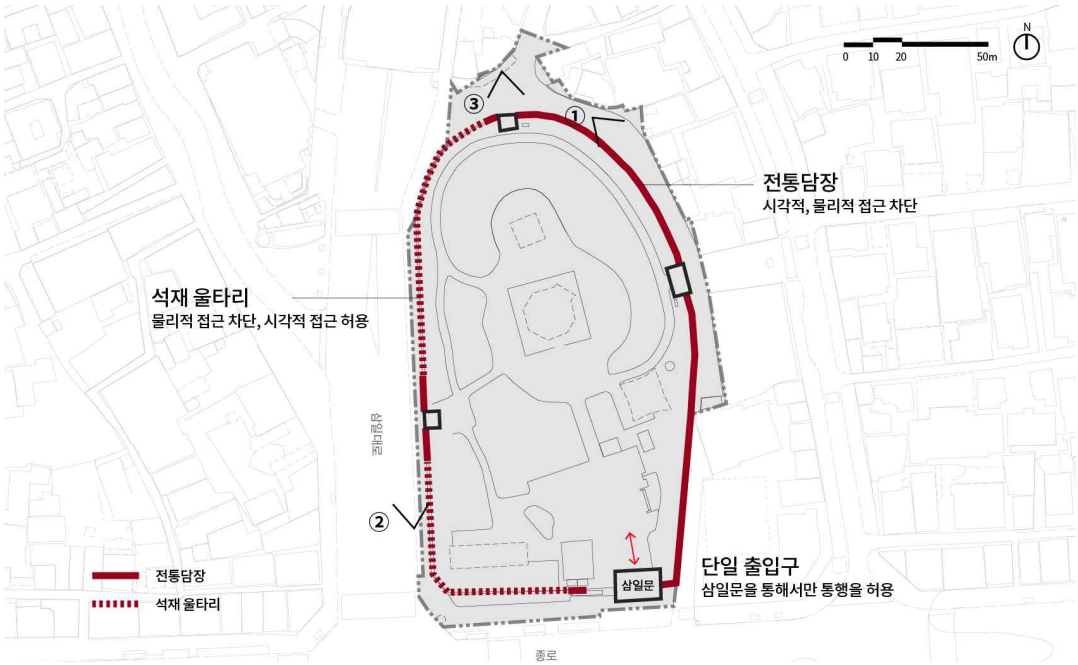
116) 한성미(2016) 위 논문, p31.

	탑골공원의 역사적 사건		탑골공원의 물리적 변화	
조선			1465년	**원각사(圓覺寺) 중건** 세조 때 고려시대 지어진 흥복사를 원각사로 개명하여 중건
			1465년	**원각사 폐지** 억불정책을 시행한 연산군 때 원각사를 폐지 폐허가 된 공간에 원각사비, 10층 석탑만 남은 채 방치
대한제국			1897년	**영국인 고문 브라운의 공원 조성 건의** 점유하고 있던 민가 철거, 공원 부지 확보 민가와의 경계를 위한 담장, 북문과 남문 조성
	군악대 도입 독일인 음악가 에케르트 초빙, 군악대 육성	1900년		
	군악대, 탑골공원 남서쪽 건물로 이전		1902년	**탑골공원 개원** 팔각정, 담장, 북문과 남문, 석탑과 대원각사비 주변 정비 대한제국 왕실 소유, 평일에 일반 시민의 출입 제한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야외 연주 매주 목요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 개최	1904년		
	대한제국군 해산 장례원 소속, 제실음악대로 소속과 이름 변경	1907년		
일제강점기			1910년	**총독부로 관리 이관** 정자와 벤치, 화단, 도로, 전등, 수도 등 편의시설 설치 벚꽃과 상록수 식재
	이왕직양악대로 소속과 이름 변경	1911년		
	육군군악대, 이왕가악대 교대로 음악연주		1913년	**일반에 공개 및 야간 개방 (오전 8시~오후11시)**
	3·1 운동 탑골공원 내 팔각정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대한독립만세 시위 운동	1919년		**탑골공원 내 상업시설 도입** 찻집 "청목당" (1914년), 식당 "승리" (1924년)
1960년대 – 현재			1967년	**탑골공원 인근 낙원상가, 아케이드 설치** 투시형 담장설치, 사주문 복원, 탑골공원 유료화
			1983년	**아케이드 철거** 투시형 담장설치, 사주문 복원 탑골공원 무료화(1998년)
	집회, 시위의 장소 민주화, 노동, 인권문제 등	1980-90년대		
	'파고다 공원'에서 '탑골공원'으로 명칭 변경	1991년		
	노인들의 공간 점유 IMF로 인해 노인 이용률 급증 무료급식, 높은 접근성 노인들의 문화를 형성하는 장소	1990년대		
			2001년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 시행** 탑골공원의 상징성 강화를 위한 사업 실시 탑골공원 물리적 형태 변화

[그림 Ⅲ-103] 탑골공원의 역사적 장소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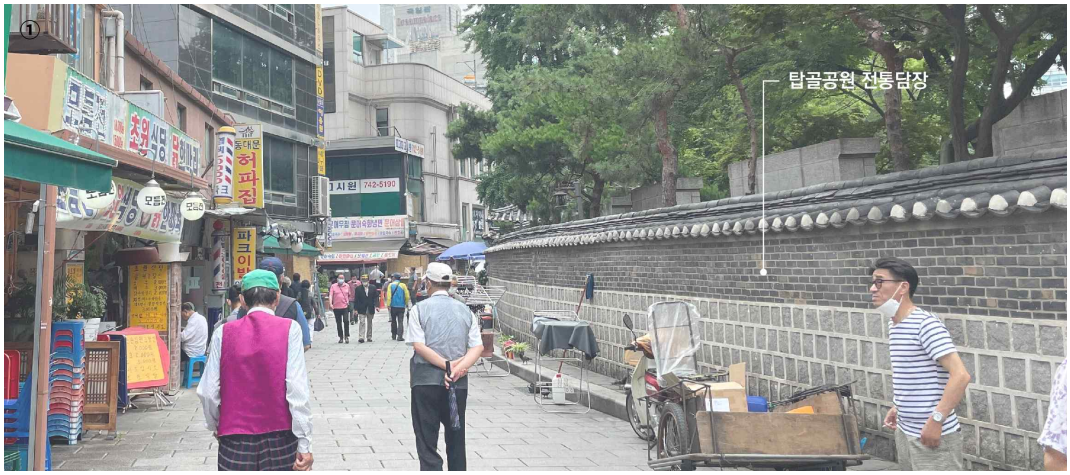
6.4. 탑골공원의 물리적 특징

탑골공원은 도시 중심지에 위치한 공원이지만, 담장이 둘러져 도시공간과 단절된 공간을 형성한다. 탑골공원은 전체 구간에 물리적 접근이 제한되며 정문인 삼일문만 개방하여 출입이 이루어진다. 상업시설과 인접한 공원 동측면은 시각적, 물리적 접근이 모두 제한되는 전통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삼일대로, 종로와 마주하는 면은 시각적 접근은 가능한 석재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1902년 처음 공원을 개원할 당시 민가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적벽돌 담장을 설치하고 북문과 남문을 조성했다.[117] 이후 1983년에 60년대에 설치된 아케이드를 철거하고 담장과 사주문을 복원하여 현재 모습에 이른다. 따라서 탑골공원의 담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리된 공간은 최초의 근대 공원의 물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탑골공원은 현재까지 본래 기능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되는 유형인 도시공원이지만,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개방으로 공간 활용성이 낮은 특징이 있다.



[그림 Ⅲ-104] 탑골공원의 물리적 특징 현황도

117) 김해경, 김영수, 윤혜진 (2013), “설계도서를 중심으로 본 1910년대 탑골공원의 성립과정”,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1(2), p.107



[그림 Ⅲ-105] 시각적, 물리적 접근이 제한되는 전통담장 구간

[그림 Ⅲ-106] 시각적 접근이 가능한 석재 울타리 구간

[그림 Ⅲ-107] 정문(삼일문) 이외에 개방되지 않는 출입구

6.5. 탑골공원의 운영관리 분석

1) 운영관리 체계

탑골공원의 운영관리는 종로구 공원녹지과와 문화과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다. 탑골공원은 공원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내부에 국보와 보물이 보존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와 문화과가 전체 공간에 대해서 함께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탑골공원 공간 전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문화과는 탑골공원 내에 보존된 단위시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에 중점을 둔다. 탑골공원 담당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운영관리 체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Ⅲ-108] 탑골공원 운영관리 체계

> 탑골공원 안에 문화재로 지정된 팔각정, 원각사비, 십층석탑이 있는데 문화과에서 문화재 순찰, 안전관리, 문화재 보수를 한다. 문화과는 단위시설로서 문화재만 관리한다. 나머지 공원 산책로, 녹지, 주변 정비는 공원 녹지과에서 관리한다. 문화과에서는 문화재 관리만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말 그대로 공원만 관리한다. (중략) 공원정비공사처럼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을 필요로 할 때 문화과에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해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
> -종로구 공원녹지과 담당 공무원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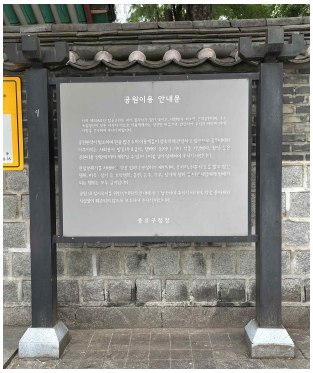
2) 운영관리 업무

탑골공원은 공원 내 관리사무소에 공원녹지과와 문화과 소속 인원이 상주하며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속 행정 직원 1명이 종로구 내 다른 공원과 함께 탑골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관리자

1명과 공공근로 1명이 상주하며 공원 내 수목, 시설 유지관리, 공원 출입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탑골공원에 대한 공원녹지과의 운영관리 업무는 공원의 유지관리에 국한되어 일반 공원과 큰 차이가 없다.

탑골공원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과는 문화정책팀, 문화사업팀, 문화재관리팀, 문화재보존팀으로 구성되며 탑골공원의 관리는 문화재관리팀에서 수행한다. 문화정책팀과 문화사업팀에서 종로구 내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과 행사를 운영한다. 문화재관리팀 소속 행정 직원 1명이 탑골공원 관련 서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공공근로자 10명이 2명씩 조를 이루어 교대로 현장에 상주하며 24시간 관리한다. 이들은 공원 내 보존된 국보, 보물뿐 아니라 3·1운동 기념탑, 손병희선생 동상, 팔각정, 3·1운동 기념부조 등 역사 관련 시설까지 포함하여 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 업무, 주야간 순찰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공원 입구에 공원 이용 안내판을 통해 공원 내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공지하며 이를 어길 시 관람 질서 유지 및 계도 업무를 수행한다.

[표 Ⅲ-29] 탑골공원 이용 안내문

내용	탑골공원 이용 안내판
1. 공원면적이 협소하며 많은 수의 이용객이 정숙하게 관람하고 있으므로 사회봉사활동(무료급식, 캠페인 등), 기타 각종 기념행사, 촬영은 공원 이용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2. 관람 분위기를 저해하는 각종 집회나 연설회 제한 3. 관람 분위기를 저해하는 돗자리, 신문지 등을 깔고 앉는 행위, 바둑, 장기 등 오락행위, 흡연, 음주, 가무, 상거래 행위 등 금지	

[표 Ⅲ-30] 탑골공원 관리주체별 운영관리 업무

관리대상	관리주체	업무내용
탑골공원 및 내부 문화재	종로구 문화과	• 문화재 보호, 관리 • 문화재 순찰 및 야간 경비업무 • 탑골공원 문화재 관련 서무 및 행정업무 • 탑골공원 내 관람객 질서유지 및 계도
탑골공원	종로구 공원녹지과	• 공원 내 수목, 시설물 유지관리 • 공원 출입 관리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 탑골공원 관련 행정 업무

6.6. 탑골공원의 이용관리 분석

1) 문화재 해설

탑골공원은 관리주체인 종로구 공원녹지과 또는 문화과에서 직접 제공하는 문화재 해설 서비스는 부재하지만, 다른 주체에 의해 주변 자원과 연계하여 해설 안내가 제공되고 있다.

먼저 종로구 관광과에서는 종로구 내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골목길 탐방코스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관광객을 안내하며 해설을 제공하는 '종로테마여행'을 운영한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매일 2회 운영되며 참가자 3명당 해설사 1명이 배정되어 해설을 제공한다. 종로구에서 제안하는 25개의 코스 중 익선동코스, 종로 1~4가 코스, 3.1운동길 코스에 탑골공원이 포함된다.[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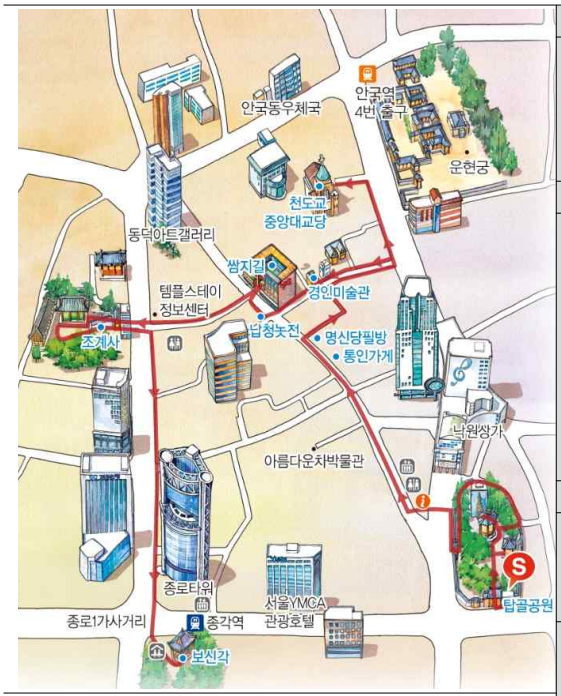
또한 서울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도보해설관광'은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의 주요 명소를 탐방하며 해설사가 전문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궁궐, 왕릉, 한옥마을, 성곽둘레길, 도시재생, 건축&예술, 순례길 등 8개의 테마로 분류하여 총 40개의 코스가 운영되고 있다. 도보해설관광은 평일 2회, 주말 3회 운영하며 예약제로 운영된다. 탑골공원은 인사동 코스에 포함되어 해설 안내가 제공된다[119]

118) 종로테마여행, https://tour.jongno.go.kr/tour/main/contents.do?menuNo=110487
119) 서울도보해설관광, https://korean.visitseoul.net/walking-tour

[표 Ⅲ-31] 종로테마여행 골목길 해설

주관		종로구 관광과
개요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주민들이 직접 골목길 구석구석을 안내하며 역사, 문화, 관광 자원들에 대해 해설을 해주는 종로만의 특화된 해설 프로그램
해설 코스	익선동 B	운현궁 → 오진암 터 → 우리소리도서관 → 익선동 한옥마을 → 어르신친화거리(락희거리) → 실버영화관(허리우드극장) → **탑골공원** → 송해길 → 종로귀금속거리(단성골드 주얼리센터 보석역사관) → 종묘
	종로1-4가	고종 즉위 40년 칭경기념비 → 조계사 → 우정총국 → 인사동길 → **탑골공원 및 원각사지 10층 석탑** → 종묘 → 세운상가 → 청계천 → 관철동 젊음의 거리&지하쇼핑센터
	3.1운동 B	보신각 → 보성사 터 → 태화관 터 → YMCA → 승동교회 → **탑골공원** → 천도교 중앙대교당 (이종일 집 터)
소요 시간		약 2시간~3시간 (코스별 차이 있음)
운영 시간		오전 10시, 오후 2시 (연중)
해설 인원		참여 인원 3명당 해설사 1명씩 배정

[표 Ⅲ-32] 서울도보해설관광



인사동길 코스 지도

주관	서울관광재단
개요	서울의 주요 관광 명소를 서울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을 들으며 도보로 탐방하는 관광 프로그램
코스명	인사동길 코스
도보 코스	**탑골공원** → 통인가게 → 명신당필방 → 천도교중앙대교당 → 경인미술관 → 납청냇전 → 쌈지길 → 조계사 → 보신각
소요시간	2~3시간
운영시간	평일 10시, 14시 주말 10시, 14시, 15시
안내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마인어, 태국어, 수화

2) 이용프로그램 및 행사

탑골공원은 최초의 근대 공원이자 3.1운동의 발상지로 역사적 장소의 상징성이 명확하지만, 관리주체인 공원녹지과와 문화과에서는 탑골공원 내에 별도의 이용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탑골공원의 행사로는 '3.1만세의 날 거리축제'와 '탑골공원 대음악축제'가 있다. 3.1만세의 날 거리축제는 3.1절을 맞이하여 대한독립과 애국선열의 자주독립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최되는 행사이다. 행사는 종로구에서 주최하고 종로문화원에서 주관하며 3.1운동의 발상지인 탑골공원(남인사 마당)을 중심으로 인사동과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대한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보신각 타종, 태극기 물결 행진, 기념 퍼포먼스, 전통 민속 놀이, 문화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120]

탑골공원 대음악축제는 2018년에 대한제국 양악대 창설 117주년을 기념하며 개최된 행사이다. 일제강점기 고종은 서양 각국과 교류를 확대하여 대한제국의 자주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양악대를 조직했고 탑골공원은 양악대가 시민을 위한 정기연주회를 가졌던 장소이다. 이 행사는 서울시가 후원하고 뉴코리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주최하며 탑골공원 내 팔각정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양악대가 당시 탑골공원에서 연주했던 곡 재현, 우리나라 가곡 연주 공연, 양악과 국악의 합주 공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합창단 공연으로 구성된다.[121]

[그림 Ⅲ-109] 3.1만세의 날 거리축제 행사(2019)
자료: 종로구 공식 블로그

[그림 Ⅲ-110] 탑골공원 대음악축제(2019)
자료: 뉴코리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120) 종로구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jongno0401
121) 뉴코리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https://www.newkoreaphil.com/

7. 사적공원 운영관리와 이용관리 분석 종합

7.1. 운영관리 분석 종합

사례 대상지의 운영관리를 분석한 결과 사적공원의 운영관리 체계는 이원화되어 있다. 사적공원은 관리 주체로 관할 지자체 공원 관리 부서와 문화재 관리 부서 또는 문화재청이 있다. 사직공원은 종로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사직단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서 관리한다. 풍납근린공원, 서대문독립공원, 탑골공원은 각 관할구청 공원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내부 문화재는 문화재 관리 부서에서 관리한다. (단 고분군 전체가 공원으로 지정된 석촌동고분군은 송파구 역사문화재과에서 단독으로 관리한다.) 사적공원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으로 결정된 공간은 공원 관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공간은 문화재 관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관리 영역이 명확히 구분된다.

사적공원의 관리 주체는 해당 관리 대상의 보호, 유지관리에 한정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공원 관리 부서는 공원 시설 유지관리에 문화재 관리 부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업무에 국한되어 있다. 각 관할 구청 문화재 관련 부서에는 문화재 보존뿐 아니라 활용을 위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지만,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적공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사적공원은 운영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부서 간 운영관리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지관리에 국한된 소극적 관리에 그치고 있다. 사적과 공원이 중첩된 사적공원의 특수한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새로운 혜택을 창출할 수 있는 운영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7.2. 이용관리 분석 종합

사례 대상지의 이용관리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 해설은 관리 담당 부서, 관할 구청의 타 부서, 비영리 민간단체(혹은 법인),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된다. 사적공원의 관리주체 중 공원 관리 부서에서 문화재 해설을 제공하는 경우는 서대문 독립공원이 있다. 그 외에는 사적공원 관리주체가 아닌 관할 구청 타 부서에서 주변 자원과 연계하여 구성된 코스에 포함된다. 예컨대 종로구 관광과에서 시행하는 '골목길 해설', 송파구 국제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송파문화관광해설'이 있다. 이와 같은 코스형 해설 프로그램은 사적공원이 전체 해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혹은 법인)에서 문화재 해설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직공원과 석촌동고분군이 있다. 해당 문화재에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특정 공원에서만 제공된다는 제약이 있다. 공공기관에 의해 문화재 해설이 제공되는 경우는 서대문독립공원과 탑골공원이 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내부에 도슨트 해설이 제공되며 탑골공원은 서울관광재단이 제공하는 서울도보해설관광 인사동 코스의 일부에 포함된다. 또한 다양한 주체에 의해 제공되는 문화재 해설은 사적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서비스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적공원에 이용객들이 쉽게 안내 정보에 대해 인지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화재 해설은 모든 사적공원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사적공원에 집중된 전문적 해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용프로그램은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을 통해서 운영된다. 따라서 사적공원의 이용프로그램은 해당 사업에 선정된 공원을 대상으로만 제공되며 사례 대상지 중에서 석촌동고분군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용프로그램들은 일시적인 시기에 특정 대상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한계가 있다. 즉 사적공원에는 창의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사적(史蹟)'이라는 콘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이용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사

적공원에 일상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폭넓은 이용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행사는 제례의식을 재현하는 행사, 역사를 주제로 하는 축제, 주민 화합을 위한 축제 및 공연으로 구분된다. 사직공원과 석촌동고분군에서는 제례의식 재현 행사가 개최되며 풍납근린공원에서는 역사 주제와 무관하게 주민 화합을 위한 주민참여 행사를 개최한다. 서대문독립공원에서는 8.15광복, 탑골공원에서는 3.1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여 역사를 주제로 하는 축제가 개최된다. 사적공원에는 역사 주제로 개최되는 행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연 1회 개최된다. 사적공원은 역사 주제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새로운 행사가 개최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림 Ⅳ-111] 사적공원 운영관리와 이용관리 분석의 시사점

[표 Ⅲ-33] 사적공원 운영관리와 이용관리 분석 종합

구분			석촌동고분군	풍납근린공원	사직공원	서대문 독립공원	탑골공원
운영관리	운영 관리 체계	공원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공원녹지과	종로구 공원녹지과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종로구 공원녹지과
		문화재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종로구 문화과
이용관리	제공주체						
	문화재 해설	관리 담당 부서	-	-	-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서대문독립공원 역사문화탐방'	-
		관할 구청 타 부서	송파구 국제관광과 '송파문화관광 해설'	송파구 국제관광과 '송파문화관광 해설'	종로구 관광과 '골목길 해설'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서대문 역사문화 해설'	종로구 관광과 '골목길 해설'
		비영리 민간 단체	송파문화원 '해피송파투어'	-	우리문화숨결-궁궐길라잡이 (사)한국의 재발견	-	-
		공공 기관		-	-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도슨트 해설	서울관광재단 '도보해설관광'
	이용 프로 그램	문화 재청	생생문화재 사업 '백제 부활의 꿈'	-	-	생생문화재 사업 '독립의 별 서대문에서 세계로' 문화재 야행 사업 '별 헤는 밤의 청년들(예정)	-
	행사	문화 재청	-	-	사직대제 (무형문화재) (제례의식)	-	-
		관할 구청	한성백제문화제 '동명제' (제례의식, 역사주제)	바람드리골 한마음축제 (주민화합, 주민참여)	-	서대문독립 민주축제 (역사주제)	3.1만세의날 거리축제 (역사주제)
		외부	-	-	-	-	탑골공원 대음악축제 (역사관련)

Ⅳ. 사적공원 관리 개선방안

1. 사적공원 운영관리 개선방안

사적공원은 문화재인 사적(史蹟)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중첩된 특수한 장소이다. 사적공원은 사적과 공원의 적극적 합성을 통한 활용으로 각 공간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 보다 새로운 혜택을 얻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재인 사적은 공원에서 자연스럽게 활용 기회를 얻어 시민들과 가까워지고 도시의 오픈스페이스인 공원은 사적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공원 활성화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공원 관리 부서와 문화재 관련 부서로 이원화된 사적공원의 운영관리체계는 관리주체가 사적공원에 대해 소극적인 유지관리에 머무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절에서는 운영관리 차원에서 사적공원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1. 서울시 내 사적공원을 관리하는 통합운영 협의체 구성

현재 서울시 사적공원은 사적과 공원의 운영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각 부서 간에 사적공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협의 및 논의 과정은 부재하며 각 관리 대상의 유지관리에 한정된 업무 위주로 수행한다. 이러한 사적공원의 운영관리체계는 각 부서에서 해왔던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사적공원의 공간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혜택을 창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적공원에서는 문화재 관련 부서와 공원 관련 부서가 각 공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관리 협업체계를 통해 각 공간의 개별 가치뿐 아니라 두 공간이 공존하면서 제공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적공원은 일반공원 운영관리체계에서 독립된 별도의 조직에서 전담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관할 구청 관련 부서(공원, 문화재), 문화재청

으로부터 독립되어 사적공원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조직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존 공원 행정 시스템에 국한되지 않고 사적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운영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한다.

[그림 Ⅳ-112] 서울시 사적공원 통합운영 협의체 조직도(안)

사적공원 통합운영 협의체는 사적공원 운영관리부, 시설관리부, 이용관리부, 연구부로 구성한다. 해당 조직은 공원 관련 전문가와 문화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먼저 운영관리부는 사적공원의 행정, 예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시설관리부는 사적공원 내 시설 유지관리 업무,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업무, 사적공원 내 문화재 정비사업, 공원 조성계획변경을 수행한다. 이용관리부는 사적공원에서 제공할 문화재 해설, 문화재를 활용한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사적공원에서 개최할 행사를 기획, 운영한다. 문화재 활용 분야 전문가와 공원 프로그램 전문가가 함께 협업하여 각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연구부에서는 사적공원 내 사적의 학술 연구를 지원하고 사적공원의 활용에 대해 이용자 분석, 서비스 만족도 분석, 문화재 인식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적공원의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그리고

사적공원은 사적 유형별로 관리소를 운영하여 사적의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기존 공원 행정 시스템으로부터 독립되고 문화재와 공원 관련 인력으로 구성된 통합운영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관련 전문가가 협업하여 적극적인 활용을 지향할 수 있는 환경 마련된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 구성을 통해 개별 사적공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전반적인 사적공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2. 민간단체와 적극적 협력을 통한 사적공원 운영관리

일부 사적공원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문화재 관련 민간단체에서 문화재 보호와 홍보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문화재 해설, 문화재 지킴이,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해당 사적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문화재 관련 민간단체는 특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에 해당하는 행정 기관보다 더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다수의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 실행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적공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문화재 해설, 이용프로그램, 행사)를 개발, 운영할 때 민간단체와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사적공원 통합운영협의체의 이용관리부에서 민관 협력 방식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더욱 창의적인 콘텐츠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민간단체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일반인에게 역사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과 요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과정뿐 아니라 운영과정까지 협업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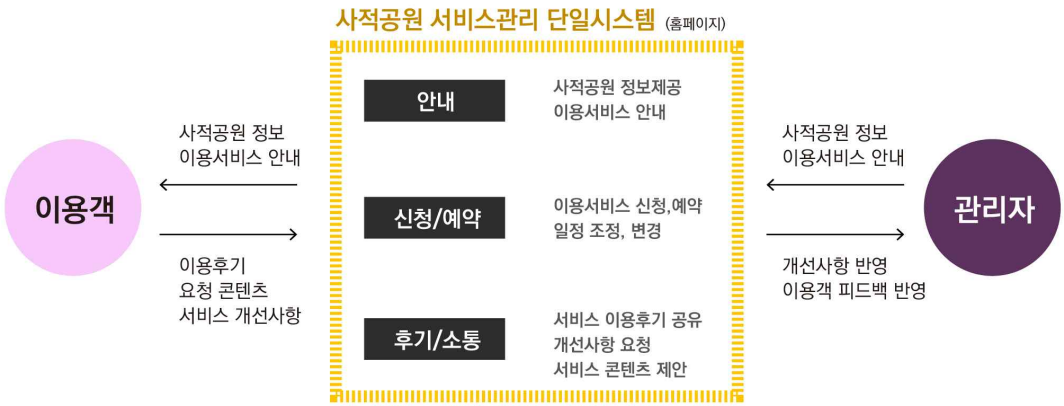
[그림 Ⅳ-113] 통합운영협의체와 민간단체의 협력구조

1.3. 사적공원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단일 시스템 구축

현재 사적공원에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 문화재 해설, 이용 프로그램, 행사가 제공되면서 정보가 흩어져 있다. 공원 이용객들은 개별적으로 사적을 검색하여 안내 및 이용프로그램 서비스의 유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 사적공원의 운영관리 주체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설 서비스에 대한 안내조차 부재하다. 즉 현재 사적공원의 운영관리 시스템은 시민들이 서비스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용하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통합운영협의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단일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적공원 통합운영협의체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적공원의 서비스(문화재 해설, 이용 프로그램, 행사)에 대

한 안내, 신청 및 예약, 이용객 후기, 소통 게시판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시민들은 방문 예정인 사적공원을 검색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후에 후기를 남길 수 있으며 소통 게시판을 통해 사적공원 관리자에게 개선사항을 남길 수 있다.

사적공원의 서비스를 단일 시스템으로 관리하면서 시민들은 더욱 쉽게 사적공원 서비스를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 후기를 공유하면서 사적공원 프로그램 관리자와 이용객 사이에 즉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며 이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적공원에서 이용객 만족도와 활용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Ⅳ-114] 사적공원 서비스관리 단일시스템 제안

2. 사적공원 이용관리 개선방안

사적공원에서 사적이 고립된 시설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용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사적공원에 문화재 해설과 이용프로그램이 일상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들이 사적공원을 즐겨 찾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적공원은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로 일반 공원과 차별화가 가능하다. 또한 사적 역시 단독으로 존재할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용관리 차원에서 사적공원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2.1. 이용대상의 특징에 따른 맞춤형 문화재 해설 제공

문화재 해설은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대중들이 쉽게 문화재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적공원에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재 해설이 일상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사적공원은 사적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보다 더욱 다양한 계층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장소이기에 이용대상의 특징에 맞는 맞춤형 해설을 제공했을 때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용대상의 연령, 관련 분야 지식의 정도에 따라 전문성, 해설 내용, 전달 방법에 차이를 두어 가장 효과적인 해설을 제공한다. 먼저 어린이(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 청소년(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 성인(전문가/비전문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해설은 전문적인 지식 전달 보다는 놀이와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문화재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해설은 역사적 배경을 함께 설명하며 전체 맥락에서 문화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하여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

화재 해설은 관련 분야 지식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해설을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관련 분야 전공자, 연구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하고 최근 학계에서 해당 문화재에 관해 논의되고 있는 쟁점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이 높은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용대상의 특징에 따라 제공되는 문화재 해설은 다양한 계층이 공원을 방문하도록 유도하여 사적공원의 활용성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이 문화재를 친근하게 인식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문화재의 가치가 후대에 전달될 수 있는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어린이 대상 문화재 해설	**신청 대상** 5세 이상~10세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 단위 **문화재 해설 구성** 사적공원 문화재를 주제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 어린이가 놀이와 체험을 통해 문화재에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
청소년 대상 문화재 해설	**신청 대상** 11세 이상~19세 이하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 단위 **문화재 해설 구성** 역사적 배경을 함께 설명하여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공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 구성 사적공원 현장에서 문화재를 직접 경험하여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
성인 대상 (전문가) 문화재 해설	**신청 대상** 관련 분야 전공자, 연구원, 관계자 **문화재 해설 구성**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 위주로 해설 구성 최근 학계에서 해당 문화재에 관해 논의되고 있는 쟁점을 함께 논의하는 프로그램 함께 구성 목표가 명확하여 전문성이 높은 해설 구성

[그림 Ⅳ-115] 이용대상 맞춤형 문화재 해설 구성(예시)

2.2. 문화재 개방을 통해 사적공원만의 이용프로그램 제공

사적공원에서 문화재인 사적은 울타리로 둘러져 물리적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문화재를 훼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원에서 분리된 공간을 형성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간의 폐쇄와 사람 손길이 닿지 않게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사고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폐쇄적인 문화재 보존 방식이 아니라 문화재 개방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보존을 실현하려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재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방을 통해 사람의 손길이 닿고 시민들이 친근하게 문화재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문화재를 대중들에게 개방했을 때 과거에 사용되었던 문화재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며 오감으로 직접 느껴지는 공간감과 함께 문화재의 가치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더욱 강렬하게 수용하게 된다.

현재 사적공원에서는 사적을 폐쇄적이고 제한된 환경에 남겨두는 경우가 많으며 시민들이 사적공원에서 문화재를 직접 경험하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와 중요성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사적공원에서 문화재 개방을 통한 적극적 이용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 대상지 중 사직공원과 풍납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예시적 이용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먼저 사직공원은 사직에 제를 올리던 제단인 사직단을 포함한다. 제례시설의 특징에 따라 여러 겹의 담장으로 둘러진 사직단을 개방하여 제례의식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사직단과 함께 대표적인 제례시설인 종묘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풍납근린공원은 한성백제 시대에 국방시설로 사용된 문화재로 풍납동 토성 북벽 구간을 포함한다. 풍납근린공원에서 풍납동 토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과거 토성 위에서 풍납동 일대를 조망하고 한성백제 역사교육을 시행하는 이용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사적공원에서 문화재 개방을 통한 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상시 개방이 아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에 한정하여 일상적 훼손을 최소화 해야 하며 개방 후에 지속적으로 문화재 보존 상태를 점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사적공원에서는 시민들은 문화재의 공간감, 장소성을 더욱 강렬하게 경험하며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사적공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화된 이용프로그램으로 일반 공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적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보다 효과적인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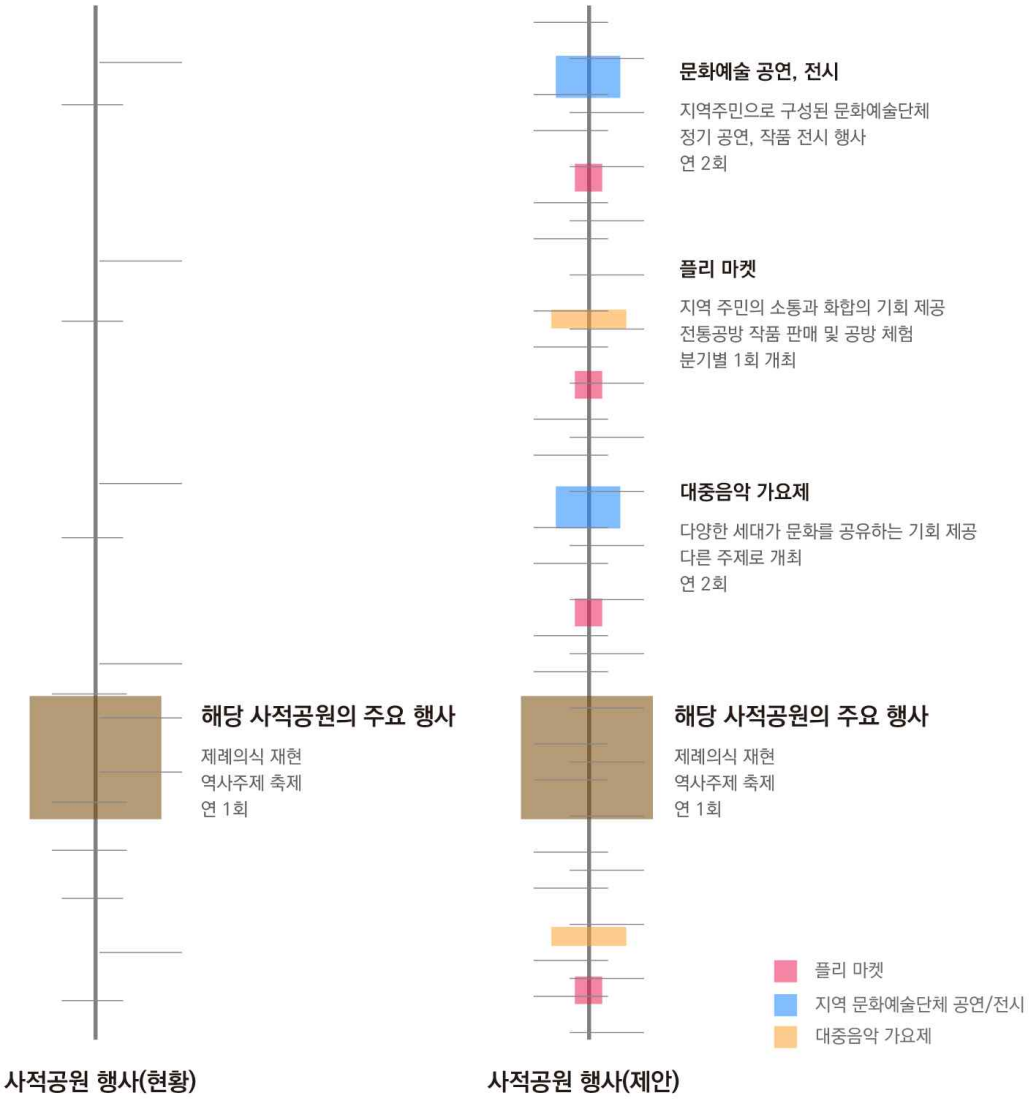
2.3. 역사 주제와 함께 현세대 문화를 주제로 하는 소규모 행사 개최

문화재는 역사 흔적을 담고 있는 유산으로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소중하게 보존하면서 다음 세대에 전승된다. 다시 말해 문화재는 현시대 사람들이 가치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진정한 의미의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 실현된다. 따라서 문화재는 현대에 적극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문화적 기회가 일반 대중들에게 자주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운데 사적공원은 문화재인 사적과 도시의 공공공간인 공원이 중첩되어 문화적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사적공원 내 사적은 역사적 장소로서 과거 특정 기능을 수행하며 사용되었던 공간이지만, 현재는 대부분 본래 기능을 상실한 공간으로 남겨진다. 장소의 역사성이 명확한 사적공원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중들에게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전달하고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사적공원은 시민들의 일상적 문화 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 사적공원에는 대부분 제례 의식 재현,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 형태의 행사가 연 1회 개최된다. 역사 주제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문화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 기획이 필요하다. 소규모 행사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의 공연과 작품 전시 행사, 플리마켓, 대중 음악 가요제 등을 개최하여 현세대의 문화를 생산, 소비, 공유할 수 있다. 해당 사적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제례 의식 재현 및 축제는 연 1회 대규모로 개최하고 그사이에 다양한 주제를 가진 소규모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다양한 주제의 행사가 사적공원에서 개최되면 역사적 장소였던 사적을 현대 시민들의 문화 향유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사적이 과거에 박제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적공원의 사적은 자연스럽게 현시대에 공존하게 되면서 대중들이 문화재를 친근하게 인식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림 Ⅳ-116] 사적공원 행사 기획(예시)

3. 공원별 세부 개선방안 제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적공원은 각각의 고유한 장소 맥락 속에 존재한다. 사적공원의 물리적 환경, 공간의 성격은 장소마다 쌓여있는 여러 시간의 층이 집적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따라서 사적공원의 장소 맥락은 일반 공원과 사적공원을 구별해주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적공원은 같은 범주 안에 있어도 각각의 공원마다 고유한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공원의 장소 맥락을 고려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을 진행한 사례 대상지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3.1. 석촌동고분군의 개선방안

석촌동고분군은 고대 국가의 무덤이 모여있는 사적으로 초기 백제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유적이다. 엄격하게 관리되는 조선시대 궁, 능, 묘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환경으로 정비되어 시민들의 생활 속에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주거밀집지역 내 위치한 석촌동고분군은 일반적인 공원 이용 행태에 그치면서 사적공원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석촌동고분군에 적합한 역사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어 문화재와 공원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1) 고대국가의 역사적 콘텐츠를 활용한 맞춤형 역사교육 서비스 제공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을 고려하여 인근 지역 주민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 서비스 제공을 제안한다. 공원 내 보존된 고분들을 활용하여 고대국가의 역사적 내용을 콘텐츠로 구성하며 연령별, 그룹별 특징에 맞도록 전달 방식에 차별화를 둔다. 예컨대 유아를 포함하는 가족 단위 그룹에는 이야기와 놀이 방식으로 구성하고 청소년으로 구성된 그룹에는 흥미를 유발하면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때 송파구 역사문화재과와 국제관광과 그리고 문화재 관련 민간단체가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지속적으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산책, 휴식, 관람 등 수동적 이용 방식이 아닌 경험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석촌동고분군은 일상 속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성화 될 수 있다.

석촌동고분군의 역사 교육 프로그램

신청 대상 : 남녀노소 누구나 (권장: 유아를 포함하는 그룹, 청소년으로 구성된 그룹)

관리 주체 :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국제관광과, 문화재 관련 민간단체로 구성된 통합운영 협의체

프로그램 : 석촌동고분군에서 고대 국가인 백제의 역사와 더불어 삼국시대의 역사 교육을 시행
그룹별 특징에 따라 흥미를 유발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

운영 시기 : 상시 운영 (프로그램 예약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프로그램 A

놀고 만들면서 배우는 역사 이야기

(권장) 신청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프로그램 구성 방식
놀이, 만들기, 체험하기, 스토리텔링, 연극 등

세부 프로그램
- 석촌동고분군 탐험하기
- 백제 문화를 듣고 보물찾기
- 유물 발굴 모의 체험하기
- 백제시대 사람으로 변신하기(옷, 장신구 만들기)
- 백제 왕이 들려주는 삼국시대 이야기

프로그램 B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의 살아있는 현장

(권장) 신청 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프로그램 구성 방식
교과과정과 연계한 문화재 해설

세부 프로그램
- 삼국시대 역사문화기행
- 전문가에게 듣는 석촌동 고분군의 발굴 이야기
- 유물 발굴 현장 체험하기
- 석촌동 고분군 문화재 해설 체험
- 역사 교과서 내용과 연계한 현장 교육

[그림 Ⅳ-117] 석촌동고분군의 역사 교육 프로그램 구성(예시)

3.2. 풍납근린공원의 개선방안

풍납동 일대에 위치한 풍납동 토성은 초기 백제 왕성으로서 당시 역사, 문화를 추측할 수 있는 고고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 가운데 풍납근린공원은 풍납동 토성 북벽 구간을 포함하여 독특한 경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공간 활용으로 일반 공원과 다를 바 없는 장소에 머물러 있다. 풍납근린공원은 공원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면, 더욱 가치 있는 장소로 활용되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풍납근린공원 내 풍납동 토성 개방을 통한 이용 프로그램 마련

공원 내 풍납동 토성 북벽 구간은 울타리로 둘러져 공원에서 분리된 형태이다. 하지만 풍납근린공원의 토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풍납동 일대의 역사적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장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풍납근린공원 내 문화재 개방을 통해 다른 공원과 차별화된 이용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도시지역 규모의 사적인 토성의 공간감을 방문객들이 직접 경험한다면, 고대 국가의 토성에 대해 쉽게 상상할 수 있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와 보존의 필요성을 진정성 있게 수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풍납동 토성 북벽 구간의 물리적 접근 제한을 완화하여 일상적 접근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방하고 토성 위에서 풍납동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구간을 조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풍납동 일대에서 발굴되는 유물, 유적에 대한 설명과 초기 백제의 모습에 대한 전문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풍납근린공원은 도시에 공존하는 풍납동 토성의 모습을 새로운 각도에서 경험하는 공간이 된다. 수동적으로 전달되던 역사적 내용을 시민들이 직접 공간을 경험하며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그림 Ⅳ-118] 물리적으로 분리된 풍납동 토성(현황)
자료: 필자 촬영

[그림 Ⅳ-119] 풍납동 토성 북벽구간 (현황)
자료: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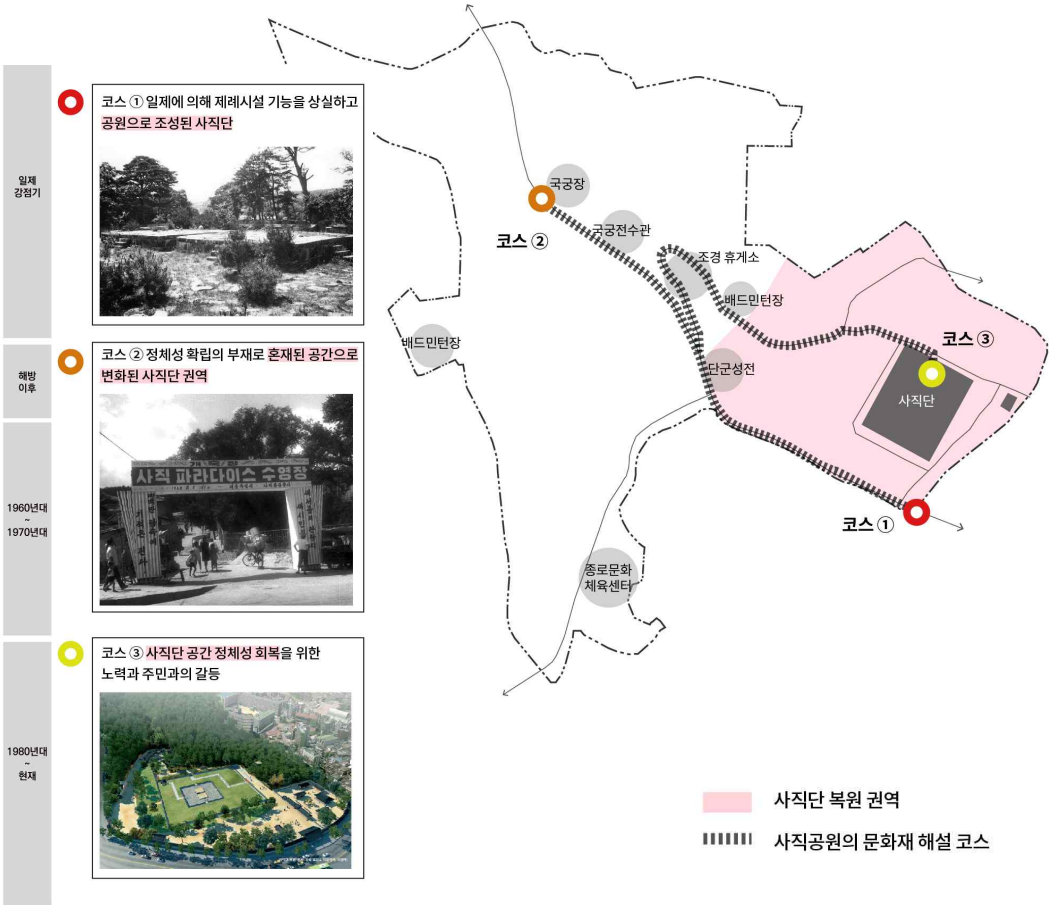
[그림 Ⅳ-120] 풍납근린공원 개선방안 적용(예시)

3.3. 사직공원의 개선방안

일제에 의해 사직단 본래 기능이 상실되고 신성시 여겨졌던 장소가 위락의 목적을 가진 공원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사직단과 사직공원의 공간 구분은 명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사직공원은 사직단 권역의 복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직단을 포함한 문화재 공간과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근린공원으로서 혼재된 공간이 구분되어 역사성이 부각되는 환경으로 정비될 것으로 판단된다. 복원되는 사직단 영역은 역사적 중요성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사직공원의 다층적 맥락을 활용할 수 있다.

1) 사직공원의 다층적 맥락을 포함하는 문화재 해설 제공

사직공원은 공간의 정체성이 극적으로 변화하여 공원과 사적의 정체성이 혼재되어 있었다. 사직공원은 제례 의식 공간인 '사직단'으로서 정체성을 중심으로 복원되지만, 현재까지 공원으로 사용되어온 역사도 사직단의 정체성 중 하나이다. 사직단은 일제에 의해 기능을 상실한 채 공원으로 조성되고 해방 이후에도 문화 유산의 가치가 인식되지 못하고 개발되었다. 시민들이 이러한 장소 맥락을 이해한 후 본래 모습으로 복원된 사직단 권역을 경험한다면, 그 가치와 소중함을 더욱 생생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사직단 권역의 복원 이후, 장소 맥락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문화재 해설 서비스 운영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일제에 의해 폐지된 사직대제, 공원으로 조성되며 훼손된 사직단, 해방 이후 도시공원으로 사용되었던 역사로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편적으로 한 시대에 관한 내용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간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게 하면서 복원된 사직단의 가치와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림 Ⅳ-121] 사직공원 문화재 해설 구성(예시)

2) 사직대제(社稷大祭)와 함께 현세대의 문화 공유를 위한 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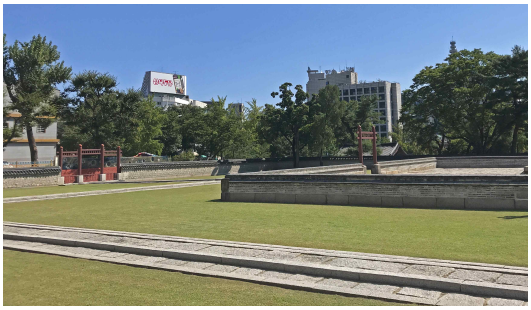
사적지에서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개최되는 행사는 해당 사적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행사를 통해 사적의 본래 기능, 역사적 내용, 가치를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사직공원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직대제(社稷大祭)가 연 1회 개최되며 시민들이 사직단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직공원은 사직단을 대표하는 행사인 사직대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 공유의 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예컨대 사직단 권역에서는 공식 행사인 사직대제가 개최되고 이와 함께 사직공원 영역에서

는 종로구 지역 주민들이 생산하는 문화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전시 및 공연 또는 사직공원의 역사를 주제로 하는 콘서트 등 행사를 함께 운영할 수 있다. 이로써 사직단이 본래 기능은 상실되었지만, 제례 의식 재현행사와 현세대의 문화 생산과 공유가 함께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이때 사직단 관리주체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사직공원 관리주체인 종로구 공원녹지과, 문화과가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지속적으로 양질의 행사를 기획·운영하게 되면서 사직공원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122] 물리적으로 분리된 사직단(현황)
자료: 필자 촬영



[그림 Ⅳ-123] 사직단 내부 (현황)
자료: 필자 촬영

[그림 Ⅳ-124] 사직공원 개선방안 적용(예시)

3.4. 서대문독립공원의 개선방안

서대문독립공원은 다양한 역사적 맥락이 모여 공원으로 조성되었고 독립과 저항에 대한 상징성이 집적된 장소다. 다양한 사적이 모여 공원을 형성하고 있는 특징으로 인해 서대문독립공원에는 문화재 해설, 역사를 주제로 한 이용 프로그램, 독립민주축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대 건축물인 구 서대문형무소는 역사관으로 활용되어 시민들에게 역사교육 및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역사적 사실 전달 위주의 전시를 넘어 다양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확장하여 더욱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

1) '인권'을 주제로 한 콘텐츠 확장으로 서대문형무소의 가치 향상 도모

구 서대문형무소는 일제 강점기 독립 운동가들이 수감되어 고통받고 저항했던 공간이면서 1960~70년대 군부정권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장소이다. 현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일제의 만행과 독립지사들이 겪었던 고통을 사실적으로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다. 해당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실제 현장이었던 공간에서 독립운동가들이 겪은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는 일본에 대한 분노와 증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받은 고통에 대해 기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서대문형무소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권을 주제로 전시 콘텐츠 및 문화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장소의 의미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 일제가 독립 운동가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자행했던 폭력적 행위를 역사적 맥락을 너머 인류적 맥락에서 해석하여 인간성이 상실되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러한 장소 콘텐츠의 확장은 서대문형무소를 단순히 역사적으로 일본의 폭력이 이루어졌던 장소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구 서대문형무소의 가치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3.5. 탑골공원의 개선방안

탑골공원은 도시공원으로서 다양한 장소 맥락을 담고 있는 공간이지만, 90년대부터 노년층과 노숙자가 점유하는 공간이 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탑골공원의 상징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성역화 사업이 이루어졌다. 도심지에 위치한 탑골공원이 기념 공간화되면서 주변과 단절되어 폐쇄성이 높고 머무르기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공간의 형태를 띠게 되었고 도시공원으로서 기능은 더욱 저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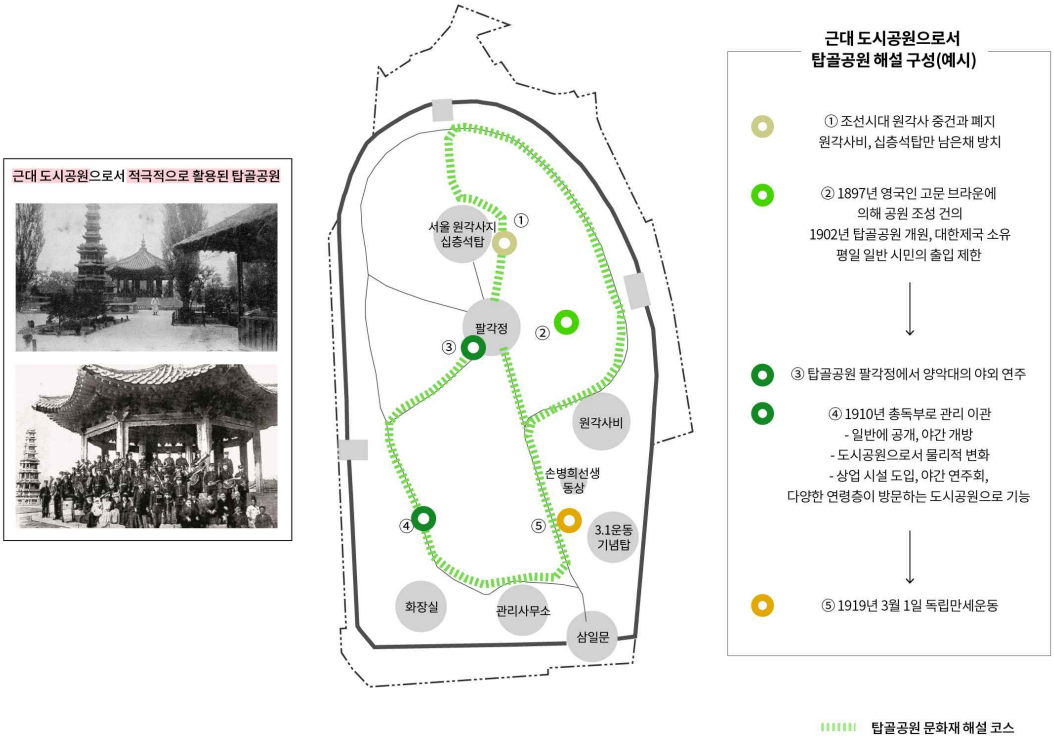
대부분의 사적 유형은 본래 기능을 상실하지만, 공원은 현재까지 본래 장소의 기능이 유지되며 도시 공공공간으로서 역할이 유효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시공원이 되어 자연스럽게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질적 가치인 공원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사적과 공원이 공존함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 즉 탑골공원은 도시공원으로서 기능이 유지될 때 사적지로서 가치도 실현될 수 있다.

1) 공원으로 사용된 탑골공원의 역사를 포함하는 문화재 해설 제공

탑골공원은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저항과 독립을 상징하는 장소성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탑골공원의 다양한 모습을 조명하기보다 주로 일제에 저항하고 독립을 외쳤던 장소로 상징성을 부각시켜왔고 성역화를 통해 경건하고 엄숙한 기념 공간 형태를 지향하였다. 자연스럽게 도시공원으로서 탑골공원의 역사와 기능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못했다.

탑골공원이 일제에 의해 개방된 이후 대중들이 활발히 이용한 모습, 당시 공원 문화, 시대에 따른 탑골공원의 역할 변화 등 근대 공원으로서 역할 했던 탑골공원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해설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근대 도시공원으로서 당시 사람들이 활발히 이용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탑골공원의 장소적 의미가 확장하게 된다. 기존에 탑골공원을 대표하던 상징적 의미에 일상적으로 사용된 공원의 의미가 더해지면서 현대 시민들은 탑골공원을 친근하게 느끼

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근대 사람들이 공원으로 사용했던 장소를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는 점은 개인적 관점에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스스로를 인식하게 하고 장소에 애정을 갖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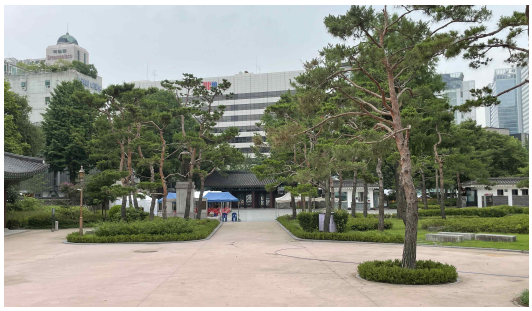
[그림 Ⅳ-125] 탑골공원 문화재 해설 구성(예시)

2) 고유한 장소 맥락(최초의 양악대 연주)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행사 기획

탑골공원은 3·1운동의 발상지로서 갖는 상징성 이외에 다층적 장소 맥락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낼 때 공원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다. 예컨대 탑골공원의 다양한 역사 맥락 중 '최초로 서양음악이 연주되었던 장소'라는 관점에서 탑골공원의 의미와 가치를 고려하여 공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서양음악을 연주했던 최초의 양악대는 탑골공원 내에 머무르며 팔각정에서 야외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국가 행사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위한 연주도 개최하여 탑골공원에서 문화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이처럼 다양한 계층이 즐겨 찾으며 예술적 요소인 음악

이 결합되었던 장소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탑골공원을 지역 문화단체와 함께 문화의 생산, 교육,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기획할 수 있다. 이때 종로구 공원녹지과와 문화과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업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때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최초의 서양음악이 연주되었던 장소로서 탑골공원은 현대 시민들의 문화 생산과 공유의 장소로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면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림 Ⅳ-126] 팔각정에서 바라본 탑골공원(현황)
자료: 필자 촬영

[그림 Ⅳ-127] 탑골공원 팔각정(현황)
자료: 필자 촬영

[그림 Ⅳ-128] 탑골공원 개선방안 적용(예시)

Ⅴ. 결론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문화재와 도시공원이 중첩된 사적공원에서 운영관리가 이원화되고 이용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사적공원 운영 및 이용관리 분석에 앞서 사적공원의 가치와 지향점을 파악하고 공원관리 개념, 관련 제도를 통해 사적공원 관리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내 사적공원 중 각 사적의 유형을 대표하는 석촌동고분군, 풍납근린공원, 사직공원, 서대문독립공원, 탑골공원을 사례대상지로 선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대상지의 담당 공무원, 현장 관리자 인터뷰, 현장조사, 문헌 연구를 통해 운영 및 이용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적공원의 운영관리는 사적과 공원에 대한 운영 주체가 이원화되어 부서 간 운영관리 차원의 논의는 부재하며 유지관리에 국한된 소극적 관리에 머무르고 있다. 공원 관리 부서는 공원 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일반공원의 운영관리와 차이가 없다. 또한 문화재 관련 부서는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 정비 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문화재 활용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지만 관할 구 전체를 대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적공원의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적공원의 특수한 환경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공원과 차별화된 운영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적공원의 이용관리는 문화재 해설, 이용프로그램, 행사로 구분하여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첫째, 사적공원의 문화재 해설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 제공되면서 특정 공원에만 풍부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점, 전체 해설 코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해설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공원 이용객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문화재 해설은 대중들에게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모든 사적

공원에는 문화재 해설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해설 서비스를 이용객들이 쉽게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적공원의 이용프로그램은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선정된 공원에 한정해서 운영된다는 점, 운영시기가 일시적이며 가족단위, 어린이 등 제한적인 그룹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는 점이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사적공원에는 문화재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이용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사적공원의 행사는 역사 주제에 한정된 행사 위주로 구성되는 점, 연 1회로 낮은 빈도를 보이는 점이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사적공원은 역사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가능한 장소로 활용되어야 한다.

분석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적공원의 전반적인 운영 및 이용관리 개선방안과 공원별 세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사적공원의 운영관리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서울시 도시공원 체계에서 독립되어 사적공원만 별도로 관리하는 통합운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또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문화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재 해설, 이용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창의성과 실행력,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사적공원에서 제공하는 이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관리자와 소통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사적공원의 이용관리는 일상적으로 문화재 해설, 이용프로그램이 제공되고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행사가 개최되어 시민들이 사적공원을 즐겨찾게 되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계층이 방문하는 사적공원에서는 문화재 해설을 어린이, 청소년, 성인(전문가/비전문가)으로 세분화하여 각 그룹의 특징에 맞도록 전문성, 해설내용, 전달 방식에 차이를 두어 구성한다. 또한 문화재를 대중들에게 개방했을 때 더욱 강렬하게 공간감을 경험하면서 문화재를 이해하게 되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진정성 있게 수용할 수 있다. 사적공원에서는 문화재 개방과 함께 이용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사적공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서 차별화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역사 주제뿐 아니라 현세대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행사를 함께 개최하여 사적공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역사 주제를 가진 주요 행사를 연 1회 개최하고 나머지 기간에 현세대의 지역 기반 문화예술단체 공연, 작품 전시, 플리 마켓, 대중음악 가요제 등이 개최되면 사적공원은 과거에 박제된 공간이 아니라 과거와 현대를 연결하고 문화의 생산, 공유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사적공원에서 이용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제공되면 시민들이 사적공원을 자주 찾게 되면서 사적과 공원의 가치가 모두 향상되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문화재인 사적은 현대인들에게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해당 시대와 공존해야 한다. 공원은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로서 시민들이 즐겨 찾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가치 있게 사용된다. 이 가운데 사적공원에서 사적은 공공공간인 공원의 특징을 통해 대중들에게 가까워지고 활용될 기회를 쉽게 제공할 수 있고 공원은 문화재인 사적의 특징을 통해 일반 공원과 차별화되고 문화재를 콘텐츠로 다양한 이용 서비스를 구성하여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적공원은 사적과 공원이 중첩되어 각 공간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 보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현재 문화재와 공원 각각의 관성적 관리 방식에 머무르며 사적공원의 특수성을 활용한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 분야에서는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고 대중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 문화재 활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조경 분야에서는 2005년 제정된 역사공원이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도시공원의 다양화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와 도시공원이 중첩된 사적공원에서 두 공간의 상생을 위해 합리적인 운영 및 이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2. 연구 시사점과 한계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는 시사점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 사적공원의 운영 및 이용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사적공원의 운영관리 체계, 업무 그리고 문화재 해설, 이용프로그램, 행사 현황을 분석하여 운영 및 이용관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문화재인 사적과 도시의 오픈스페이스인 공원의 공간적 가치 향상에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적공원은 두 관리 주체에서 공간의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혜택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공원은 관성적으로 적용되어온 관리 방식에 의해 일반 공원과 다를 바 없는 공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재와 도시공원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각 공간의 본질적 가치가 향상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역사를 주제로 하는 공원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운영 및 이용관리 차원에서 제안하였다.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공원들을 주제에 맞게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공원 종류의 다양화는 비슷한 공원의 양적 증가에서 벗어나, 각 공원의 주제를 부각하여 공간의 가치를 향상하는 효과가 있다. 역사공원은 일반 공원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사적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방점을 두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공원이 적극적으로 이용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갖춰져야 한다. 다시 말해 공원에서 휴식, 감상, 산책 등 수동적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이용객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다채로운 경험이 가능할 때 실질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적공원의 다층적 장소성과 역사 콘텐츠를 고려한 운영 및 이용관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편, 본 연구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첫째, 서울시 사적공원 중 일부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기에 모든 사적공원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통해 다른 지역의 사적공원을 대상으로 공간의 활용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적공원을 실제로 사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는 제공하지 못했다. 향후 사적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수요와 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적공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시한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향후 도시공원과 문화재의 운영관리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차원의 검토를 바탕으로 실제 사적공원에 적용되어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대일(2006) “문화유산 보존의 개념과 보존 이론”,『보존과학회지』, 19, pp.99-112.

강병옥(2011) 『5.18역사공원 기본계획:광주기무부대 이전지를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신용(1995)『한국근대 도시공원사』, 도서출판 조경.

고영권(2016) 『서울시 역사공원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길지혜, 박희성, 박재민(2016) “국내 역사공원의 지정 및 조성 경향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44(2), pp.130-142.

김기욱(2018)『매장문화재 보존·활용을 위한 역사공원 조성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보애(2006) 『도시공원의 문화예술프로그램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서린, 김해경, 박미현(2014) “근대 사직공원의 형성과 변천”,『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4), pp.120-131.

김성태, 박소현, 권영상 (2018) “서대문 독립공원 변천과정을 통해 본 도시 문화자산의 가치 인식 변화”,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9(4), pp.25-39.

김수자(2020), “사직공원 조성과 사직단을 둘러싼 '개발'과 '문화재보호' 담론의 대립_일제시기부터 1960년대를 중심으로”,『한국문화연구』, 38, pp.137-170.

김영모(2012) “역사유적의 설계적 가치와 활용방안”,『한국조경학회 발간 정보지』, 16, pp.8-11.

김원주(2007)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방안』, 서울연구원.

김원주(2015)『서울시 역사공원에 역사의 色 입히기』, 서울연구원.

김은남(1994) “성역인가 공원인가 : 독립문, 서대문 독립공원”, 『한국논단』, 54(1), pp.160-167.

김주석(2016) “도시 속 문화재방재에 있어 민·관·학 협력의 필요성”,『문화재방재학회』, 1(1), pp.17-27.

김해경, 김영수, 윤혜진(2013) “설계도서를 중심으로 본 1910년대 탑골공원의 성립과정”,『한국전통조경학회』, 31(2), pp.103-117.

류호철(2014) “문화재 활용의 개념 확장과 활용 유형 분류체계 구축”, 『문화

재』, 47(1), 63, pp.4-17.
류호철(2017) “문화재 활용 정책에 관한 거시적 평가와 새로운 활용 정책 방향 모색”,『동아시아고대학회』, 47, pp.327-356.
미셸 푸코 저, 오생근 역(2003),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박승진(2003) “탑골공원의 문화해석”,『한국조경학회지』, 30(6), pp.1-16.
손재현(2014)『대구시 역사공원 이용행태 및 시민의식 조사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서경(2010) 『덕수궁(경운궁)일대의 역사공원 설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희권(2014) “고고유적 활용 방안 연구”,『야외고고학』, 19, pp.281-301.
안계복(2001) “역사공원의 개념과 정비유형에 관한 연구”,『한국전통조경학회지』, 19(2), pp.1-14.
이난경, 양승우(2016) “역사문화환경으로서 서울 풍납동 토성 일대의 도시형태 특성 연구“ , 『서울학연구』 (62), pp.92-150.
이완건(2014) “도시경관 자원으로서 건축문화재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3(1), pp.69-77.
이재준 외4명(2004) “도시공원녹지 제도 및 관리체계 개편방안”,『도시정보지』, 12월호.
이진우(2018) 『문화유산 활용의 이론과 활성화 체계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학춘(2017) “법체계적 관점에서의 문화재 관련 법규의 재검토”,『법학연구』, 20(2), pp.129-157.
이현주(2015) 『도심부 매장문화재 활용을 위한 공간계획_서울 도심 재개발구역 발굴유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창준(2009) 『제일모직 공장 이전부지의 역사공원 설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헌주, 태지호(2016) “근대의 기억 표상으로서 <서대문독립공원>”,『정신문화연구』, 39(2), pp.207-236.
조경진(2010) “공원, 도시의 희망”(조경비평 봄, 『공원을 읽다』), 나무도시, pp.242-267.
조교환(2010), 『서울특별시 관할 목조건조물 문화재의 보전과 활용』,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세호, 김영민(2019) “경성부 도시계획서 상의 공원녹지 개념과 현황의 변화

양상”,『한국조경학회지』, 47(2), pp.117-132.
조한솔(2012) “도시공원과 공공복지 인프라의 통합적 연계 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미옥(2009) 『선농단 역사공원 계획 및 설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성미(2016) “탑골공원의 장소 정체성에 대한 연구”,『한국조경학회지』, 44(3), pp.25-36
허재희, 김아연(2014) “도시공원의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실태 비교연구”, 『한국조경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34-37.
황기원(2001) “서울 20세기 공원·녹지의 변천”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379-44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2001)『한국고고학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2009)『사적의 보존 활용을 위한 해외 조사자료집』
문화재청(2006)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연구』
문화재청(2014)『사직단 복원정비 계획』
문화재청(2020)『2020년 지역문화재활용사업 문화유산 유유자적』
문화재청(2020)『문화재 연감』
문화재청(2021)『문화재 야행 42선』
서울역사편찬원(2017) 『서울의 발굴현장』, 서울역사편찬원
송파구 역사문화재과(2018)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
한국조경학회(2004)『조경관리학』, 문운당.
한국조경학회(2015) 『新조경관리학』, 문운당.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리 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문화재보호법』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국가기록원 https://theme.archives.go.kr,
뉴코리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https://www.newkoreaphil.com/

대한민국역사박물관 http://www.much.go.kr/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홈페이지 https://www.ddp.or.kr/
두산백과 https://www.doopedia.co.kr/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http://royal.cha.go.kr/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 http://jm.cha.go.kr/
서대문구 문화관광 http://www.sdm.go.kr/culture/travel/sub1020.do
서대문형무소역사관 https://sphh.sscmc.or.kr/
서울도보해설관광 https://korean.visitseoul.net/walking-tour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s://urban.seoul.go.kr/
서울시 공원통계(2020)
서울시청 https://www.seoul.go.kr/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yeyak.seoul.go.kr
송파구 문화관광 https://www.songpa.go.kr/culture/contents.do?key=3885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www.songpa.go.kr
송파구 홈페이지 www.songpa.go.kr
송파문화원 https://www.spcc.or.kr/spcclist.asp?cc=0303
종로구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jongno0401
종로구 종로테마여행 https://tour.jongno.go.kr/tour/main/contents.do?menuNo=110487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www.culturecontent.com
한성백제문화제 대백제전 https://www.songpa.go.kr/hanseong/index.do
한양도성박물관 https://museum.seoul.go.kr/

동아일보, 1987, “서대문 형무소를 사적공원으로”, 1987.10.23. 기사일부

동아일보, 2009, “갇혀있던 ‘독립문’ 111년만에 시민에 개방”(검색 2021년 9월 6일) URL: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091028/23726792/2

문화경제, 2014, “‘땅으로부터 명(命): 기원하고 기원하다’, 첫 번째 사직대제전야제 공연”(검색 2021년 9월3일)
URL: http://m.weekly.cnbnews.com/m/m_article.html?no=114183

Abstract

Management Improvement Plan Considering Multi-layered Placeness of Historical site Park.

SuYeon Lim
Advised by Professor Wookju Jeong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eoul, the capital of Chosun dynasty for about 600 years, historical sites exist together in urban space. In cities developed with high-density, historical sites are sometimes utilized as urban parks.

The historical site park has potential to improve the essential value and create new synergies of cultural heritage and an urban park. As the historic site is created as an urban park, it can be protected from the threat of damage caused by development. In addition, thanks to the public

character of the park, it is routinely exposed to the public, and naturally has an opportunity to convey the value and importance of cultural properties. Urban parks form an identity that is distinct from the general parks through historical sites. In addition, various programs can be organized and services can be operated based on unique historical content to improve the utilization value of urban parks. Historical site park improves the value of space when historical site and urban parks harmonize with each other, and more diversified benefits can be obtained. Currently, however, historical site park management still remains of each space management style and cannot maximize the value of the spa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rovement plans by considering the operational and utilization management status of the historical site park.

Cultural heritage has important values as the basis of forming the identity and subjectivity of a person. It should be actively utilized so that citizens can recognize their value and importance and deliver them to the next generation. According to the institution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and urban park, the necessity of not only preserving but also the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is emphasized. In particular, urban park intends to accommodate changes in meaning that occurred naturally coexisting cultural heritage contemporary and include them as part of the park.

In this study, Seokchon-dong Ancient Tombs, Pungnap Neighborhood Park, Sajik Park, Seodaemun Independence Park, and Tapgol Park were selected as case targets for each historical site park in Seoul. Based on this, the current status of operational management and utilization management were analyzed through literature surveys, field surveys, and interviews with officials. As a result of the current status survey,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historical site park were divided into historical site and

urban park areas, so there was no discussion on the level of operation and management between departments, but only passive management limited to maintenance. In the use management, cultural heritage commentaries were limited, such as providing only specific parks or limited to a part of the commentary course. The program was operated only in parks selected for projects implemen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historical events were held and used as cultural spaces.

Based on the derived implications, an improvement plan in terms of operational management and utilization management was proposed. In terms of operational management, historical site park can establish an integrated operating system in which cultural properties-related departments and park-related departments actively cooperate. Related experts can collaborate to provide an environment aimed at active use of historical site park and provide a certain level of use and management services to overall historical site parks.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o develop and operate programs in cooperation with private organizations, and to establish a single system that integrates and manages services using a historical site park.

The historical site park should be supported by active use management so that citizens can be interested in cultural heritage and understand their value and importance. Therefore, in terms of utilization management, it was proposed to provide customized cultural heritage commentary servic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and organize programs to use private parks through the opening of cultural heritage space. In addition, along with historical materials, it was suggested to hold an event to enjoy the culture produced by the present generation.

Meanwhile, each historical site park has its own historical context.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the character of the space of the historical

place site park are the results of several layers of time accumulated in each place, and it is necessary to take this into account and apply the improvement plan. Therefore, in this study, a detailed program to which the improvement plan was applied was proposed in consideration of the place context of the case target sit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ed improvement plans to focus on improving the essential value of historical site and urban parks and to secure differentiation from the general parks in terms of operational management and utilization management.

Keywords : Historical site park, Cultural heritage, Urban parks, Multi-layered Placeness, Operational and utilization Management, Improvement plan

Student Number : 2020-21181